

건축사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p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4 / February / 2007

0702

칼럼

건축사의 옥외집회와 메이저 매스컴의 건축관

시론

회관 대지지분 소송 경위에 대하여

화보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건축사 총 결기대회 개최

회원작품

구기동 주택 / 첨경현 / 토함 정사
포도원교회 / 청원전문대학 본관
회원종합사회복지관 / 의정부 세관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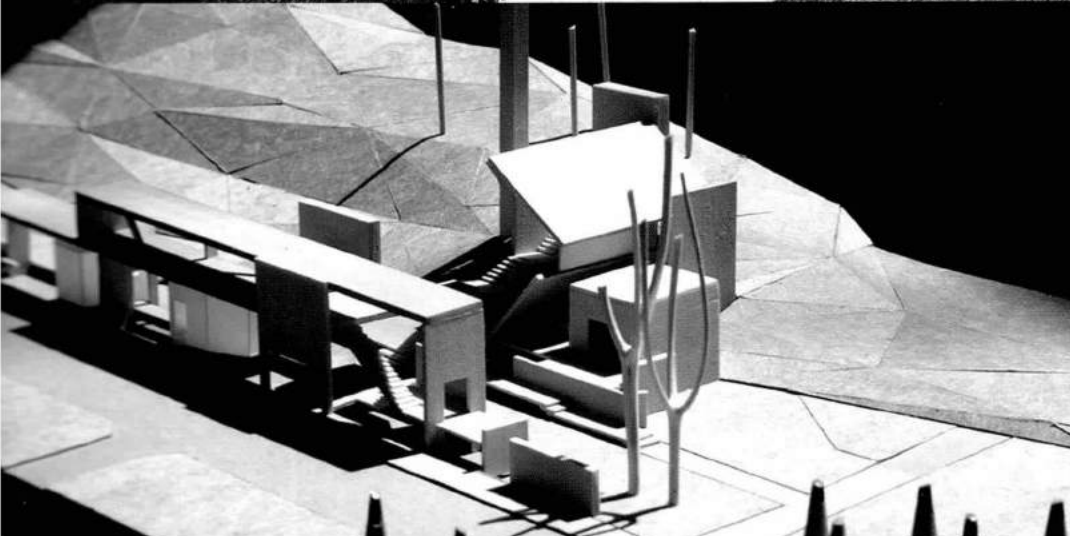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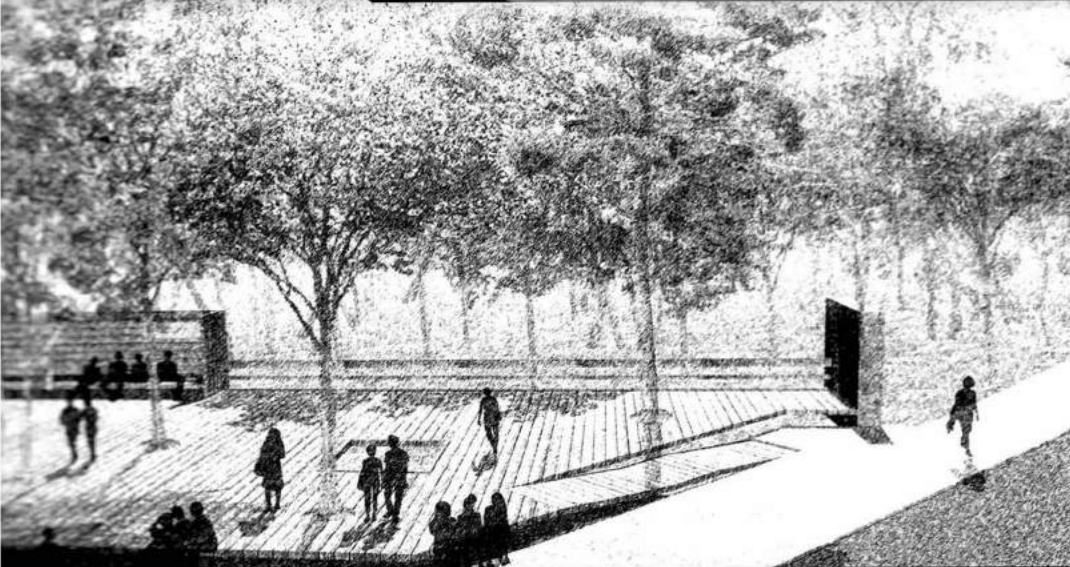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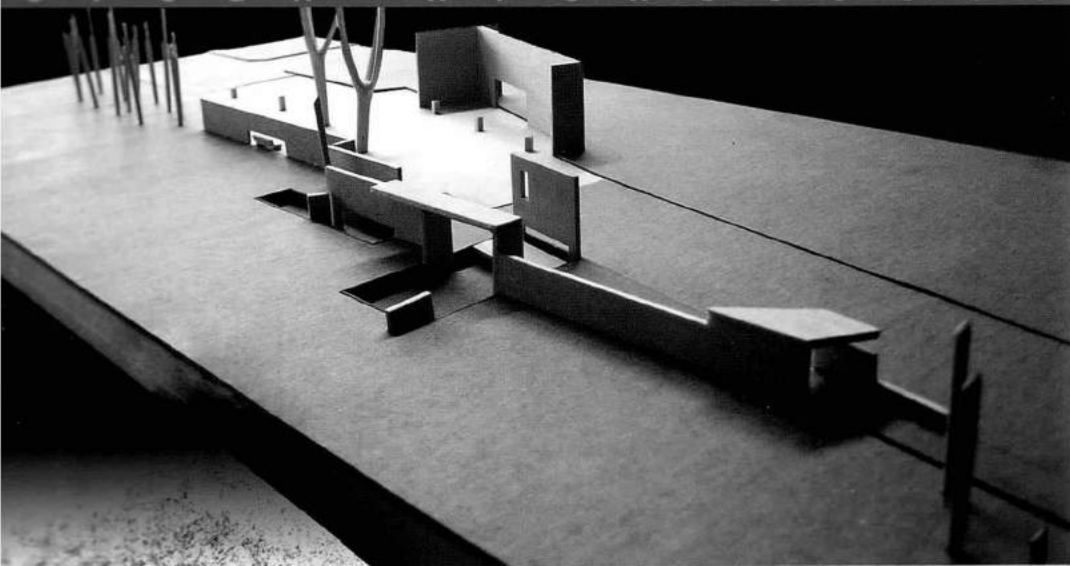
작품노트

선정릉 도시문맥과 영역성에서 바라본 경계

현상설계

파주운정신도시 경의선 운정역사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건축사_책을 말하다



0702 건축사 칼럼 시론 화보 회원작품 작품노트 현상설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단열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는 자연 그대로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신소재 단열재 - 에너포르



고열효율 단열재로 연료 절감
유기질로 합성된 독립기포 구조층으로 인한
고열효율로 연료가 절감됩니다.



건강 우선시하는 웰빙 단열재
독립기포구조로 수분, 습기,
세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단열재입니다.



안목치수 적용 용이로 높은 공간 활용도
저밀도에서 열관류율 적용시 단열재의
하용 두께를 15~20%까지 절감해
내·외벽 두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원료비 절감으로 합리적인 가격
발포 배수를 높여 비중을 낮추고
우수한 열전도율을 유지함으로써
원료비가 절감됩니다.

특허출원(10-2004-0078931호)



'가' 등급 단열재 획득!

에너포르(ENERPOR)는 동일한
비중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을 10~20%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입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J.F-Deck

(Joint Floor-Deck)

Truss Deck

2way Deck Slab System

Truss Deck

HI-Deck

NT-Deck

(New Truss Deck)

중첩결합이 없는 데크플레이트
하부면 노출시 도색불필요
접합부 누수방지

제 0451845호

**특허
등록**

NT-Deck
(New Truss Deck)
Truss Deck

J.F-Deck

[주]제일테크노스

<http://www.jeil21c.co.kr>

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대) / FAX : (054)278-2917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대) / FAX : (02)554-1476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쉼~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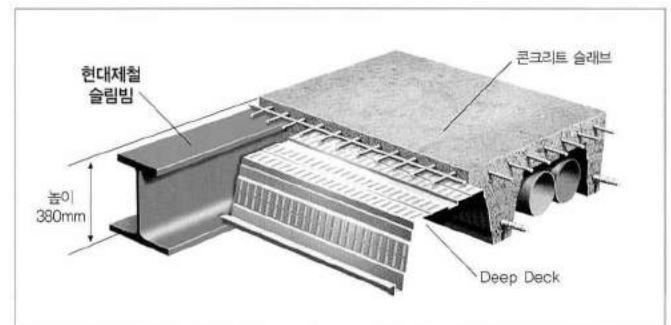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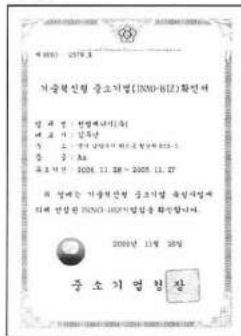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높이 깊은 데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작은 철골보
를 생략함과 동시에 층고를 줄이는 층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
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 청량리 삼성화재 사옥,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지하층)



세계 8개국 발명특허로 등록된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난방비!



가스 1년 난방비로 2년이상 난방!

온수배관 자체가 보일러인 초절전 온수관 난방시스템!

일반용 전력으로 심야 전력기기보다 저렴한 난방!

필름, 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 가능!

1.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초기전력량 40w/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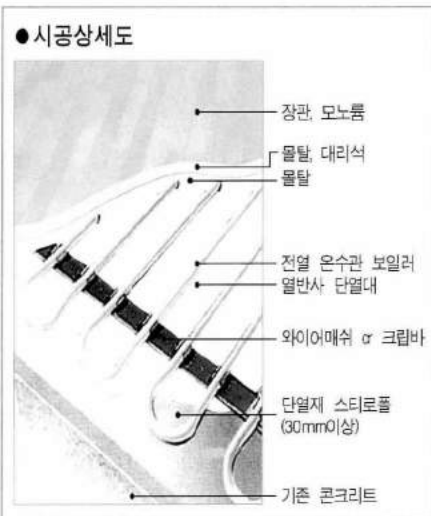
- 1) 밀폐한 X-L 온돌관 내부에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의 잠열로 제자리에서 **열 손실 없이** 비축열을 증가 난방 하도록 활용한 **초절전 난방 기술!!**
- 2) 난방전력이 **냉방전력보다 적음**으로 **절체방식**으로 사용하면 **기본 요금과 증설(변전시설)이 불필요**

2.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간편한 시설, 관리비 없는 영구적 난방 시스템(내구연한 30년 이상)

열매수를 이용 **전자파 차단효과**를 가져온 **편리한 중앙집중식 개별 난방 시스템!**

3. 보일러 없이 밀폐한 온수관내에서 열매수를 직접 가열·난방하는 방법과 장치

온돌배관 IN OUT 점검BOX에서 열매수와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와 A/S를 **가구 이동없이** 시공하는 **세계 최초의 발명 특허 시스템**



- ◎ "2006년 신기술 실용화 유공기업"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 ◎ "INNO-BIZ 기술혁신평가AA기업" 중소기업청
-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20030325)
- ◎ 『NEP 신제품1호 인증』 산업자원부 장관
- ◎ 『2006.우수특허제품 100대 기업 선정』
- ◎ 세계 8개국 『발명 특허 등록』 업체
-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과학기술부
- ◎ 『전기에너지 절약 부분』 산자부 장관상 수상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특허청
- ◎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 ◎ 『ISO9001:2000인증』
- ◎ 『전자파 환경인증서』 산자부산하
- ◎ 『전기공사업 등록』
- ◎ 『2004CEO 경영대상』 신기술 경영인 부분 수상
- ◎ 『경기 유망 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지사



- 당사 초절전 온수난방관(온수관보일러)은 발명특허임으로 무단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제품, 1가닥 발열선 난방방식은 표면온도가 80℃를 초과하여 X-L 온수관이 녹거나 탑니다.

※참조"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55조(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것

SMART PARKING®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 조작성이 쉬운가?
- ✓ 잔고장이 없는가?
- ✓ 소음없이 조용한가?
-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세 · 계 · 최 · 초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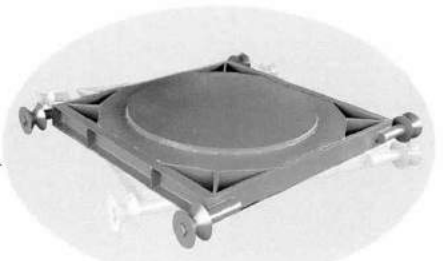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광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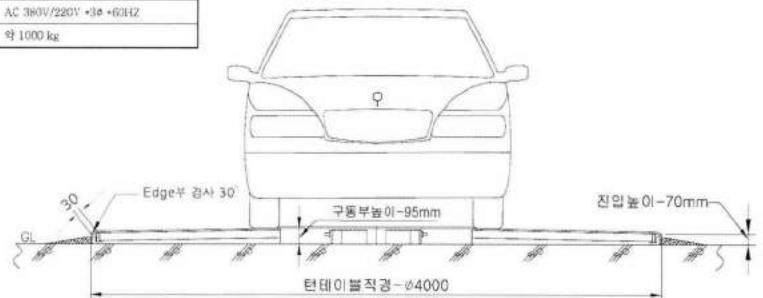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항공턴테이블(신형)
수용 차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방식	마찰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개
회전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전원	AC 380V/220V x 3φ + GND
자체 중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FAX : 054)973-0067

A/S : 02)323-4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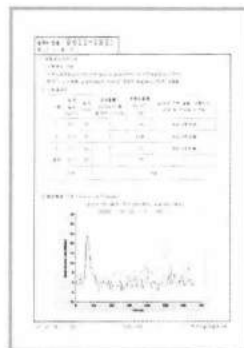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2007년부터 건물 지을때는 불에 잘안타는 프로폴판넬로 시공하세요!

“200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프로폴 판넬 난연2급 (준불연재료) 성능 획득!!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적서 번호 : 0612-1951)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기술과 품질에서 영춘판넬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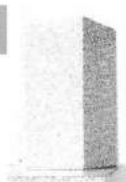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ISO 9001

KICT

단열재 화염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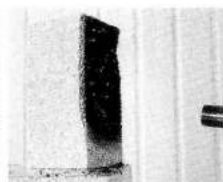
단열재 화염 테스트 결과
난연성에서 획기적인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테스트전



테스트 30초



테스트 60초

■ 제17회 MBC건축박람회 출품

▶ 일 시 : 2007. 2.1~2.5

▶ 장 소 : SETEC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 2007 하우징브랜드페어 출품

▶ 일 시 : 2007. 2.25~3. 1

▶ 장 소 : 코엑스

- ▶ 2001. 03 한국표준협회 KS표시인증.
(건축용철강제벽판, 지붕판)
- ▶ 2004. 11 난연3급 프로폴 판넬개발(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 ▶ 2006. 06 특허청 특허등록.
- ▶ 2006. 06 중소기업청 성능인증획득.
- ▶ 2006. 08 ISO 9001 인증획득.
- ▶ 2006. 09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 ▶ 2006. 12 난연2급 성능획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담문의

TEL : 033)261-8600

FAX : 033)262-6196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8-3

www.ycpanel.co.kr

다음, 야후, 네이버 검색창에서 **영춘판넬** 을 쳐주세요!

영춘판넬주식회사

※상용화 제품은 시험성적서의 시료와 동일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대리점모집

Gray

Green

Cedar

Acadia

Mahogany

합성목재 CorrectDeck

KOREA DISTRIBUTOR

천연목분(단종나무) 60% 함유
방부 / 방수 / 방염 / 도장 불필요
방부목 대체 친환경 자재
유지 보수 불필요
표면 미끄럼방지 처리
콘크리트보다 뛰어난 표면강도
간편한 시공



(주)아론물산

ARON COMMERCIAL

www.correctdeck.co.kr

본사/물류센터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10-11

Tel : 031)767-8695~7 Fax : 031)767-8698

전시장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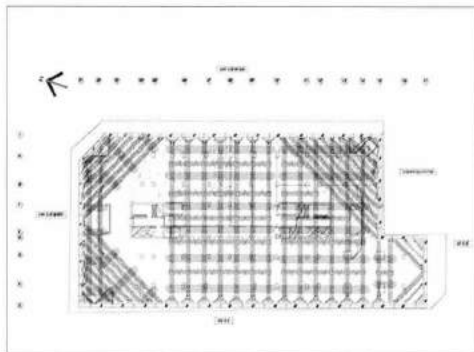
Tel : 031)768-7650 Fax : 031)766-7652

네 이웃을 섬겨라(마25:21)

흙막이 설계 감리 계측

부대토목 설계 및 측량

설계



감리



계측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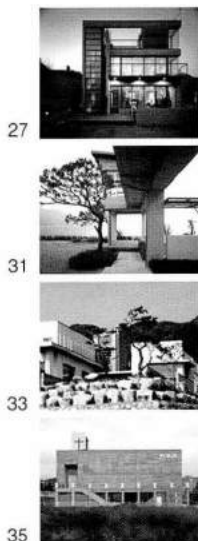
지반공학부 사업분야

- ◇ 흙막이 가시설 설계
- ◇ 토공사 감리 및 계측 관리
- ◇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 부대토목설계(아파트, 학교, 공공청사)
- ◇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 ◇ 분양가 연동제를 위한 공사비 내역서

본사 사업분야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종합)
- ◇ 감리전문회사등록(토목종합)
- ◇ 측량업등록(공공, 수치, 지하)
- ◇ 도시기본계획
- ◇ 택지개발사업
- ◇ 도시정비사업
- ◇ 관광지유원지, 골프장정비사업
- ◇ 역세권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 ◇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

Contents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7 02 454호

칼럼	건축사의 옥외집회와 메이저 매스컴의 건축관	장양순	14
시론	회관 대지지분 소송 경위에 대하여	정효환	16
건축만평		유원재	18
화보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건축사 총 쉼기대회 개최		19
회원작품	구기동 주택	김영식	26
	첨경현	송광식	30
	토함 정사	정현화 · 임영수	32
	포도원교회	이용우	34
	창원전문대학 본관	안길원	36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조민석 · 석순주	42
	의정부 세관	이만지	46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문철수	50
작품노트	선정릉 도시문맥과 영역성에서 바라본 경계	허서구	54
현상설계	파주운정신도시 경의선 운정역사		62
	강원대학교 생명 · 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66
기고	유럽 현대 교회건축 순례 (上)	김정신	73
건축마당	협회소식		81
	건축계소식		88
	건축인터넷정보		89
	법령		95
	200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97
	통계		98
	해외잡지동향		100
	건축사 책을 말한다		104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양해운, 유원재, 박호경,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락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정문사문화(주)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37



43



46



51

Column

Outdoor Assembly b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View from Major Mass Media

Chang Yang-soon 14

Focus

case details of "Hall site share" Jeong Hyo-hwan 16

Cartoon

Yoo Won-jai 18

Works

Gugi-dong Residence Kim Young-sub 26

Chum Kyeong Heon Song Kwang-seob 30

Toham Residence Chung Hyun-hwa & Leem Young-soo 32

Podowon Presbyterian Church Lee Yong-woo 34

Main Building of Changwon College An Kil-won 36

Hwa-won welfare center Cho Min-suk & Suk Soon-joo 42

Uijeongbu Customs Lee Min-jae 46

The traffic education and adventure park Moon Chul-soo 50

Design Note

Sunjung Neung; Threshold of Urban Context and Territoriality

Heo Seo-ku 54

Competition

Paju-Unjeong New Town Unjeong Station 6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io-Technology Center 66

Feature

Modern Church Architecture in Europe Kim, Jung-shin 73

Architects Plaza

Kira News 81

Archi-Net 88

Archi w.w.w 89

law & ordinances 95

Statistics 98

Overseas Journal 100

Book Review 104

Korean Architects

Vol. 454

February 2007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on, Shin Ho-gue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건축사의 옥외집회와 메이저 매스컴의 건축관

Outdoor Assembly b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View from Major Mass Media

2월 초하루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건축문화수호를 위한 건축사결기대회'는 영하 9도의 과천 별을 녹이고 남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제주도는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새벽잠을 설쳐가며, 세 살 박이 어린 아들까지 들쳐 안고 온 어머니 건축사, 80세 노구를 이끌고 온 원로 건축사까지 예상인원 보다 많은 건축사들이 동참하였다.

우리는 회장의 개회사와 아카시아 이사회의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낭독할 때 환호하였고,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철회할 것을 주장할 때엔 절규하였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문가의 존엄성과 건축사의 자존심과 생존권, 그리고 이 나라의 건축문화화를 위해 외치고 또 외쳤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갔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앞으로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응어리진 가슴이 조금은 풀린 듯하여, 내일부터 감기가 온다 해도 기쁘게 맛을 각오로 콧물을 흠치며 차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분은 단지 몇 시간뿐, 공중파 텔레비전의 저녁 뉴스는 물론 아침에 받아본 메이저신문들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시위기사는 없었다. 허탈감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끈질기게 이어진 건설사 설계겸업 문제는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작년 8월 말, 건교부에 의해 로드맵이 완성되고, 12월 말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다. 협회는 동년 10월 말, 정보를 입수하고 이사회와 시도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던 중, 그동안 세계의 예 등을 들어 수 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도 이리 막무가내로 대형건설사만 편드는 정책을 밀고 나가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사와 시도회장이 전원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의 시기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연말에 회의를 개최한바 시위의 시기에 대하여, 2월 1일안과 4월안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2월안은 첫째, 현 집행부가 먼저 시작을 해야 차기 집행부가 짐을 덜 수 있다는 것과 둘째, 2~3월에 본회 및 시도회의 회장이 모두 새로 취임하는데, 새 집행부가 업무파악도 잘 안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러다보면 아예 옥외집회는 못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그 때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하자는 것이었다.

4월안은 첫째, 건교부장관 이하 주무 국장들이 금방 바뀌었으니 밀월기간을 두자,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지금 시위한다고 용역보고서가 철회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실익이 전혀 없다. 차라리 중간보고서가 5월쯤 나온다고 보면 그 때가서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셋째, 우군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업역 다툼,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 경우 매스컴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렇다면 건설사 설계겸업 시 예상되는 피해를 널리 알려, 소비자 보호단체, 주부클럽 연합회 등을 우군으로 만들고, 중소건설사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바 이들과도 연합하며, 4월에는 학생들도 수업 중이니 건축과생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건축사 아닌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야 매스컴도 반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그 경비와 시간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유대

예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책임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표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홍보담당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위에 떨면서 시위에 참가한 모든 회원님께 사과한다.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 다시 이같이 처참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려하는 것이다.
감성보다 이성,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다.

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시도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주장한 2월안이, 이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장한 4월안을 15대 7로 이겨, 가결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동되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며 각자 맡은바 준비했다. 홍보의 경우, 다행히 본 행사 기획사에서 공중파 텔레비전 2사와 메이저신문 두 곳 정도는 가능하다하여 한시름 놓고, 나머지를 확보하기로 하는 한편, 각종 문안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위 3일을 앞둔 월요일 아침, 기획사측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왔다. 보도 자료를 보고 모두 불가하다하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이었다. 홍보팀은 친구, 선후배, 부인까지 동원하여 힘써 보았으나 심지어 광고를 준 신문사마저도 외면하였다. 참패! 실로 처참한 완패였다.

매스컴들은 시청자와 독자의 눈과 귀를 먹고 산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가 회사의 매출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철저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들에게도 상존한다. 그들에게는 건축문화도, 10만명의 생존권도 그저 업역다툼의 한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건축에 무지한 소치이나, 그렇다고 그들을 교육할 수도, 탓할 수단도 없는 현실이다.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2월 집회를 당초부터 반대해온 것이다. 그러나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일단 협회차원에서 결정되었기에 열심히 했고, 텔레비전은 몰라도 신문은 한두 단으로나마 보도해줄 것을 기대했었다. 친구인 메이저 신문사의 편집차장을 만나고 온 모이사는,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탈락되었다는 전언에 허탈해했고, 필자 또한 두 곳에 전화 인터뷰를 했기에, 그곳만은 믿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문 방송사를 향하여 항의의 글을 올리고, 전화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건축사와 설계를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리해도 막대한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대형건설사의 입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 포석으로 채택할 전략이다.

책임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표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홍보담당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위에 떨면서 시위에 참가한 모든 회원님께 사과한다.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새 집행부는 금년 한해를, 어찌면 임기 내내 건설사의 설계검입과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한다. 이제 한 달도 채 안되어, 누군가가 필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봉사할 것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또 다시 이같이 처참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려하는 것이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매스컴과 연관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앞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실 것이다. 함께 힘을 보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성보다 이성,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다. ■

회관 대지지분 소송 경위에 대하여

- 서울 지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필요

case details of "Hall site share"

- need for systemetic guarentee to exercise Share of Seoul

지난 1965년 협회가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빈번히 이전하였다.

1965.12.3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2번지

1966.2.19 서울시 중구 북창동 94-12 동아빌딩

1966.7.2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

1967.11.20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25 정양빌딩

1972.3.2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0-17 해성빌딩

이렇게 자주 이전하게 되어 서울시건축사회(당시 서울지부)는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부터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971.11.23 서울지부 제6회 정기총회에서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칙을 승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회원으로부터 설계도서 등록 시 회관건립 기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적립했다. 2년여에 걸쳐 기금이 적립되어 회관을 물색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9-1」 건물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 협회가 매입에 동참한 것을 요청해 와 1974.4.12 총 42,431,348원으로 본 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가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투자액은 서울시건축사회가 29,571,248원으로서 69.7% 본 협회가 12,860,000원으로서 30.3%의 비율로 대금을 지불했다.

당시 서울시건축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회관 지분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태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단지 회관을 가지게 된다는 기쁨에 충만해 69.7%의 금액을 출자하면서도 겨우 30.3%만을 출자한 본 협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본 협회 회장과 약정서로만 법적인 권리를 명시해 지금의 상태를 감안할 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만일 그때 타 시·도건축사회처럼 회관 명의를 서울시건축사회 몇 사람 앞으로 신탁 등기를 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회관을 매입하였으나 건물 명도가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임대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매입 2년 만에 다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이 협소하여(당초 서울시건축사회 회관으로 물색한 건물) 본 협회가 입주하고 나니 정작 건물의 주인 격인 서울시건축사회가 입주할 장소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인접대지인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56-2」 대지 건물을 당시 총무이사인 박성규 회원과 감사 박래운 회원이 주도하여 매입하였으나 이 일대가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무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협회의 사업계획을 듣고 당시 서울특별시 건축과장이던 권태정 회원이 시장의 특별승인을 득하여 사무실을 건립, 서울시건축사회가 입주하였다.

1976.11.2 개최된 본 협회 제11회 정기총회에서(제8대 회장 이규복) 서울시건축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송관식 위원장이 서울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의장이 답변으로서 서울지부와 협회의 회관 투자비율이 63:37이며(토지 건물매입

으로 발생된 제반 공공금 등을 청산하여) 일차적으로 서울지부 회관 건립을 준비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다.

이후 서린동 회관이 도심재개발사업 서린지구에 속하여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해서 1981.10.30 본 협회 제16회 정기총회(제13대 회장 구윤희)에서 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관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1981.12.8 제19회 이사회에서 21명(각 도지부장 포함)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1982.1.28 제1회 회관건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 구윤희, 위원장기인, 송관식, 최창규, 한창진, 이춘상, 박우하, 이승우, 김지태 회원 등이다.

소위원회에서는 이전 사업계획 확정 후 서울지부와와의 지분권의 분리, 가격의 보안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983.2.24 본 협회 제1회 임시총회(제14대 회장 김지태)에서 회관매매 및 이전(예정지 선정, 대지매입, 회관신축, 임시사무실 임차 등) 추진을 회관건립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서린동 회관을 매각(1983.3.22)한 뒤 1983.4.13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 61-3(현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지 1,884.4㎡(570.2평)을 매입하고, 서울시건축사회와 본 협회의 지분비율이 서린동 매입 시 약정서 내용대로 63:37로 결정하였음을 본 협회가 공문으로 발송(총무 140-493(1983.5.31))하여 분명히 명시했다.

1985.3.9 서초동 회관이 준공되어 서울시건축사회도 입주하였으나 임대한 은행, 다방, 음식점, 회의장 사용료 등 회관 운영 권한은 일체 본 협회가 단독으로 운용하였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지분의 63%의 지분 권리로서 사무실만을 사용하였고, 서울시건축사회 산하(당시에는 임의가입이 아님) 서울시건축사회복지회에게도 임대를 하는 등 서울시건축사회에게는 회관운용에 대하여는 의견을 묻은 일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항에서 서울시건축사회는 본 협회에 16차례나 지분 약정을 다시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협회는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 미루었다. 이렇게 된 사항은 1985년 회관 준공 후 결산총회 시 양측의 지분을 확정하지 않은 서울시건축사회의 단일한 태도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울시건축사회 회관 사용에 대하여는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여름 우남용 회장(제18대 회장)과 숙의한 끝에 법적인 방법을 취하되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새건축사회 창립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우리회의 단결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들어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의 임기 만료되어 회장이 교체되었다.

이후 다시 지분 문제에 대해 본 협회와 논의하였는데, 서울시건축사회(제20대 김영덕 회장)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답변만이 반복되자 이를 법적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던 중 또 다시 회장이 교체되어 2004.11.22 본 협회(송수구 회장대행)을 피 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05.3.11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피신청인(협회 제26대 이철호 회장)은 신청인(서울시건축사회)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호」 대1,884.4㎡중 50/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서를 2005.3.21 문서로 송달받고 본 협회 회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조차 득하지 않고 2005.3.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시작되었다.

수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2005.8.26 제1심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본 협회)는 원고(서울시건축사회)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호」 대지 1,884.4㎡중 16.46/100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나 조정 내용과 제1심 판결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아 서울시건축사회 제15회 회관지분확보특별위원회에서 항소하기로 결정되어 2005.9.15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6.5.11부터 재판이 시작돼 수차례의 공판 끝에 2006.11.2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철거한 건물의 건축비용(대지 구입비), 중개수수료, 감정수수료, 인지대, 등록세, 취득세, 전주 이전비, 간접비(유가증권구입비), 도급비(건축공사비) 승강기 및 설치, 용벽공사, 강당 의자, 설계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회의비, 기타 잡비, 간접비용”이 협회 투자금이고, 서울시건축사회 투자금액은 구 서린동회관(서린 89-1)의 매각대금의 63%만을 인정한 결과이다.

서울시건축사회가 회관 운용에 관하여 그동안 하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서초동 회관 대지 매입 시 투자한 금액에 대한 비율의 대지 지분 요구는 어렵게 되었고, 이제 16.46%에 대지지분만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니 이후 다시는 오늘과 같은 다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협회는 서울시건축사회의 정당한 지분을 서울시건축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건축사회가 건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회관 운용에 동참할 수 있게 본 협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국민의 생명·재산, 건설사에 맡길 순 없다”

건축사협회, 정부의 건설사 설계업 허용 방침 중단 요구 장외 집회
 “부실 건축물 대량 양산, 아파트값 상승으로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
 정책 철회시 까지 투쟁 선언, 소비자단체 합세한 대규모 연합집회도 예정



우리협회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일 과천정부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건축사 및 건축사보, 4,5년제 대학 건축학과 재학생 등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축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건축사 결기대회’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열고, 정부의 대형건설업체 설계업 허용방침을 대대적으로 규탄했다.

협회는 이날 건설업체에 대한 설계업 허용방침이 ‘건설업체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특혜가 “건축사들을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케 해 건축물의 감시감독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실 건축물 양

산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계업 허용 방침이 건설사가 설계, 감리, 시공권 독점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를 호도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전국 건축사가면적의 4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턴키, BTL 설계의 대부분을 건설사에게 넘겨줘 건축사의 생존권을 버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성토했다.

특히 20개 동의 아파트와 호텔 등의 내진설계 조작으로 열도 전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일본의 ‘살인맨션’ 사건처럼, 건설사에 대한 설계점업허용은 단순한 건설사의 이익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 | | |
|-----------|---------------------------------|
| 1. 플래카드 | 6. 현장스케치-퇴장카드 |
| 2. 행사장 전경 | 7. 기구로 하늘높이 홍보되는 '건축문화 수호 쫓기대회' |
| 3. 플래카드 | 8. 개회식진 단상위 전경 |
| 4. 플래카드 | 9. 본협회 부회장단 소개 |
| 5. 플래카드 | 10. 본협회 이사진 소개 |

협회는 이날 '세계 각국에 보내는 글' 낭독에 이어 설계겸업의 부당성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형건설업체 설계업 허용특혜' 저지에 대한 1만5천여 건축사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오직 건축물의 공급만이 절체절명의 생존전략이었던 지난 40여년간은 모든 법과 제도가 건설을 위해 존재했다"며 "이는 건설업체들이 집과 땅을 마음껏 사고 팔고, 관련 업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되돌아왔다"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을 호소했다.

이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건축의 세계화와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국가적,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천명해온 정부가 건설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앞장서는 독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쫓기대회에 앞서 지난 29일부터 전국 건축사들이 매일 3시간씩 연이어서 참가하는 1인 시위가 정부청사 앞에서 진

행되었고, 지난 30일 국내 대형건축사사무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번 설계업 겸업 허용 방침이 '건축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협회의 반대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이번 대규모 시위 이후에도 건축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전국건축학과 대학생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각 문화단체, 소비자단체까지 합세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 계획이며, 세계건축사연맹과의 연대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17개 건축사단체로 구성된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정결의문을 이미 채택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 밀실회의를 통해 건설사의 설계겸업방향을 확정해,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뢰한 상태며 올 하반기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 개회를 선언하는 이영순 비상대책위원장
2. 건축사 헌장을 낭독하는 박영순 여성건축사위원장
3.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강성익 서울건축사회장
4.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철호 대한건축사협회장
5. 아카시아 임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근창 아카시아 회장
6. '아카시아회장 결의문'과 '세계각국에 보내는 글'을 영아와 함께 양국어로 낭독하고 있는 심재호 국제위원장과 이재림 기획분과위원
7.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대사 정한용 전 국회의원의 지원 연설
8. 결의문 전달
9. 민세상장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민의 생명·재산을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맡길
순 없다.

정부는 부실 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문화 선진화를
요원케 하는 건설사 설계업 허용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1만 5천여 건축사들은 오늘 건교부의 건설정책이 몇몇 대형 건설업체의 농간에 따라 아무런 이유나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되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 도달하였기에 살을 에이는 혹독한 강추위를 무릅쓰고 이 과천 정부청사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건교부가 더 이상 대형 건설업체 돈벌

이에 앞장서서 심부름이나 하지말고 재벌 건설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21C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희 건축사들은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된 건축전문가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사들이 국력의 성장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건축 전문자격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전쟁 이후의 국가적 상황이 모든 것이 부족한 그야말로 공급만이 필요할 뿐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건축분야 또한 문화나 창작품이니 하는 외침은 한낱 배부른 자들의 풍악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특히 폐허 속의 건축물의 공급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생존 현실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영순 비상대책위원장



대국민 호소문에 열렬히 환호하는 건축사

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현실은 건설 공급 속도만이 살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과 제도를 건설을 위한 방편에 맞추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40여 년간 운영되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40여년 간의 타성은 결국 창의성과 창조적 능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현재와 미래 세계시장의 커다란 조류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건설의 역군이면 애국자라는 등식이 팽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마을운동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건축문화와 철학 사상 이념 등이 포함된 고도의 창조적 능력을 교육받고 배양하여 이를 다 버리고 결국 건설업체에서 건설과 집을 짓기 위한 보편적 기술의 완성수단에 쓰여지는 우리나라의 현 건설산업 구조로 무슨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무모하게 건설업체들에게 집장사, 땅장사를 마음껏 하게 하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면 이와 관련된 모든 업종을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만물상' 식 업역구조를 지켜주기 위한 과잉보호주의에 고착된 관행과 법, 제도가 오늘의 국민적 고통을 안겨주는 부동산 문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부담과 고통을 모두 국민들이 받고 있음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교부 건설경제국은 어이없게도 이를 one stop service 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와 약사도 one stop service로 하나의 자격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가도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하여 one stop service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 부려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이 효율성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수년 전에 끝났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건축분야가 건설을 위한 공학과 기술도 한계가 있고 보편화 되어있음을 깨닫고, 건축분야를 창조적 산업 (creative industry)으로 전환하여 창조적 디자인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미래를 향한 차원 높은 곳으로 세계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주 몇몇 재벌업자들의 농간에 건축 설계업을 하려면 대형건설업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떼어주고 업을 하라는 식의 건설사 설계업 허용제도를 만들어주겠다니 이 어찌 망국의 길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업체가 땅을 가지고 무슨 노력과 기여를 했다고 그들과 상관없는 땅을 사고 파는 권한을 부여하여, 오늘의 이 엄청난 부동산 문제를 만들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건설업체의 무자격자들이 건축설계를 하는데 무슨 노력과 기여를 했다고 일정 금액을 떼어주고 설계업을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조폭들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뜯어 낼 때는 보호해주겠다는 '명분' 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이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꾸미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진성을 갖게 하는 범죄적 행위인지를 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건설은 오로지 건설기술로만 승부하도록 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이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세계화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몰래 결정해서 꼭두각시용역이나 주어서 적당히 객관적 자료 명분이나 만

들어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타부서에 핑계나 대며 대형업자들의 치졸한 앵무새 노릇이나 하지말고 정정당당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건축설계 건축사 자격제도 분야는 세계 용역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자격상호 인정을 앞두고 대학 교육제도도 5년제로 개편하였고, 모든 국가 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서 다가오는 세계화 물결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업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돈벌이에나 앞장서서 교묘히 국가지도자들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공사비의 2~3%정도에 불과한 설계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대략 이러합니다.

첫째, 특정 대형업체들이 설계기술력 보유라는 명분으로 건설시장을 몇몇 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그들이 건설시장을 독점하여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시도입니다.

둘째, 지금 건설비용 원가공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빗겨가기 위하여 이를 건축사 자격자를 내세워 교묘히 은폐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국내 재건축과 아파트시장(국내건설시장의 40%내외)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수단과 방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공사비를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 각종 건설업자들의 이익 방패막이로 사용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다섯째, 건축사 고용은 곧 감리 권한의 확보이므로 건설업자들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건설업자들에게는 아무도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설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발원이며 영원한 안식처로서 국민들의 삶과 철학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을 창조해내는 고도의 전문적 정신활동입니다.

어찌하여 수단을 만드는 자에 불과한 무자격자들이 돈이 많아, 권력이 크다 하여, 정부를 흔들며, 이 나라를 혼돈의 세상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입니까?

건축설계는 건축사 개인의 창의적 역량에 따라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산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자들

은 건축사를 고용하여 자기들의 돈벌이에 이용할 뿐이지, 절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건축사들도 거듭나겠습니다.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가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까지 흔들며 대는 저 거대한 재벌건설사의 금력과 권력의 힘에 역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오로지 국민들의 힘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사태와 같이 들으려하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밀실에서 몰래 결정하여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적당한 근거나 만들어 건설업체의 하수인 노릇이나 적당히 하여 지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부관계자 그리고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국민들 손으로 물이냄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요령과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것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07. 2. 1.

대한민국 1만5천여 건축사 올림

<결 의 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부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라!

정부는 건축설계시장을 왜곡하고 건축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건설사 설계업 허용 특혜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일만 오천여 건축사들은, 건축설계시장이 날로 축소되어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해마다 건축사를 계속 양산하고 방치해 놓음으로써 무질서한 시장을 자초한 건설교통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엄중히 질타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생존을 위해 혹독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와 감리가 그들에게 독식되도록 강제적으로 제도화하고 부추김으로써, 이 분야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대다수 건축사들의 기본

적인 생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현실이 이 어려움에도 우리 건축사들은 수년간 인내하며 정부의 건전한 대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참아왔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 300세대 미만의 소형 감리업무 조차 박탈하여 대형업체에 밀어주기로 업역을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설계업 조차 건설업자들에게 허용하겠다는 망국적 사태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아무런 국가적 실익이나 국가 비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로지 대형 건설업자들만을 위한 건교부의 자세여서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모든 일은 건교부가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와 설계 창작산업 분야를 포기하고, 건축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간주하며 우리는 이를 시대착오적이며 지극히 후진적인 작태로서, 무지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초대형 특정 건설업자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축출하고, 건축분야의 실체적 문제개선을 통한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21C 선진화를 위한 방안마련 등 건전한 정책논의로 전환하여, 몇몇 특정집단의 이익대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분으로 정부가 임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건교부는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둘, 건축사 업역 축소 및 자격양산으로 빚어진 영세 건축사의 생업기반을 마련하라
- 셋,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설계업 허용 특혜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넷, 건교부 내에 재벌 건설업체들의 하수인들을 색출하여 즉각 퇴출하라
- 다섯, 정부는 건축문화를 증진하고 건축창작 산업을 육성하라
- 여섯, 건축사의 업역을 확충하여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 일곱, 건축설계전공 학도들의 고용보장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라
- 여덟, 건교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밀실 업무 처리의 구시대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우리의 요구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확대되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 2. 1.
대한민국 1만5천여 건축사일동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있는 최광식 울산건축사회 회장

<아카시아 결의문>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 태국 치앙마이

대한민국의 관리감독기관은 건설회사에서 건축사를 고용하여 '사내건축사'로서 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회와 집단에서 건축사의 공정한 역할과 의무가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법과 제도로 인해 건축사의 역할은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건설회사의 주된 목적과 사업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건축과 환경에 대해 유일하게 독립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건축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형건설회사에 의한 설계시장 독점으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에 아카시아 이사회는 연합하여, 한국 정부의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며 한국의 환경과 건축의 질 유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건축사들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카시아 결의문을 적극 지지하기로 한다.

2005년 11월 3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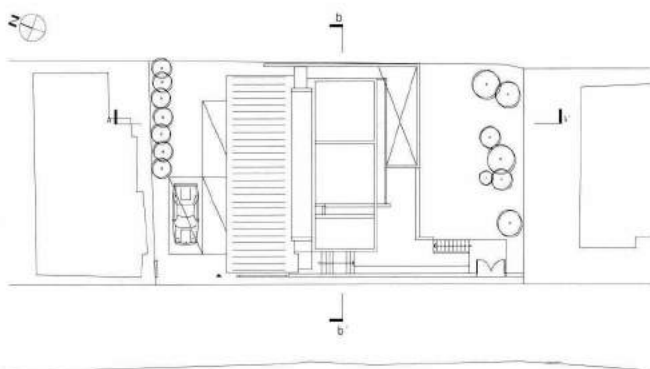
2005. 11. 30
Robert S. Sac
아카시아 사무총장
Yolanda David-Reyes
아카시아 회장

구기동 주택 Gugi-dong Residence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분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30-103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57.25㎡
건축면적	103.77㎡
연면적	319.93㎡
건폐율	29.04%
용적률	67.3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YS식쪽널노출콘크리트, THK24복층유리, 칼라스텐
내부마감	아크릴계수성페인트 위 수용성 락카, 대리석판석 붙이기
설계담당	백우홍, 김진범
인테리어	(주)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구조	명일구조
설비	범창설비
전기	한양TEC
조경	이윤정 조경연구소
시공	박종오
감리	(주)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장동호, 한수영
설계기간	2003. 09 ~ 2003. 10
공사기간	2003. 11 ~ 2004. 11



Location	230-103, Gugi-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357.25㎡
Bldg area	103.77㎡
Gross floor area	319.93㎡
Bldg coverage ratio	29.04%
Gross floor ratio	67.38%
Structure	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3. 09 ~ 2003. 10
Construction period	2003. 11 ~ 2004. 11



1. 남서쪽에 자리한 구기동 주택의 입구
2. 남동향의 정면



구기동 북한산 등산로 북사면에 위치한 주택지는 급한 경사 때문에 설계와 시공 면에 까다로운 점이 많았지만 주위의 뛰어난 경관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대지였다.

설계 구상에서 가장 신경이 거슬린 것은 북동방면의 이북5도청사다. 북한산의 수려한 배경에 경관지구조례를 무시한 채 5층 높이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앉은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 거대한 외관을 흰색 화강석으로 둘러놓은 것은 정말 보기 싫었다. 우리 선조들이 대자연속에 집을 지을 때면 자연보다 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붕의 기와조차도 소성온도를 부려 낮추어 검은 기와로 만들었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꾀하였던 겸양의 태도는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커다란 집을 짓기보다는 분절하거나 분재하여 주변의 자연보다 작은 스케일로 절집들을 지어냈던 예지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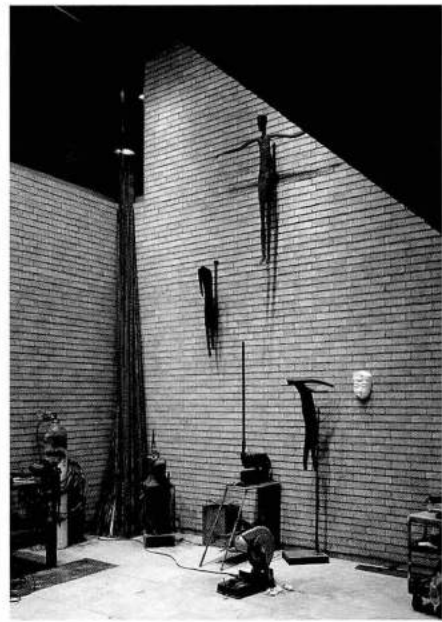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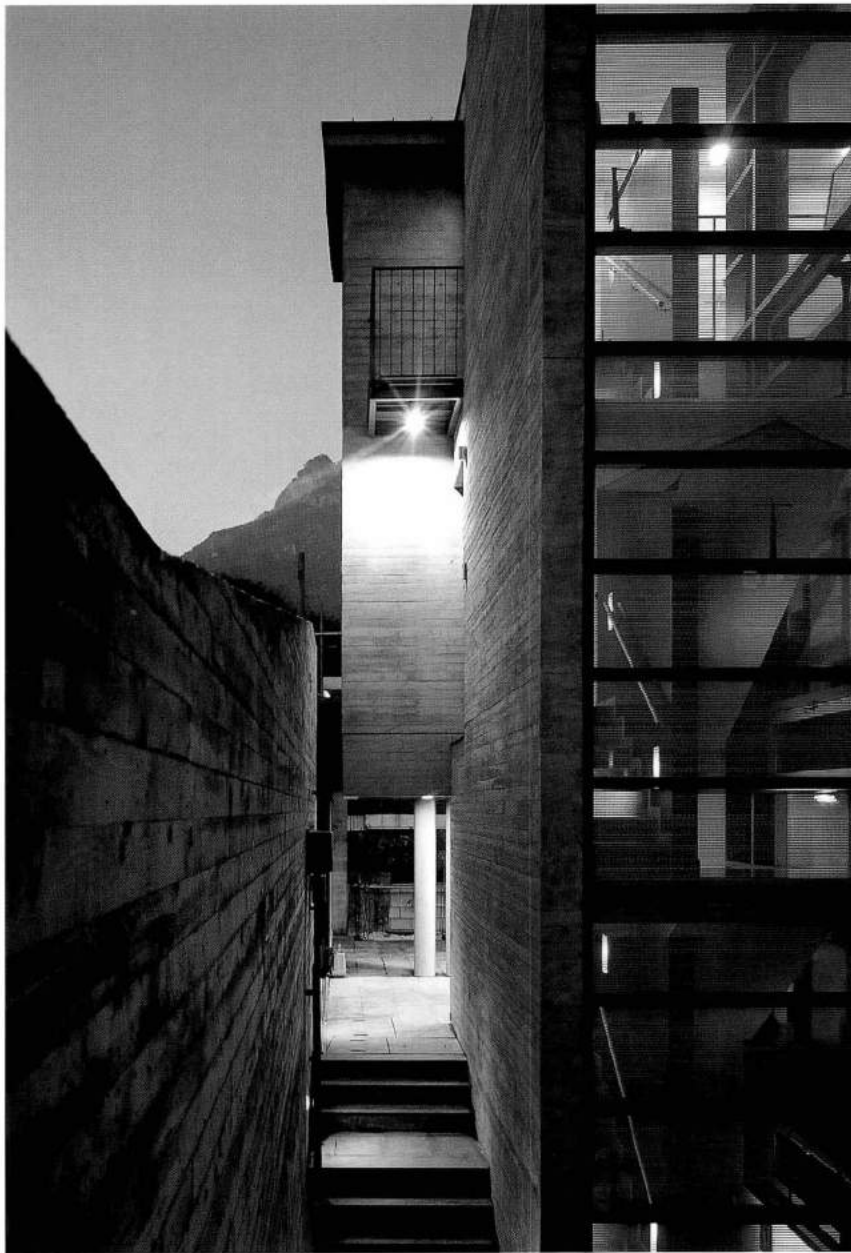
이런 연유에서 나는 구기동 주택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면 보기 싫은 이북5도청사가 새집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하고 내내 궁리하였다. 집이 완성되고 난 후 집주인들이 이북5도청이 정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말해줄 때까지 나는 노심초사하였다.

요즈음 나는 7백년전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지방에서 태어난 안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을 떠올리곤 한다. 성프란치스코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디 작아지십시오!' 이다. 이 말씀은 건축사나 도시계획가가 자연 앞에서 또는 자연 속에서 아니면 자연을

다룰 때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금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구기동 주택의 배치는 이웃집들이 신참주택이 들어설 때 늘 요구하는 텃세를 치러 낸 결과이다. 이 세상에 혼자만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어느덧 우리네 이기적 의식구조는 새로 짓는 집에 대하여 환영하는 이웃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신고식을 치르게 해야 할 감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듯싶다. 법을 준수하고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웃의 주문대로 하지 않으면 일단 민원을 내서 어떻게는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의 선량한 건축주는 이웃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집의 터잡이는 북쪽, 남쪽 집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당 키울 욕심을 버린 채 엉거주춤하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슨 대수랴. 집안이 두루 화목하고 그 기운이 뻗어나가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덕목인 것을...

집의 구성은 부부조각가의 작업실이 지하에 2층 높이로 놓여있고 화실이 1층에, 2층에 거실과 부엌이, 3층에 아이들과 부부침실이 있는 그야말로 단촐하고 평범한 구성이다. 계단이 각실들을 연결하는 공용 부분이 되어 실장율도 매우 높다. 건축사는 평범한 일상을 즐거움과 경이로움으로 바꾸어 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침실과 거실에는 남동쪽의 운수봉 능선이, 부엌에는 비봉이 보이는 그림 같은 정경을 보다 큰 그림틀에 담아내기 위하여 창높이를 키우고 천정면을 1/4 원으로 만들어 시선이 산등성이를 타고 하늘가로 넘어가게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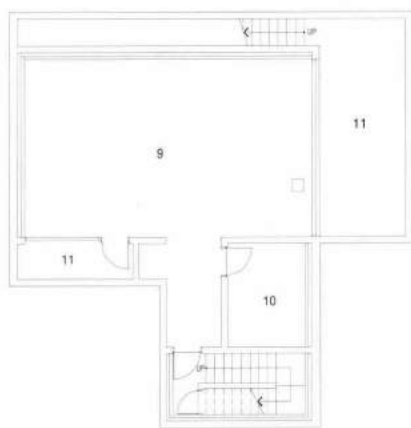
1. 계단실-과 실험을 연결하여 주변공간도 담아낸다.

2. 계단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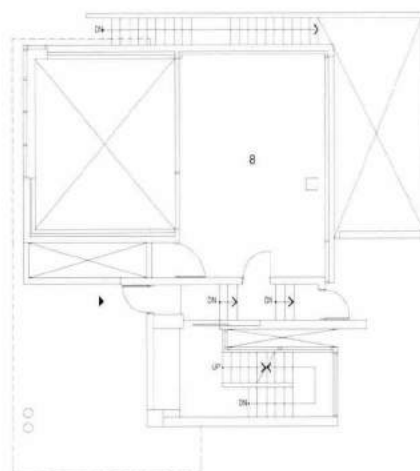
3. 조각작업실-지하에 2층 높이를 놓여있다.

4. 전경

5. 이드리에-조각 작업실이 보이는 1층에 자리잡았다.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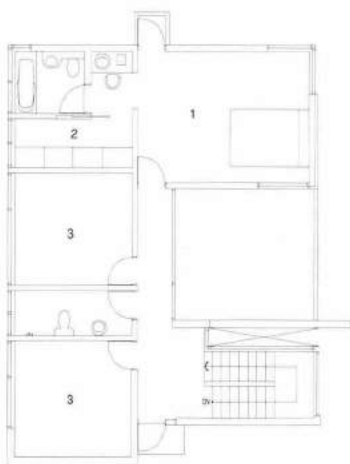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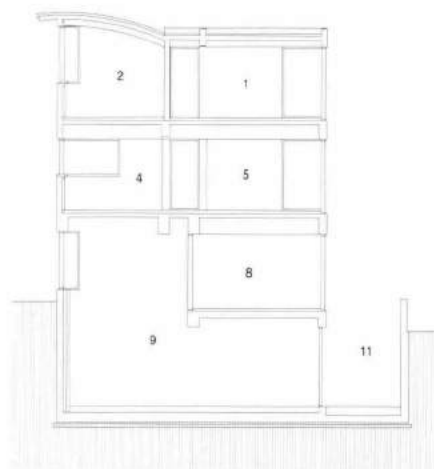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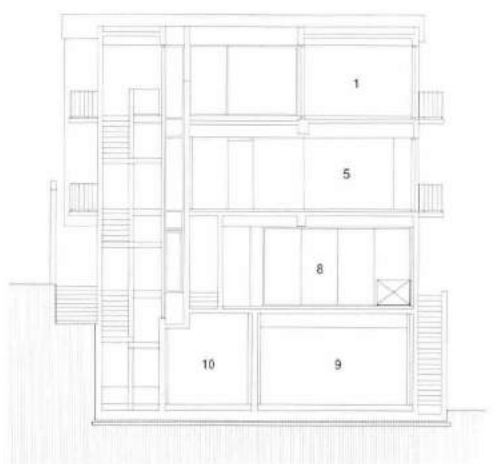
- | | | | |
|----------|---------|---------|---------|
| 01. 부부침실 | 04. 주방 | 07. 손님방 | 10. 기계실 |
| 02. 옷방 | 05. 거실 | 08. 서재 | 11. D.A |
| 03. 자녀방 | 06. 칼부엌 | 09. 작업실 | |



지상 3층 평면도



중단면도



최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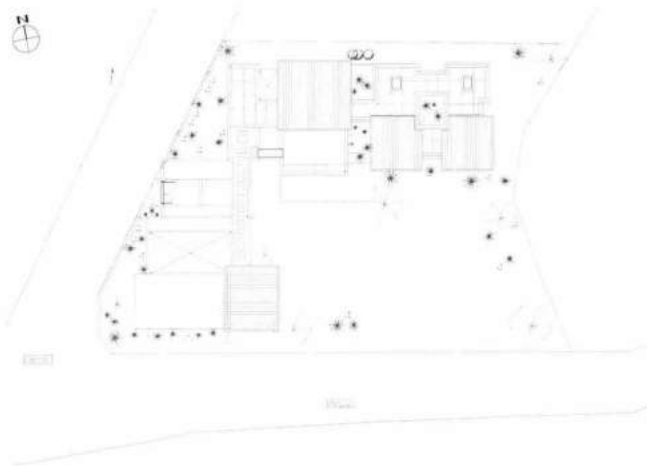
첨경헌

Chum Kyeong Heon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작 / 2005년 12월호 게재〉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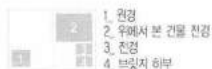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15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준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구역, 수변구역
주요용도	주택
대지면적	844.64㎡
건축면적	161.44㎡
연면적	194.77㎡
건폐율	19.11%
용적률	23.0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지장벽지, 석고보드위 지장페인트마감, 원목마루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ZINC
설계담당	이주연, 오명종
구조설계	예영구조
설비설계	청파설비
전기설계	극동문화전기
시공자	박인중
건축주	박인중
설계기간	2004. 05 ~ 07
공사기간	2004. 07 ~ 2005. 10



Location	60-15, Daesim-ri, Yangseo-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844.64㎡
Bldg area	161.44㎡
Gross floor area	194.77㎡
Bldg coverage ratio	19.11%
Gross floor ratio	23.06%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Design period	2004. 05 ~ 07
Construction period	2004. 07 ~ 2005. 10





- 01_ 대문 05_ 드레스룸
- 02_ 수영장 06_ 욕실
- 03_ 주방 07_ 방
- 04_ 거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토함 정사 Toham Residence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문 우수상 수상작/2006년 3월호 게재〉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347-4 외 1필지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대지면적	1,137.00㎡
건축면적	208.88㎡
연면적	250.74㎡
건폐율	18.37%
용적율	17.39%
주차대수	2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6m
외부마감	외단열/실리콘 페인트, 적삼목루버, 칼라복층유리노출콘크리트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임영수)
설계담당	박기원, 김경배, 배좌선, 이장우, 김석철, 권오재



Location 347-4, Jinhyeon-dong,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Site area 1,137.00㎡

Bldg area 208.88㎡

Gross floor area 25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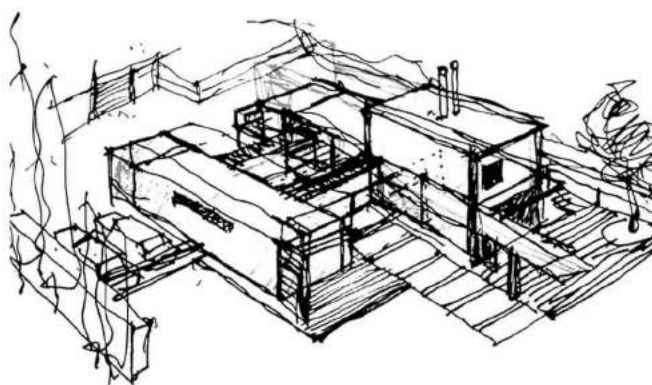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18.37%

Gross floor ratio 1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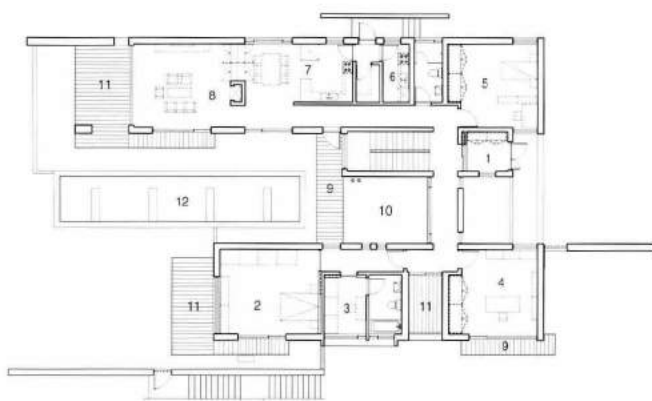
Structure R,C

Bldg, Scale B1, F1





- | | |
|----------|-----------|
| 01. 현관 | 07. 주방/식당 |
| 02. 안방 | 08. 거실 |
| 03. 드레스룸 | 09. 뒷마루 |
| 04. 서재 | 10. 중정 |
| 05. 방 | 11. 데크 |
| 06. 다용도실 | 12. 연못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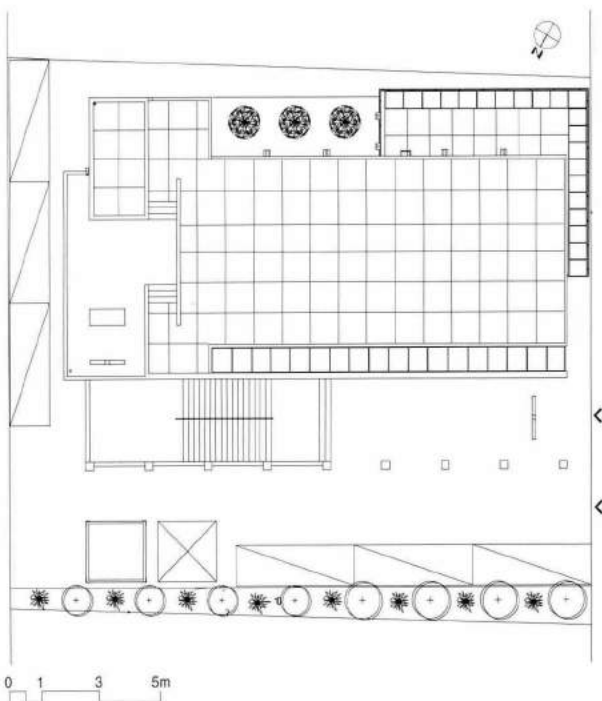
포도원교회

Podowon Presbyterian Church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분 우수상 수상작/2005년 7월호 게재〉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949-3번
대지면적	793.70㎡
건축면적	370.88㎡
연면적	708.62㎡
건폐율	46.55%
용적률	88.94%
규모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SISMO WALL SYSTEM
내부마감	바닥 - 대리석, 베이스패널, 시멘트스프레이 뽕칠 벽 -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뽕칠, 시멘트스프레이뽕칠 천장 - 경량철골천정틀위 암면흡음천정
외부마감	SISMO콘크리트, 적벽돌치장쌓기, 모르타워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하현진, 박경숙
구조설계	베이스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송정 MFC
전기설계	(주)동양기술단
시공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포도원교회
건축주	대한예수교장로회 포도원교회
설계기간	2003. 01 ~ 2003. 10
공사기간	2003. 10 ~ 20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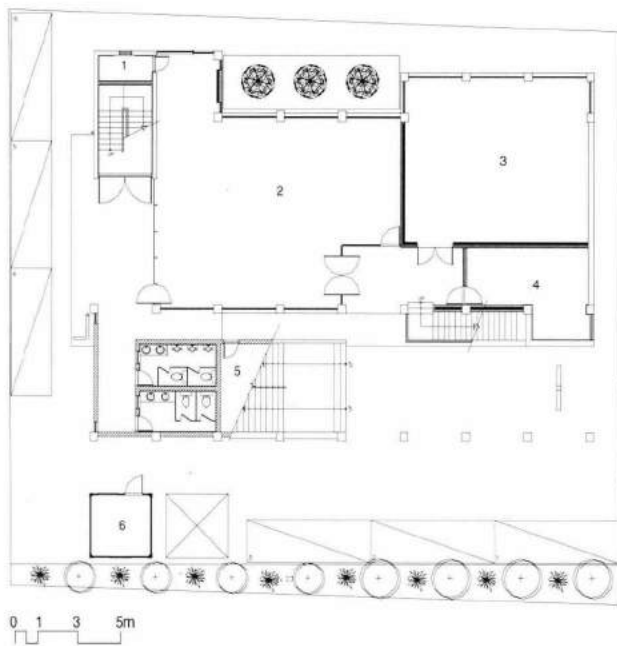


Location	949-3, Hakjung-dong, Buk-gu Daegu-si, Korea
Site area	793.70㎡
Bldg area	370.88㎡
Gross floor area	708.62㎡
Bldg coverage ratio	46.55%
Gross floor ratio	88.94%
Structure	R,C
Bldg. Scale	F4
Design period	2003. 01 ~ 2003. 10
Construction period	2003. 10 ~ 2004. 12





- 01_ 기계실
- 02_ 교재실
- 03_ 소매매실
- 04_ 사무실
- 05_ 창고
- 06_ 펌프실
- 07_ 주출입구
- 08_ 차량출입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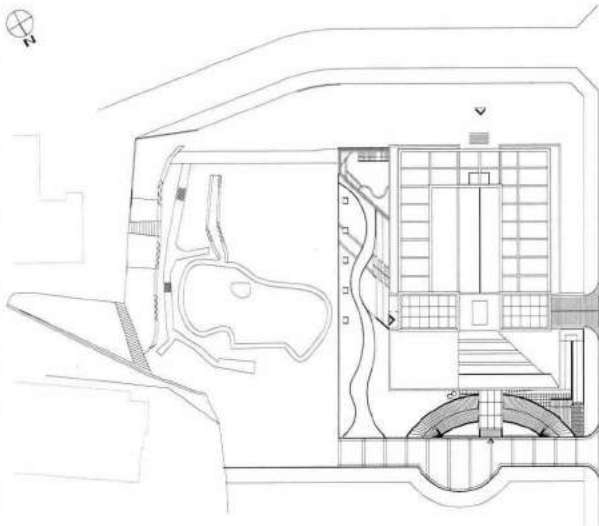


창원전문대학 본관

Main Building of Changwon Colleg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동 산66-2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보호지구(학교용지)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51,932.80㎡
건축면적	1,634.31㎡
연면적	5,459.89㎡
건폐율	11.82%
용적률	39.2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50 베이스패널, THK18 반사칼라복층유리
내부마감	바닥-THK9 폴리싱타일, 벽-THK50 베이스패널, 천장-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오중희, 윤용권, 심상철, 조문현, 김수미, 배효석
구조설계	오푸스-필
설비설계	우원 M&E
전기설계	(주)동호기술단
시공사	(주)흥한건설
설계기간	2004. 03 ~ 2004. 07
공사기간	2004. 07 ~ 2006. 06



Location Changwon College, Dudaе-dong,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151,932.80㎡
Bldg area	1,634.31㎡
Gross floor area	5,459.89㎡
Bldg coverage ratio	11.82%
Gross floor ratio	39.27%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4. 03 ~ 2004. 07
Construction period	2004. 07 ~ 2006. 06

1. 캠퍼스 추진임구에서 바라본 원경
2. 건물 장면 야경

창원전문대학 본관은 기존 본부건물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학교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변화의 비전을 암시하는, 캠퍼스 내에서 미래의 포석으로 작용하는 건물이다.

캠퍼스 주진입축에서 직각으로 적당히 물러나 있는 본관은 학교 전체를 아우르고 조망할 수 있으며, 주·부축이 교차하는 Node에서 쉽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안착되어 있다.

또한, 전면 파사드의 사선 매스와 입면의 역동적인 흐름, 그리고 박스형태의 장중함은 학교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서 Landmark 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의 Big-Void Atrium은 전후, 좌우, 상하를 통합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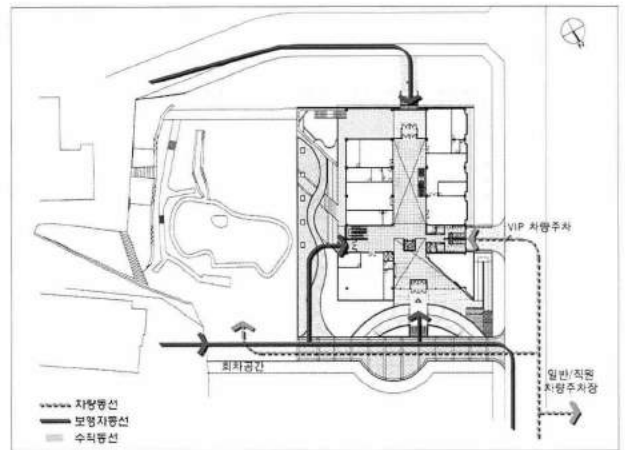
며,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풍광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Office Park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남측의 연못과 휴게데크, 지하의 Sunken 그리고 각 실에 접해 있는 휴게 발코니 등은 친환경 공간으로서 업무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차별화된 공간감을 부여한다.

아울러 Atrium에 수용되어 있는 연결Bridge, 전망Elev., 다이내믹한 직선계단은 본관의 매력적인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또 다른 모습을 내부에서 전개하고 있다.

캠퍼스의 본관은 그 학교의 위상을 나타내며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신축 본관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캠퍼스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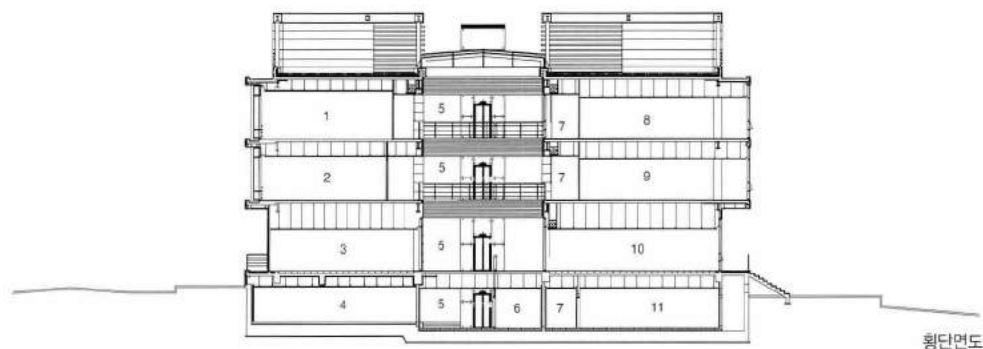


종합개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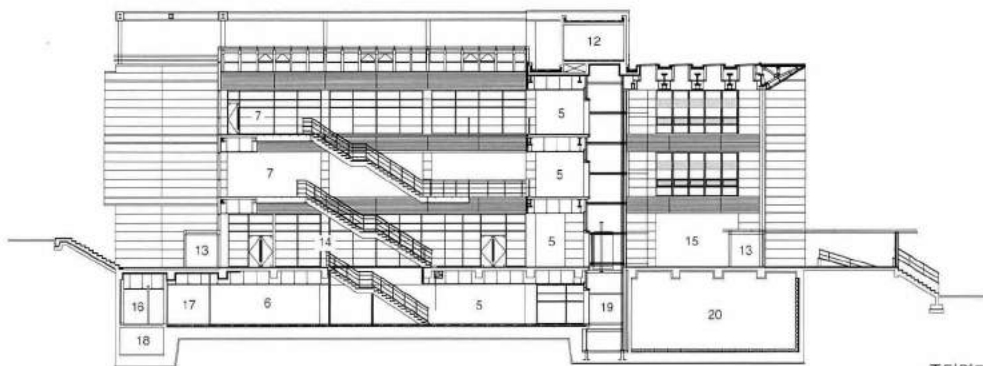
외부동선계획





- | | |
|-----------|-----------|
| 01_ 대회의실 | 11_ 행정문서고 |
| 02_ 역사자료실 | 12_ 기계실 |
| 03_ 재무처 | 13_ 방음실 |
| 04_ 주차장 | 14_ 아트리움 |
| 05_ 홀 | 15_ 로비 |
| 06_ 다목적실 | 16_ 사위실 |
| 07_ 복도 | 17_ 팔의실 |
| 08_ 법민사무국 | 18_ 간이정화조 |
| 09_ 부학장실 | 19_ PIT |
| 10_ 교육지원처 | 20_ 저수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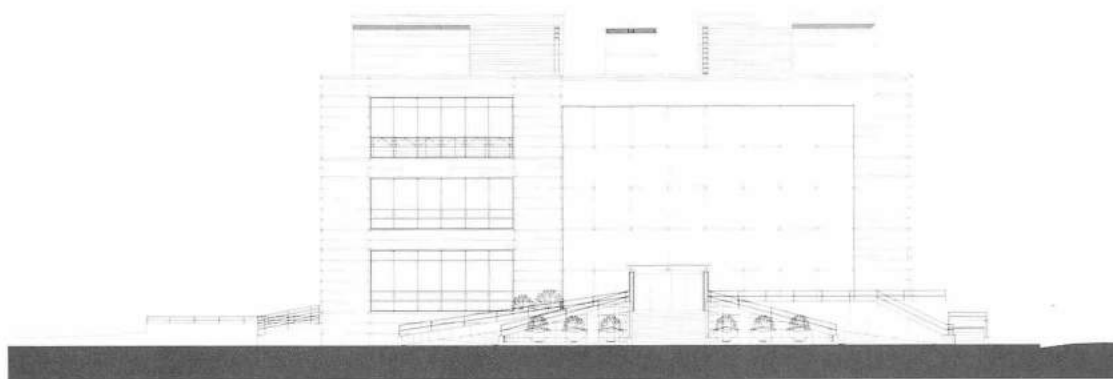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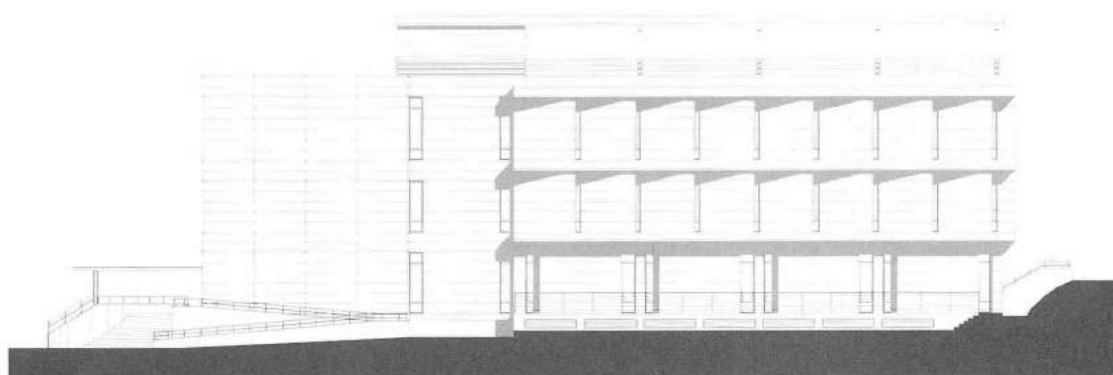
종단면도

- | |
|---------------------|
| 1. 건물 동측부분 전경 |
| 2. 주입입구 야경 |
| 3. 동측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
| 4. 부출입구 야경 |
| 5. 내부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전경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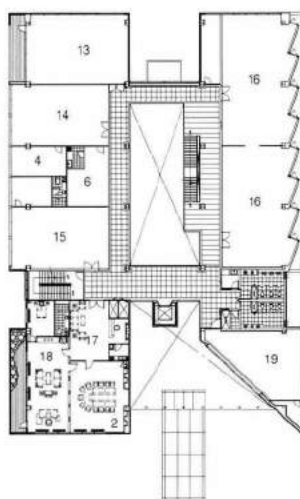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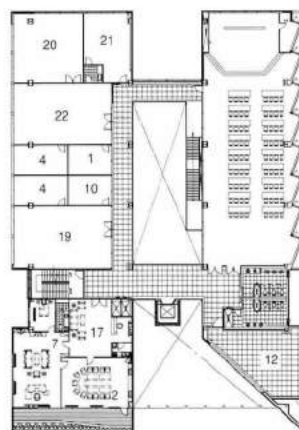


1. 내부 계단
2.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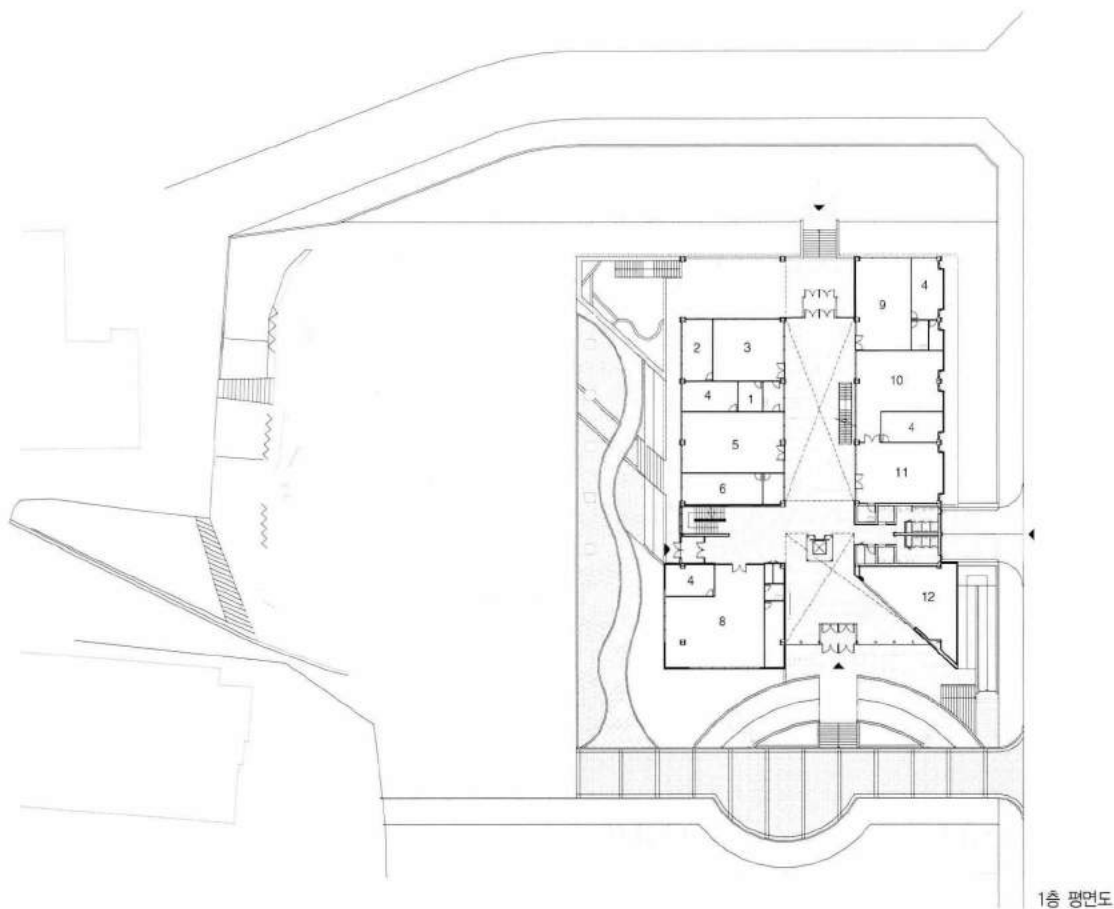
- | | | | |
|--------------|-------------|-----------|-----------|
| 01. 창고 | 07. 이사장 집무실 | 13. 세미나실 | 19. 이사회실 |
| 02. 소장 및 집권실 | 08. 임시운영처 | 14. 기획조정처 | 20. 전산기계실 |
| 03. 국제교육지원처 | 09. 총무처 | 15. 부학장실 | 21. 전산입력실 |
| 04. 처장실 | 10. 문서보관실 | 16. 역사자료실 | 22. 전자계산소 |
| 05. 교육지원처 | 11. 재무처 | 17. 부속실 | |
| 06. 문서고 | 12. 휴게라운지 | 18. 학장집무실 |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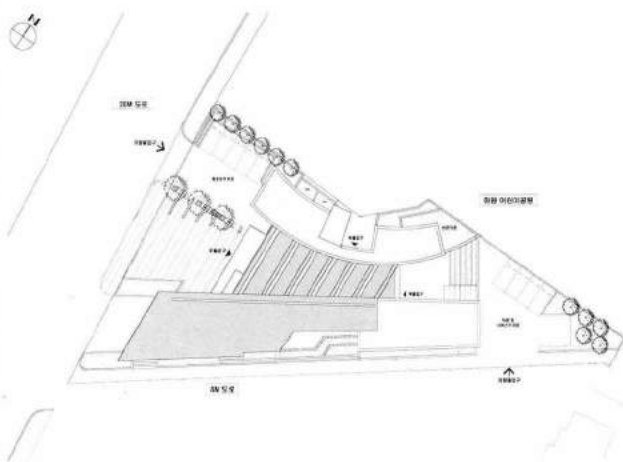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화원종합사회복지관

Hwa-won welfare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76-134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일부 준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095.㎡
건축면적	822.51㎡
연면적	3,231.42㎡
건폐율	39.26%
용적률	124.8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조
외부마감	THK10 ALUM HONEYCOB PANNEL, THK1.0 ALUM 각형 PANNEL THK18 칼라복층유리(건물), THK18 칼라로이복층유리(아트리움)
설계담당	김상기, 한대희, 서영훈
구조설계	산아구조
설비설계	(주)우원 M&E
전기설계	(주)제일설계
시공사	명남종합건설(주)
수상내역	제24회 서울시건축상 장려상



Location	476-134, Gurobon-dong, Guro-gu, Seoul, Korea
Site area	2,095.㎡
Bldg area	822.51㎡
Gross floor area	3,231.42㎡
Bldg coverage ratio	39.26%
Gross floor ratio	124.87%
Structure	R,C
Bldg. Scale	B1, F4



다양한 문화의 인큐베이터

새로운 사회복지관에서는 기존의 경직된 공간을 탈피하여 문화공간이라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지역 문화의 창조적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마을의 작은 복합문화공간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의 사회복지관은 문화, 체육, 여가활용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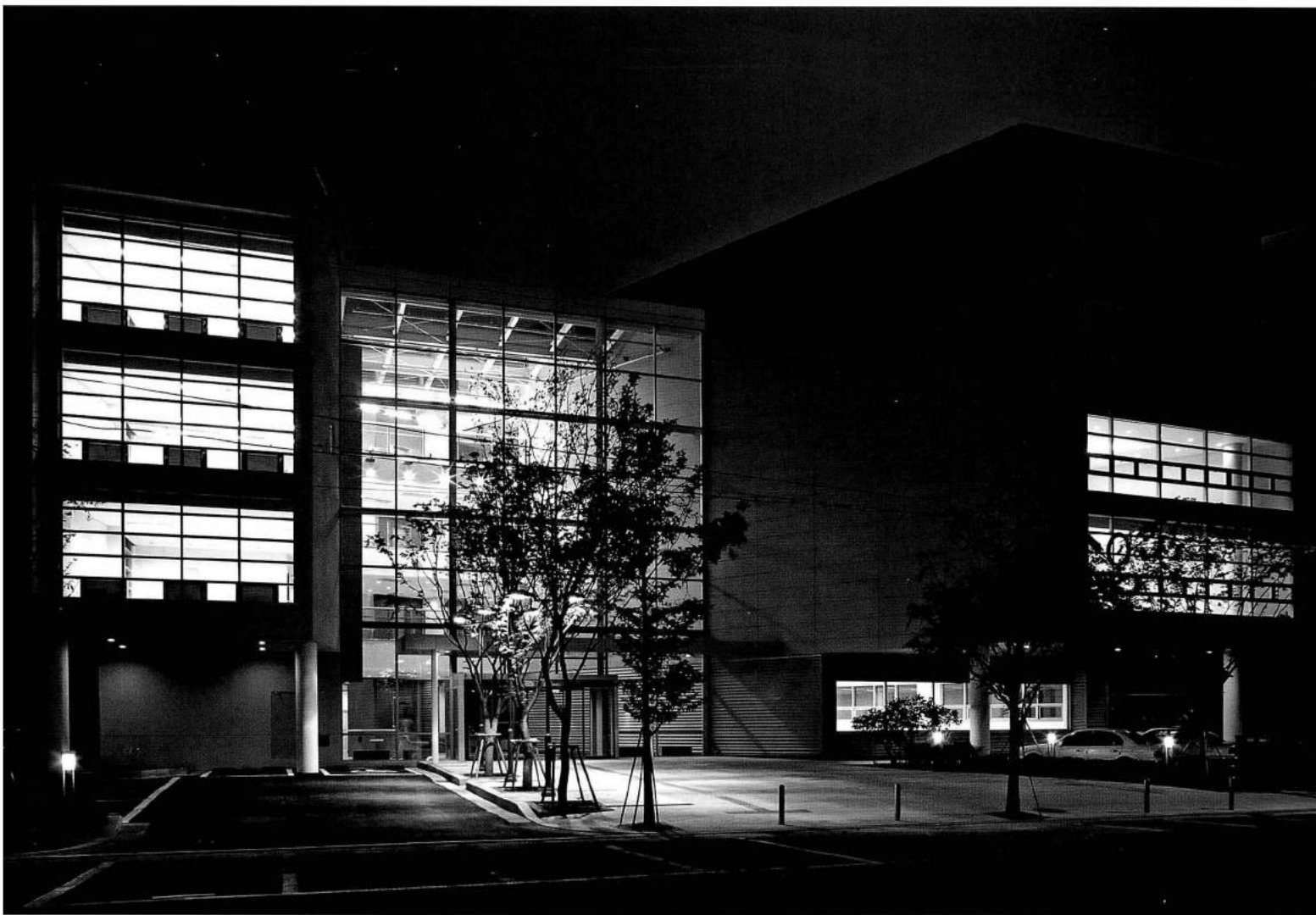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본 계획에서는 지역의 핵심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추었다.

새로운 모습의 사회복지관

기존의 관공서 같은 권위적인 건물이 아닌 문화공간다운 새로운 이미지의 건물을 계획하여,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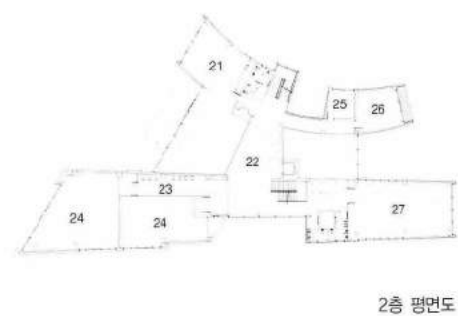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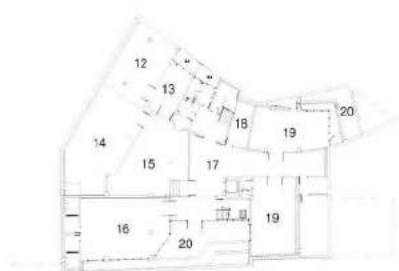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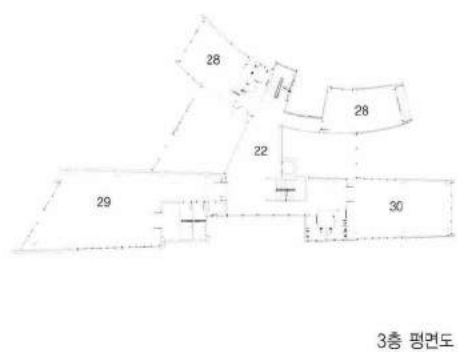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벤트몰을 유리박스로 계획하여 진입광장에서의 시각적 개방감과 인근 주택에서公園으로 향하는 시야를 열어주었으며 화원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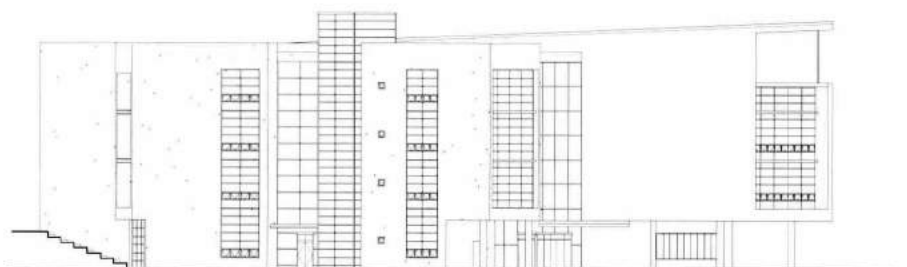
- | | | |
|-----------|---------------|-------------|
| 01. 주차장 | 11. 주방 | 21. 도서관 |
| 02. 사무실 | 12. 전기실 | 22. 전시실 |
| 03. 어린이집 | 13. 발전기실 | 23. 인터넷검색코너 |
| 04. 조리실 | 14. 물탱크실 | 24. 방과후교실 |
| 05. MDP실 | 15. 기계실 | 25. 상담실 |
| 06. 안내실 | 16. 사회체육프로그램실 | 26. 자원봉사자실 |
| 07. 이벤트홀 | 17. 출 | 27. 사무실 |
| 08. 물리치료실 | 18. 음악원실 | 28. 프로그램실 |
| 09. 휴게정원 | 19. 노인위교실 | 29. 제막단란실 |
| 10. 무료급식실 | 20. 선크가든 | 30. 청소년집단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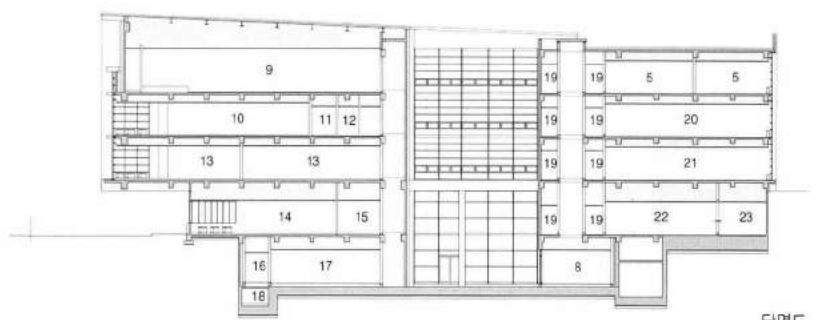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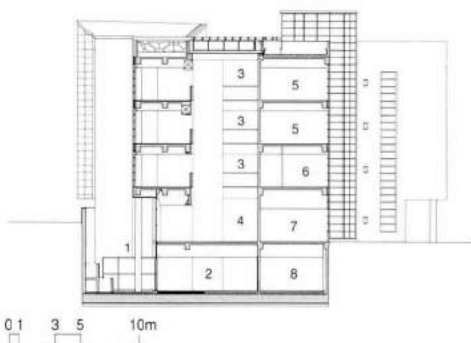


1. 탐라아트
2. 주출입구
3. 산문가든
4. 로비

- | | |
|----------------|---------------|
| 01. Sunken | 13. 방과후교실 |
| 02. Hall | 14. 어린이집(장래) |
| 03. 전시홀 | 15. 조리실 |
| 04. 이별토론 | 16. 강의실 |
| 05. 프로그램실 | 17. 사회체육프로그램실 |
| 06. 상담실 | 18. PIT |
| 07. 물리치료 및 장애인 | 19. 화장실 |
| 재활실 | 20. 청소년집단실 |
| 08. 노인 위아교실 | 21. 사무실 |
| 09. 강당 | 22. 무료급식실 |
| 10. 체력단련실 | 23. 주방 |
| 11. 창고 | |
| 12. 샤워실 | |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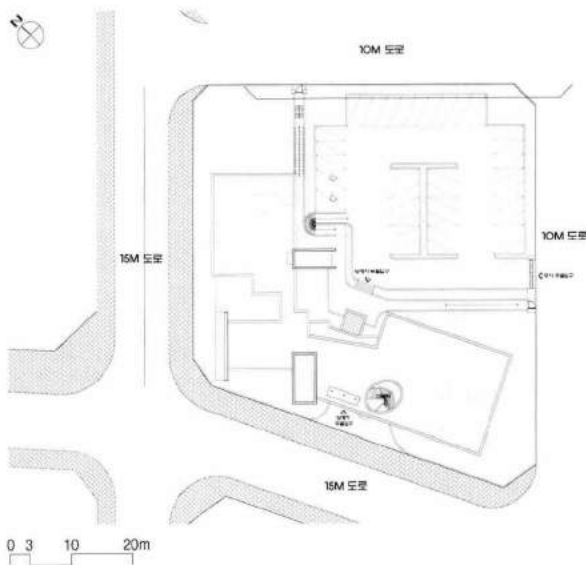


단면도

의정부 세관 Uijeongbu Custom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46(송산지구 4-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국가기관청사)
대지면적	3,331.70㎡
건축면적	847.74㎡
연면적	1,659.96㎡
건폐율	25.44%
용적률	38.0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30화강석 버너구이, 황토벽돌치장쌓기, 외단열시스템,
내부마감	T18칼라복층유리 T30화강석 버너구이, 황토벽돌치장쌓기, T12흡음텍스
설계담당	남경수, 신현대, 박찬갑, 김동욱
감리	미건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주	관세청 의정부세관
사진	미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Location	546, Yonghyeon-dong,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3,331.70㎡
Bldg area	847.74㎡
Gross floor area	1,659.96㎡
Bldg coverage ratio	25.44%
Gross floor ratio	38.08%
Structure	R,C
Bldg. Scale	F2, B1



최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향후 남북교류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지역의 관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발주된 건축물이다.

현장주변은 임대주택으로 둘러 쌓여있고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보행자를 만나기 힘들 정도로 쓸쓸한 여건이었다.

담이 없이 누구나 들어와 공간을 함께 나누는 곳을 만들어 살에 지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대지 형태는 택지개발이 되었지만 남과 북이 1.8m에 이르는 경사지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방향으로 주차진입을 유도하고 있어 기존지형의 경사지를 이용한 배치 및 외부 공간 이용계획이 요구되었다.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터파기에서 발생된 암을 조경 석재로 재사용하고 흙은 반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조사업무와 민원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보안이 중요한 건물이지만 열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담장 없는 건물로 계획 되었고 형태는 자유롭지만 도시의 흐름에 순응하는 배치를 하므로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였다.

건물의 매스는 업무동과 후생복지동으로 이원화 하고 중앙부에 로비를 배치하여 두 개동의 기능을 연결해주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황토벽돌과 외단열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건물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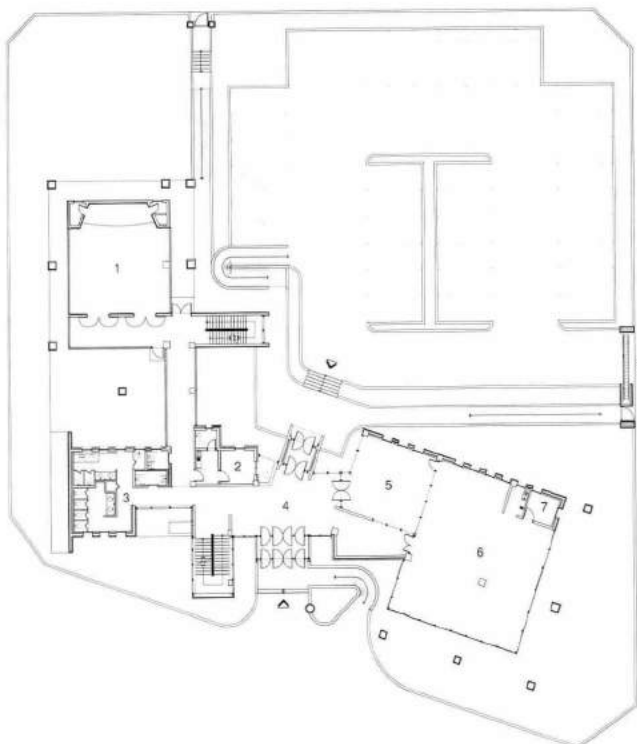
진입부에 지붕을 타원형으로 비워두고 그 곳으로 떨어지는 빛과 빗물로 아래의 소나무와 초화류가 자라게 만들어 관세청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담고자 했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북부지역의 관세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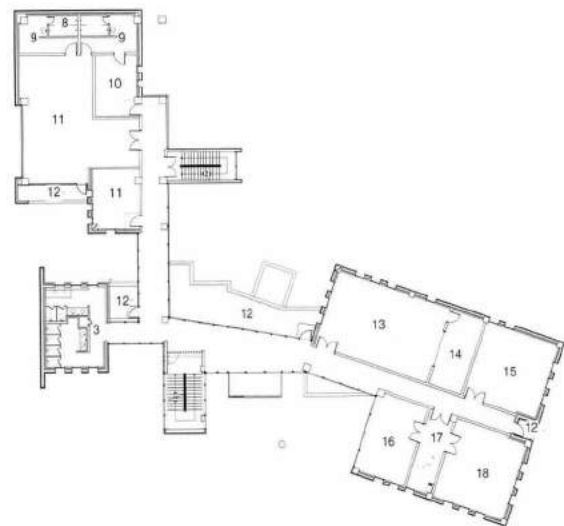




- | | |
|------------|-----------|
| 01. 대회의실 | 10. 탐의실 |
| 02. 당직실 | 11. 제각단련실 |
| 03. 화장실 | 12. 발코니 |
| 04. 로비 | 13. 조사실 |
| 05. 민원실 | 14. 피자실 |
| 06. 사무실 | 15. 여학생실 |
| 07. 전신/통신실 | 16. 소회의실 |
| 08. 사육장 | 17. 부속실 |
| 09. 락거룸 | 18. 기관장실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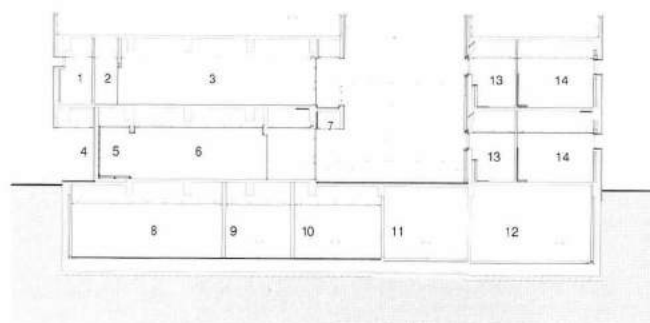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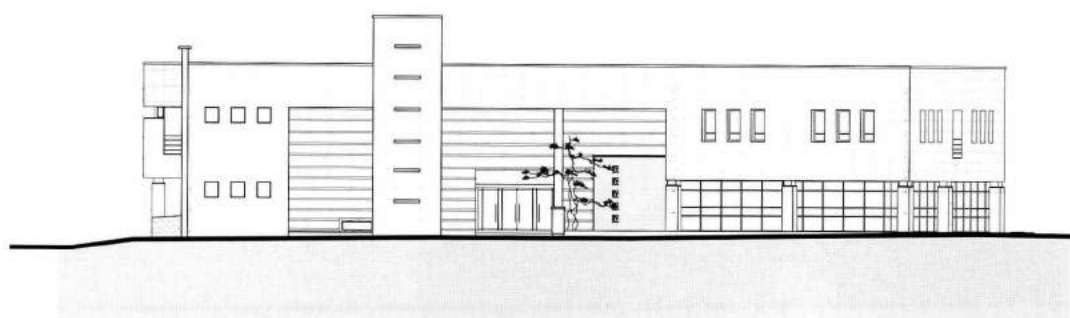


- | | |
|----------|----------|
| 1. 동측 전경 | 4. 동측 전경 |
| 2. 남측 전경 | 5. 2층 복도 |
| 3. 북측 전경 | |

- | | |
|-----------|------------|
| 01. 사원실 | 08. 압수창고 |
| 02. 락커 | 09. 창고 |
| 03. 체력단련실 | 10. 서로 |
| 04. 피로티 | 11. 전기실 |
| 05. 무대 | 12. 기계실 |
| 06. 대회의실 | 13. 화장실(남) |
| 07. 복도 | 14. 화장실(여) |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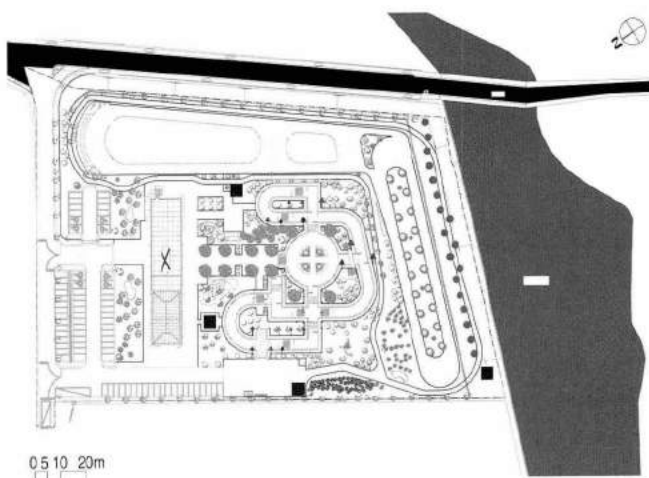
정면도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The traffic education and adventure park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217번지 외9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교통공원, 모험공원, 가족공원 및 교육관
대지면적	20,312.00㎡
건축면적	646.15㎡
연면적	886.71㎡
건폐율	3.18%
용적률	4.37%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16T 복층유리
설계담당	송현중, 김형태
구조설계	S&S 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설계	진일 설비연구소(전기, 통신, 소방)
시공사	보성건설
건축주	진주시



Location	695-217, Pyeonggeo-dong,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20,312.00㎡
Bldg area	646.15㎡
Gross floor area	886.71㎡
Bldg coverage ratio	3.18%
Gross floor ratio	4.37%
Structure	R/C
Bldg. Scale	F2





공간을 담는 그릇 - 경계로서의 건축

처음 대지를 접했을 때 가장 인상적 이었던 것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진 남강댐의 존재였다.

국내 최장 길이(L= 1,126m)를 가지고 있는 댐은 그 길이만 가지고도 그 아래 들어서는 건축물에게는 뛰어 넘거나 피해 갈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남쪽 강 너머에는 산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지 주변 사방이 열려있는 허허로운 공간이었다. 공원 시설의 성격상 넓은 면적이 강조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장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과 밖을 분리하는 명확한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교육관 건물의 배치는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조합시켰다. 서쪽의 댐과 남쪽의 산을 기존 경계로 삼고 북쪽에 길게 건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동쪽 도로보다 약간 낮은 지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시각적 경계로 삼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공간의 범위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북쪽 경계로서의 건물 특성은 그것이 그대로 형태적 요소로 남게 되었다. 길고 장쾌한 댐의 성격과 호응하여야 하며, 137m에 달하는 대지 북쪽변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긴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건물은 자체로서 공원 공간 전체의 관문과 같은 기능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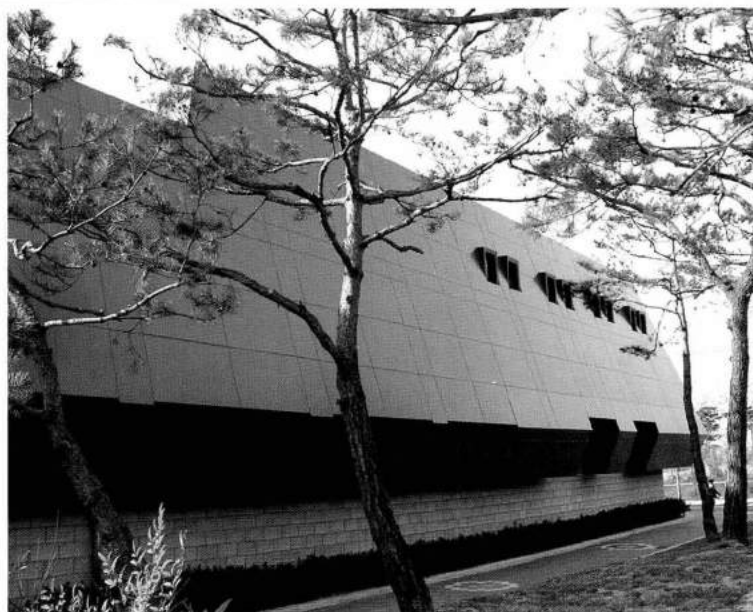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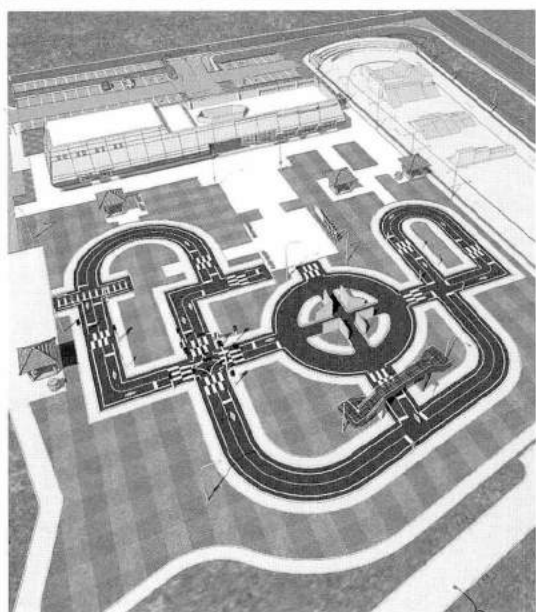
져야 했다. 큰 공간을 감당하기에 별도의 대문이란 초라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건물의 형태에는 또한 이 공원의 기능이 요구한 어린이 교통 교육의 특성도 담아야 했다. 그것은 특히나 어린이의 관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했는데, 비행기나 KTX의 경쾌하고 시원한 외관 이미지를 담았다. 외장재료도 첨단 교통수단의 이미지를 담은 금속성 재료(알루미늄 복합패널)를 사용하였으며, 외장색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변 수목의 초록과 댐이 가지는 무표정과 대비될 수 있는 강렬한 빨간색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시각적 액센트를 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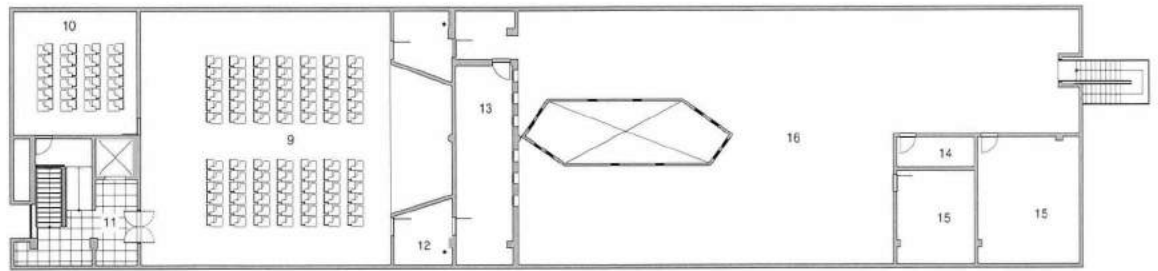
그렇게 완성된 전시관은 전체 시설 공간의 대문이자 공원 시설을 담는 그릇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교통 교육 과정의 출발점으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자전거 교육장, 벤치나 파골라 등 강변 공원 시설만 이용하는 사람들(주로 청소년들과 가족 이용객)에게는 건물전체의 존재보다는, 다만 공원 입구와 경계,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작은 매점 정도의 존재로서 느껴질 뿐인 것이다. 하지만 교통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육공간이며, 전시관이며, 더 큰 외부공간에 펼쳐져 있는 교통교육 과정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게 해 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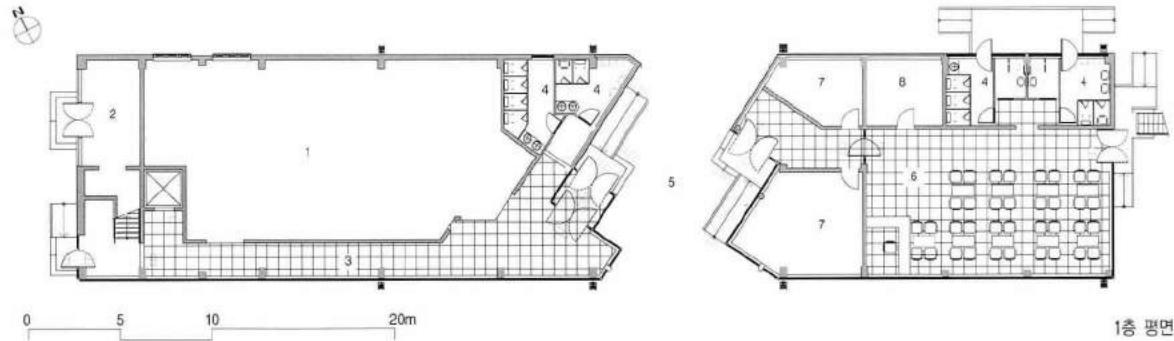
- 1. 외관
- 2. 외관
- 3. 남측면 외관
- 4. 조경도
- 5. 북측면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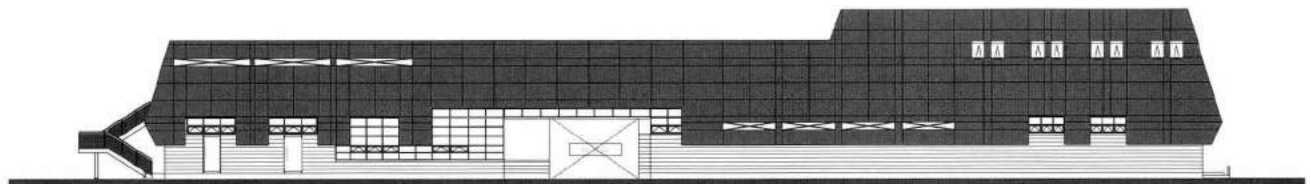
- 01. 전시실
- 02. 창고
- 03. 복도
- 04. 화장실
- 05. 중정통로
- 06. 스터코너
- 07. 사무실
- 08. 보건실
- 09. 강당
- 10. 도서관
- 11. 휴게실
- 12. 영수실
- 13. 자료실
- 14. 컴퓨터실
- 15. 물품창고
- 16. 옥상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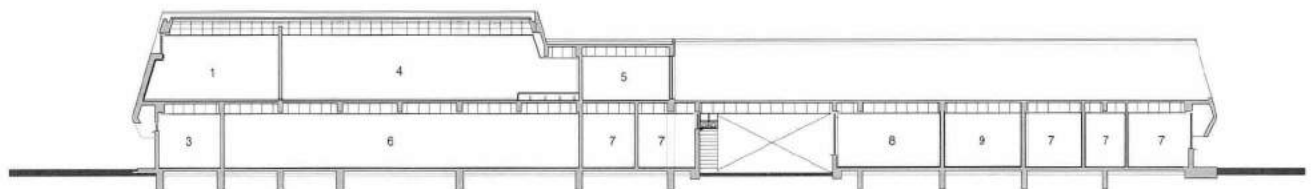


정면도

- 01. 토목실
- 02. 계단실
- 03. 창고
- 04. 강당
- 05. 자료실
- 06. 전시실
- 07. 화장실
- 08. 사무실
- 09. 영호실



우측면도



단면도

선정릉, 도시문맥과 영역성에서 바라본 경계

Sunjung Neung; Threshold of Urban Context and Territoriality

4년전 선정릉 옆으로 작업실을 이사한다. 선정릉 주변의 철망을 3년 넘게 지켜보다가, 건축사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적지 않은 안타까움들을 늘 가지게 된다. 결국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의뢰 받지도 않은 일을 어느 날 도모한다. 몇 해간 차곡이 쌓아둔 이야기들을 꾸리기 시작한다. 학교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하고 다시 몇 달간 밤을 새워 책으로 엮는다. 문화재청으로 발송한다.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두드려보려한다.



선정릉 그리고 철조망

문화재, 역사공간이자 도심공원인 선정릉은 우리 도시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듯이, 소극적 방어 형태의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라 치면 그래도 삼사십 분은 족히 걸리는 짝지 않은 걸음임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철망을 끼고 걸어야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선정릉은 선정릉으로, 주변도시는 주변도시로 남아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물에 대해 어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는가. 지형이 다르고 주변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감성의 내면적 복잡성을 다양하게 엮어내야 하는 도시 문맥 속의 절실한 요구는 묵살되었다. 철망으로 태연하다. 안도 우습고 바깥도 우스꽝스럽다. 역사공간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하고 있다.

철망은 필요하다. 것처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제어방식

을 생각하는게 그리 쉬운가. 그렇다면, 철망의 존재를 정당화 시킬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철망이라면 그 안일한 대응 방식에 대해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장소에 대한 경계구조의 변형과 거점화를 통해 작은 보석들을 꿰어 놓은 금줄처럼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소에 따라서는 첨단 보안시스템의 도입이 보다 세련된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장소의 변형과 창조를 통해 역사 공간으로서, 도심공원으로서 선정릉이 가진 잠재력을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몇 가지의 상상력으로 건축화, 영역화 시켜 본다.

제한한 장소들은 선정릉이 가지고 있던 자연 지형의 속살과 겉들이 도시화 되어가는 주변의 도시문맥과 부딪치며 어긋나 벌어지는 틈새들이다. 죽어 있는 간극들을 찾아내어 숨길을 띄워놓는 작업들이다.



미래도심으로서 역사공간 - 그 경계구조에 대하여

경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인식은 경계석이라는 선형선일 것이다. 주변에서 늘 보는 철망이나 담이 그렇다. 작게는 개인의 영역, 크게는 도시 영역에서 단지 개별적 구분 형식으로 인식 된다.

여기서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경계는 중심에서 가장 멀리 방치되는 가장자리(marginal)의 주변요소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영역과 영역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경계 또한 상호반응하는, 유기적 영역이 되어야 한다. 복합성과 비선형성은 유기적 성향의 함축이다. 따라서 경계는 각질화된 피막처럼 고착화되고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온화된 행위나 개념의 선별적 이동이 가능한 '유기질의 세포막', 자기분열을 통한 '생장막'이어야 한다.

경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을 분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절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개별 영역의 성격을 더욱 의미있게 구별해준다. 영역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경계를 통

하여 오히려 선명해 진다. 다시 말해 경계는 잠재력을 가진 틈새, 즉 결합구조가 되는 영역인 것을 이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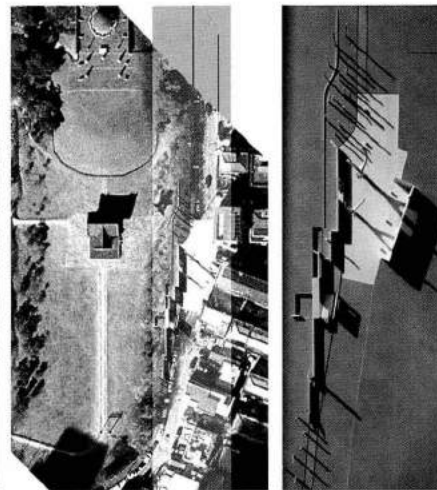
死 영역의 유기적 공간화

대지는 대지 자체의 결과와 느낌으로 존재한다. 체험적이고 감각적으로 한의된 그 기호화된 의미는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되는 인공대지와 필연적으로 불연속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어색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획지의 현상을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장소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새로운 관계와 상호작용의 필요조건을 구축하는 지각의 활동면으로 생성한다. 공간, 구조, 형태, 기반시설, 프로그램 등 사이의 관계 조절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로 차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다.





예전의 물길이 도시화되면서 정릉의 경계축이 모호해졌다.



정릉의 축을 바로잡으면서 생기는 지투리명과 도시주변의 자투리땅들을 모아서 광장을 만든다. 같은 이곳에서 잠시 호흡을 바꾼다. 정릉 쪽의 담장의 소재가 길 건너편으로 전이되면서 선형의 길은 행위를 담고 감성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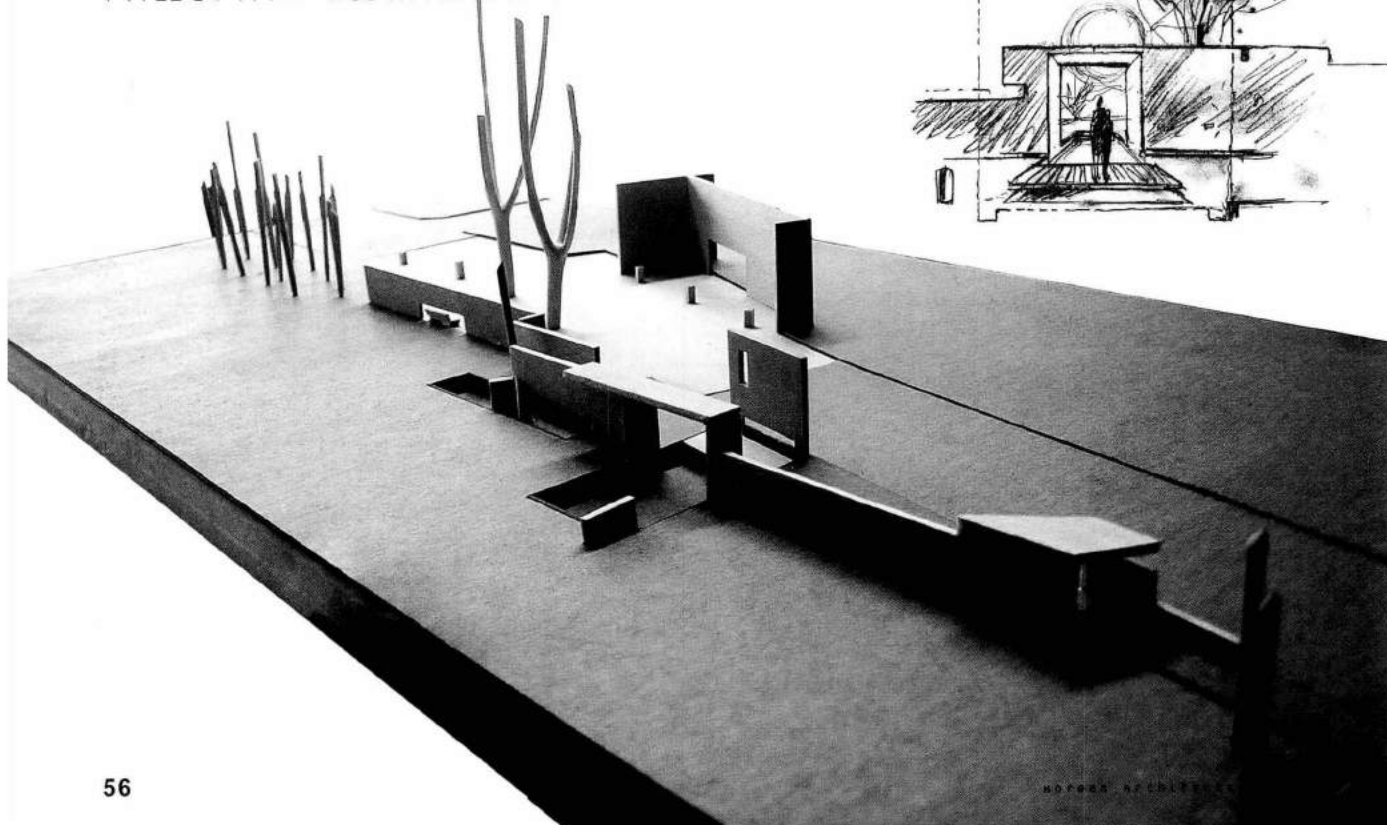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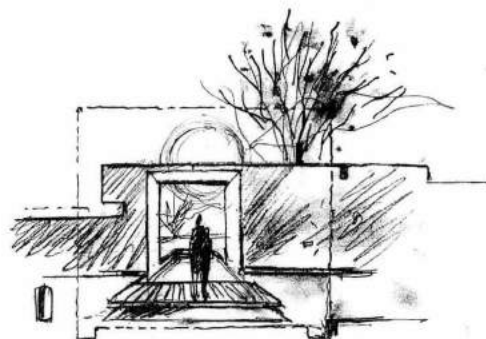
물위의 벽, 길광장 124

길이 변하다, 광장이 되다

예전에 물길이 있었을 곳이다. 정릉 주변은 여름에 침수가 잘 되는 곳이다. 우리 도시에서 보이는 굴곡된 도로는 예전의 물길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물길이 도로로 변하면서 도시 구조화되고, 정릉의 축이 모호해 졌다. 물길과 도로는 이미 그 의미가 다르다. 도로의 구조는 물길과 다르게, 이미 물리적 구조로 경계영역을 형상화 시킨다. 정릉의 축과 부딪치게 된다. 홍살문과 정자각을 연결하는 능묘축과 철망 밖의 도로와 노상 주차장 등이 병치되어 있다. 선정릉의 남동쪽에 위치한 정릉 주변의 경우 선통과는 달리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외부

로 드러나 있어 내외부의 애매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 또한 철망은 그 특성상 경계 자체의 의미는 가지나 영역을 닫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닫혀야 할 때 닫아 주는 것도 소통의 한 방식이다. 흔재된 모습도 관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관심이나 무지가 그 소이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닫아주어야 할 곳은 닫아줌으로써 역사공간의 공간성을 회복시키고 주변도시와 공존의 위계를 설정한다. 자본은 역사공간에 대한 열위구조임을 수긍하게 한다. 담을 통하여 도시는 오히려 기밀곳을, 의지할 곳을 찾게 되어 감성화 된다. 정릉의 결계가 위계를 획득한다면 도시의 품위도 문화 도시로서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

정릉 내부의 질서를 따르고 왕릉과 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담이다. 이는 내·외부 공간이 혼재된 모호한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안과 밖 각각의 고유한 독립적 영역으로 만들어 준다. 보행자는 닫혀진 담을 따라 걸으면서 다양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 선정릉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내부를 통과해 다시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또, 마주한 수직적 담을 통해 시각적으로 트인 광장에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길의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된다.



제 11선릉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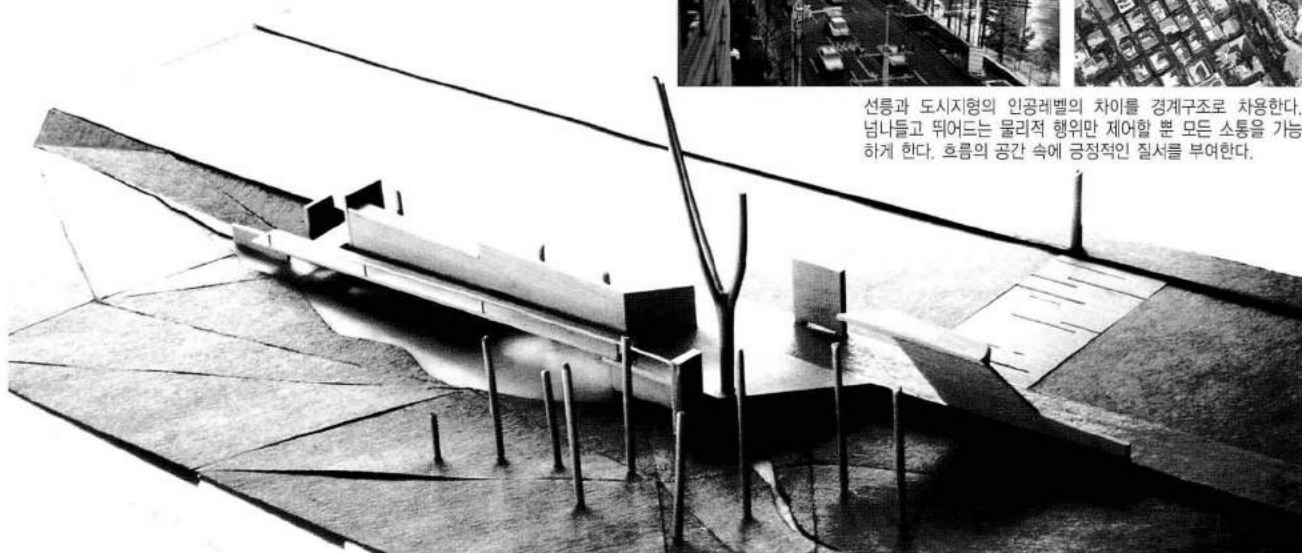
BY PASS, 길/또 하나의 선택

선릉교 서쪽 경계면의 길은, 도시의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와 면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소통이 많고 그 변화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동시에, 선릉교 내부의 정적인 면과 도시의 동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빠르게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물결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켜 내는 곳. 행위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음이 된다.

자동차도로 옆으로 철망 한쪽에 물려 만든 단순한 보행공간. 행위를 담지 못한 피막과도 같은 경계, 관계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



선릉과 도시지형의 인공레벨의 차이를 경계구조로 차용한다. 넘나들고 뛰어드는 물리적 행위만 제어할 뿐 모든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흐름의 공간 속에 긍정적인 질서를 부여한다.



도시와 역사공간 두 영역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세운 슬리드한 벽은 두 영역 사이에 확실한 경계를 만들어 주며 동시에 배경이 된다. 영역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보행자의 시선을 선릉교 내부로 유도한다. 선릉교 내부로 돌아드는 데크는 기존의 경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선릉교 내부를 경험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된다.

도시의 창, 재개발 114

이미 그 규모와 잠재력이 도시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선릉교는 오직 남서쪽의 입구로만 접근이 가능한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또 북쪽으로는 주간선도로가 위치하여 도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선릉교 내부로 그늘을 만들어내지 않는 북쪽 대지라면 새로운 소통을 역을 어떤 장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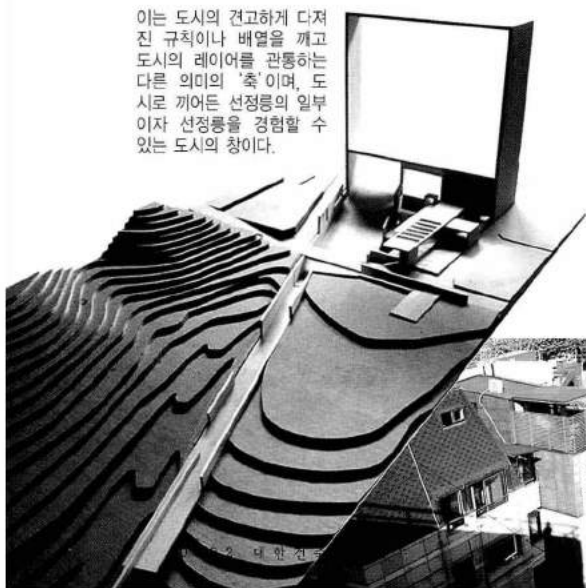
이곳은 문화재 인접구역으로 고도제한 등의 개발제한 조건이 수반

된 지역이다. 주변은 이미 변하고 있고 계획대지만이 고층화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내부의 길이 외보와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 속도가 더해진 이곳

이 오히려 다행스럽다. 주목해 보면 이곳은 우리 도시가 향유할 미래의 보석들을 채굴할 위치가 된다. 저층부를 공용공간화시키고 고층으로 상대적 개발보상을 해준다면, 도시공간과 문화재로서 역사공간의 관계를 제대로 엮어낼 축제의 공간, 축복의 영역으로 재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의 개발 형식은 오히려 도심개발의 바람직한 예문이 될 수 있다. 도시는 이곳으로 달려 오고 싶고, 선릉교는 도시 밖으로 확산되고 싶어 한다. 지형이 항상 그러하고, 현재 선릉교 내외부로 형성된 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소통되기를, 이어지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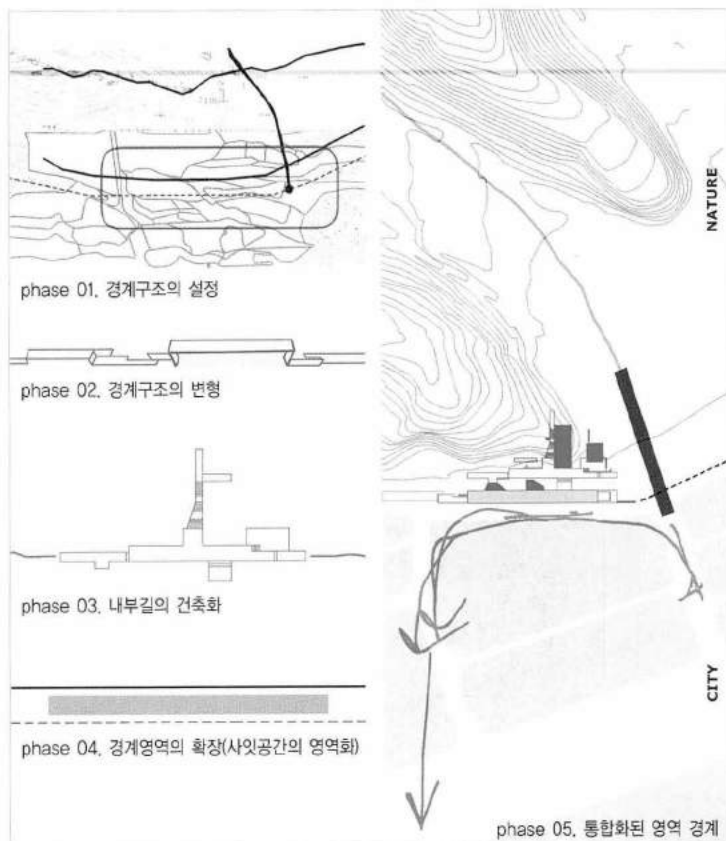


이는 도시의 견고하게 다져진 규칙이나 배열을 깨고 도시의 레이어를 관통하는 다른 의미의 '축'이며, 도시로 끼어들 선릉교의 일부이자 선릉교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의 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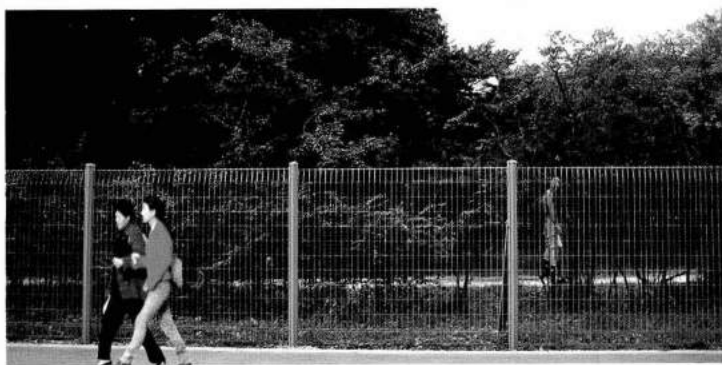
도시와 접한 첫 번째 커, 그곳에 위치한 블록에 건물의 저층부를 비워 도시와 적극적으로 접하는 동시에 선릉교로 진입하기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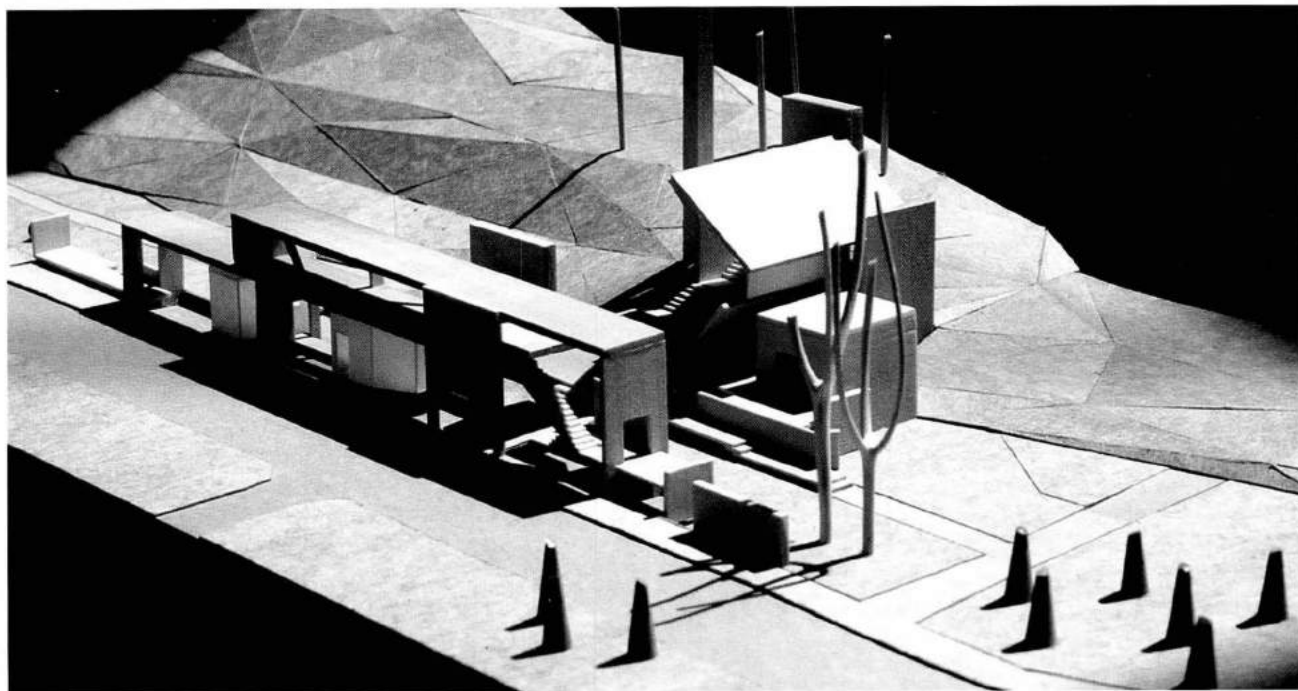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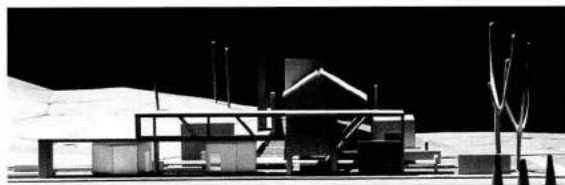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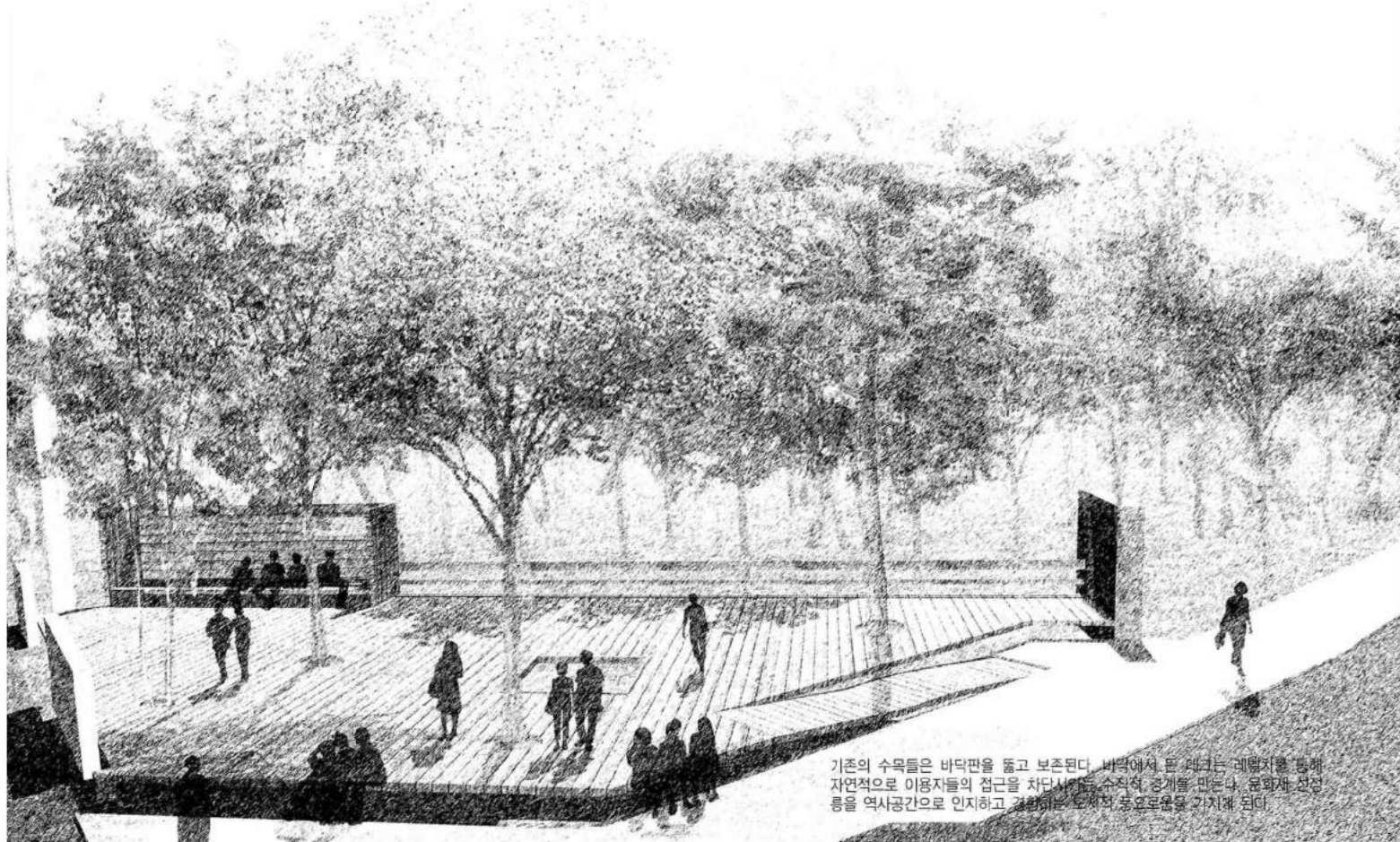
frame, 1740년 서울

선정릉의 남쪽은 입구 및 기능적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들은 선정릉의 경계, 그 내부에 있으나 그 모습은 철망을 통해 외부로 보여 도시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경계는 경계대로, 건물의 외벽은 외벽대로 존재하면서 그 관계 또한 어색하다. 또 건물뿐만 아니라 철망 사이로 내부의 산책로와 밖의 보행로가 몇 미터 남짓한 거리로 떨어져 각각 존재하고 있어, 철망너머로 보행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선정릉 내부의 길과 외부의 길, 선정릉 안팎의 보행로, 그 사이공간을 주목한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입구로서 소통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물길이라면 그 물길도 경계의 장치로 도구화한다. 철망 안에 기능적인 건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자체가 경계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선정릉 내 외부를 결계지는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경계, 또 다른 경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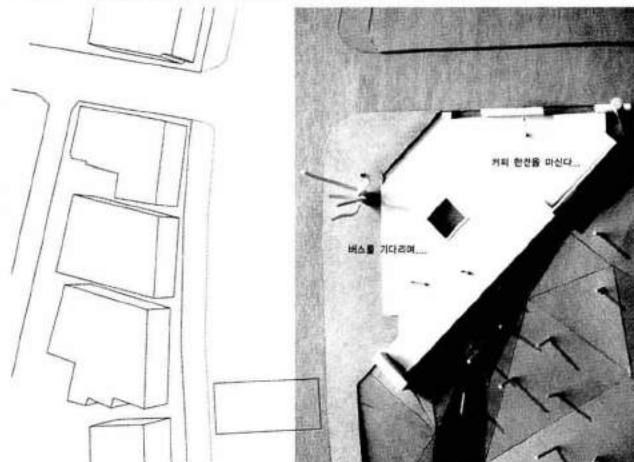


내부의 길을 건축화하고 프로그램의 배치를 통하여, 이 영역에서 행위의 조직이 경계를 조직한다. 건축화된 길과 엮인 기능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흙사 마을과 같다. 즉 따로 또 같이 존재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적 힘을 가진다.





기존의 수목들은 바닥판을 뚫고 보존된다. 바닥에서 뜬 데크는 데크지를 통해 자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시키며, 수직적 경계를 만든다. 문화재, 선정릉을 역사공간으로 인지하고 결합하는 도제적 통로로써의 가치가 된다.



전널목카페

flying d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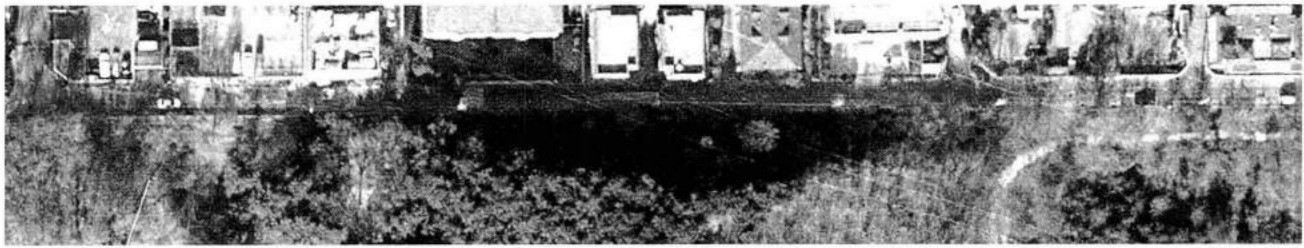
현재 선정릉의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는 그 외부에 접한 도로와의 관계가 모호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상태이다. 선정릉 경계의 최말단 지역으로서, 단지 소유를 구분하는 배타적인 영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곳이다. 이미 이곳은 선정릉 안에서든 밖에서든 접근이 불가능한 가장자리(marginal)의 주변공간이다.

선정릉의 북쪽길 한편으로는 산책로라는 팻말과 황색선, 주차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변변한 인도나 산책로가 마련되지 않은 채 철망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광고전단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 도시에 대한 우리의 대화방식이다.

앞서 제시된 선정릉의 경계구조들이 기존의 선정릉이 가진 경계와 같이 벽, 바닥, 천정과 같은 판(plate)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삼각형데크는 경계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다. 기존의 지형이 가진 형상과 조건을 따라 삼각형의 바닥판이 제안된다. 그것은 모퉁이 땅에 내재된 형상형식의 하나이다.

모퉁이(corner)에 위치한 장소의 잠재적인 힘이란 영역의 확장 혹은 접근, 결합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최말단이 갖는 대지의 특성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형적 도시구조의 국부적 문맥을 읽어내면서 모퉁이 땅의 특수성과 기능성을 인식해 나간다. 대지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공간의 형태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담아주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대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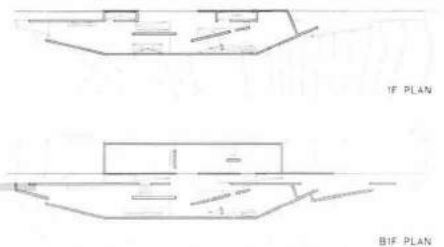


고갯마루미술관

정릉의 뒷배경, 우리시대의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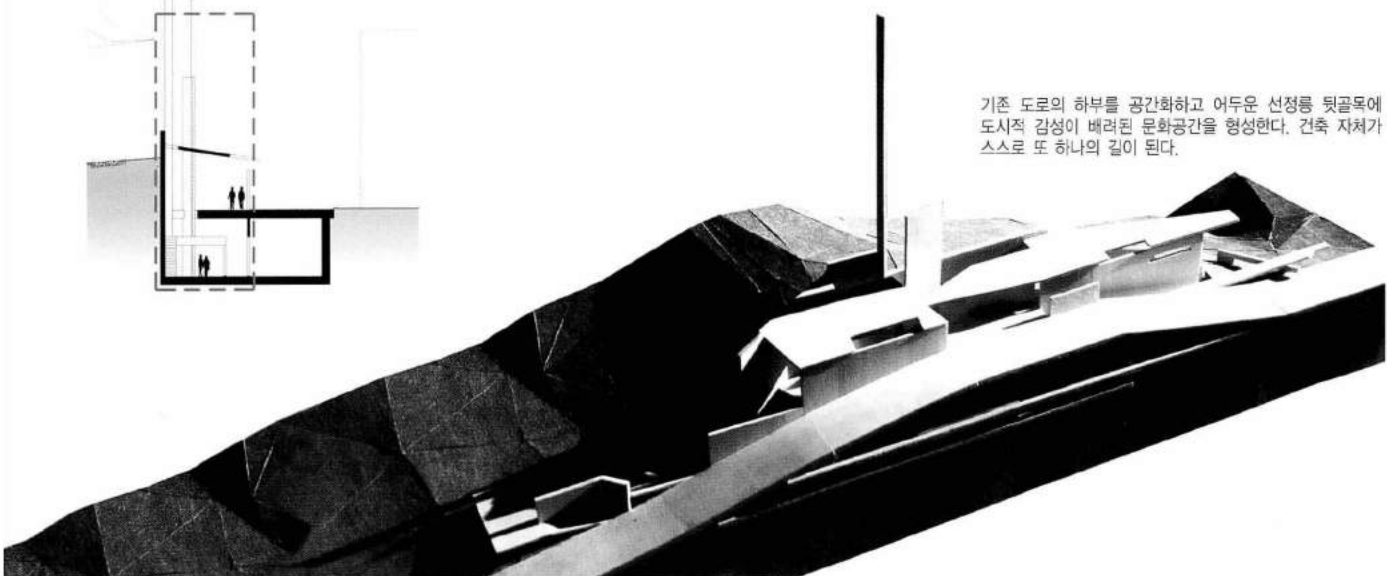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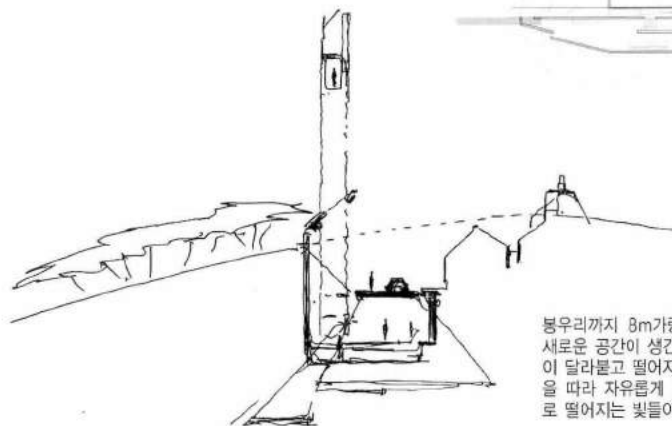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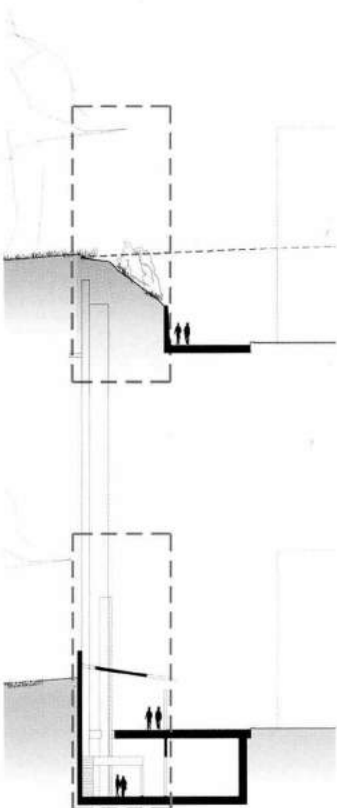
선정릉의 북쪽길은 주택가와 경계한 고갯길이다. 그 경사도 경사이거니와, 건물이 앉고 도로가 앉기 위해 깎인 땅의 속살위에 내 키를 풀쩍 뛰어넘는 벽의 높이가 부담스럽다. 선정릉의 가장 높은 곳이며, 도시영역의 확장으로 능선 허리가 잘려나간 곳이다. 저지른 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기해 놓은 가장 쓸모 없을것 같은 땅이다. 잘려나간 상처 위에 덧발라 놓은 잡목들과 철망 밑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봉투들. 이곳 또한 버림받은 사(死)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축적 풍요로움이 그 틈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공간 정릉의 새로운 배경이 된다.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능선 절개면의 형상이 프로젝트 대지가 된다. 계획안은 절개면의 형상을 건축화하는 작업이다.



봉우리까지 8m가량 밀어 넣은 경계벽과 고갯길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경계벽은 또다른 대지가 되어 공간이 달라붙고 떨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게 된다. 벽을 따라 자유롭게 따라가는 편들은 지붕이 되고, 그 사이로 떨어지는 빛들이 지하에 풍부한 공간감을 만들어 준다.

기존 도로의 하부를 공간화하고 어두운 선정릉 뒷골목에 도시적 감성이 배려된 문화공간을 형성한다. 건축 자체가 스스로 또 하나의 길이 된다.



interlocking cit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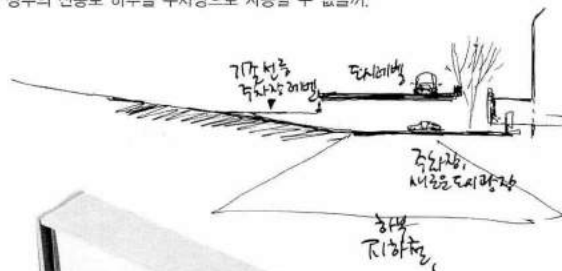
도시와 선정릉, 두 레벨의 중첩

도시화 과정에서 땅들의 높이가 변하게 된다. 자연은 자연으로서 긴 세월 속에서 세세하게 형성된 원래의 결들이 있고, 도시는 도시가 가져야 할 소통과 결합을 위한 광역 단면체계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불연속면이 발생한다. 기존 주차장의 레벨이 본래 지형의 경사를 회복하면서 이미 높아져버린 도시레벨 하부로 관입을 시작한다. 도시의 판과 선릉의 판이 자연스럽게 중첩되면서 선정릉에서 시작되어 결합된 또 하나의 광장이 도시구조 하부에 형성된다. 두 레벨의 중첩은 새로운 용도의 가능성을 지닌 틈새공간을 만든다. 하부레벨은 문화적 공간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원래의 모습대로 물을 건너고, 입구의 감성을 회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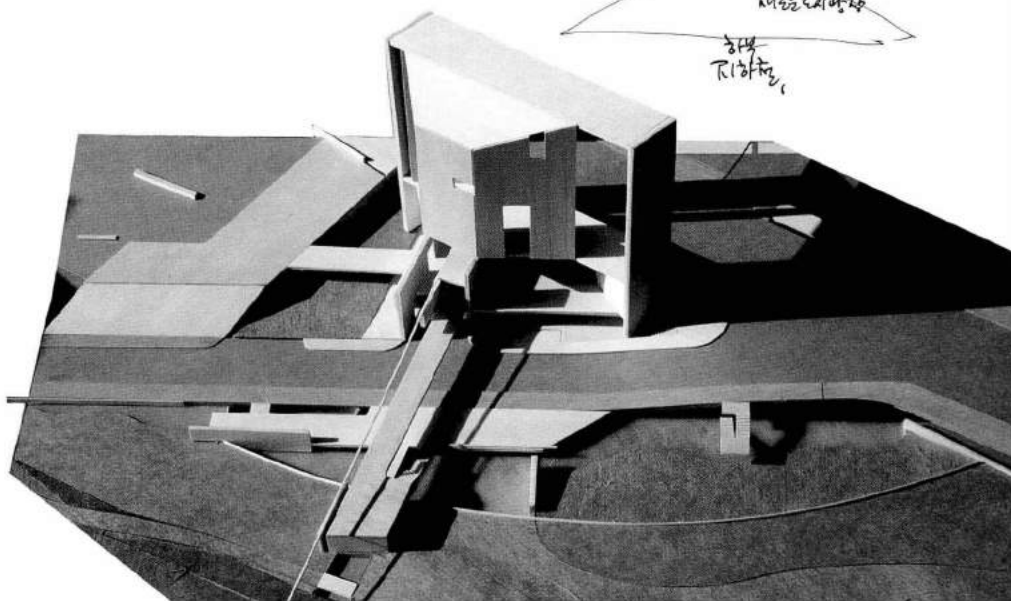
존재하는 도시맥락들을 연결하는 매듭이 된다. 한층 더 풍요로운 도시기능을 부여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진정성' 이지 않을까?



주차장과 접해 있는 선릉로 하부는 지하철 분당선 예정구간이다. 지하철 상부의 선릉로 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대지는 도시 블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수렴되는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140번지 옆 대지의 주상복합건물은 이미 선정릉과 도시적 관계를 맺으려 손짓을 시작하였다. 도시의 끝자락이 선정릉 안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열어주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도시를 바꿀 거대한 잠재력이 선정릉에 있다.



epilogue

인터넷상에서 기록을 검색하다보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선정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불편적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 주변의 철조망은 단지 선정릉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심공원에조차 닮은꼴로 학습되고 있다.

선정릉 내부에서 바깥 도시를 바라보면 도시 하부의 자질구레함들을 역사공간 내부의 감성과 위엄으로 보듬고 있다. 도시는 그만큼 풍요로워 보인다.

전술하였듯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경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더구나 문화재 주변의 철조망은 우리나라의 경우인 것만도 분명 아니다. 폼페이 주변의 철조망이나 로마시가지와 동시에 존재하는 포로 로마노와 같은 문화영역 사이의 경계구조에서도 철

조망은 존재하지만 우리와는 분명 다른 경우다. 시의 구축방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항성 및 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문화적 상황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단절적 이질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다르다. 가장 늦게 개방되어 서구화되기 시작한 나라 중의 하나.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양상이 이처럼 급격하였던 경우가 있을까.

바로 이 점이 선정릉 프로젝트를 대면하면서 가장 주목하였던 점이 된다. 근대화 과정, 다시 말하면 서구화과정, 그 중 도시화 과정은 그만큼 단절되는 속도와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관용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 도시가 가진 소중한 잠재력으로 탈바꿈된다.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상호공존하는 지혜로운 융합방식을 실천해 보인다면 그만큼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실천할 수 있는 그 힘들을 보여주는것, 우리 사회에 대하여, 세계의 도시들을 향하여. ■

설계경기 | Competition

파주운정신도시 경의선 운정역사

Paju-Unjeong New Town Unjeong Station

당선작 /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재일, 강성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아당리 299-4,
284-6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17,830㎡

건축면적 3,512.41㎡

연 면 적 3,264.30㎡

건 폐 율 19.69%

용 적 륜 18.30%

용 도 운수시설(철도역사)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 3층

주차대수 25대(장애인주차 2대포함)

외부마감 T0.8 아연도강판, 알미늄 쉬트,
T12 접합유리

발 주 처 대한주택공사

설계담당 김호정, 민지승, 김훈, 이희중, 박태원,
남수영, 박정선

문(門)과 교(橋)로서의 소통+연결의 기능을 담음

운정역사는 파주신도시의 관문이며 중
심역사로서의 역할과 서울과 문산을 연
결하고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철도를 사이에
두고 두지역의 경계선상에서 서로 포용
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개발이라는 배경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공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의미를 담고자 한다.

운정역의 유래 : 9개의 우물과 구름(지역
속의 Community 공간만들기)

평면개념

- 대합실층

- 여객과 역무공간의 명확한 기능분
리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무자와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
- 역무시설의 통합배치로 업무효율성
을 제고
- 공공시설로서 충분한 편의공간

확보

- 중심대합실에서 목적공간으로의
명확한 인지공간 배치

- 광장

- 협소한 광장면적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공간의 일부를 주출입구 하부
피로티에 계획함으로써 명확한 보
차분리와 소음의 차단 및 녹지패턴
의 연속성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특화계획

- 데크를 활용하여 후면 신도시에서
이용하는 사용자의 혼잡을 완화하
고 휴게편의공간을 계획
- 여객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한
실내조경 및 수유공간 확보
- 전면 출입구에 관람 및 만남의 장소
의 기능을 갖는 친환경 관람데크
설치
- 지붕층에 휴게와 담소를 위한 하늘
정원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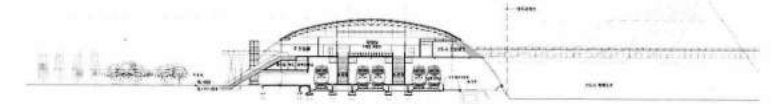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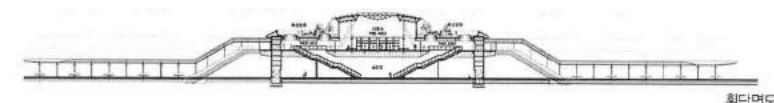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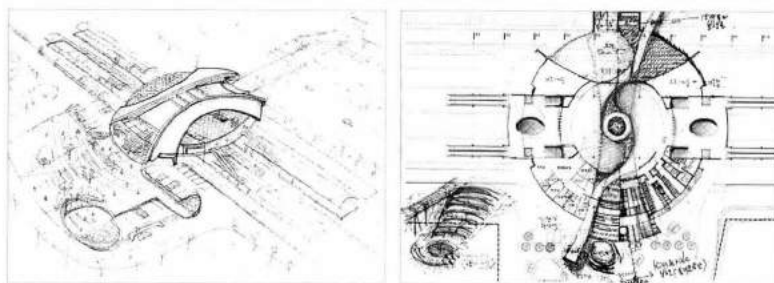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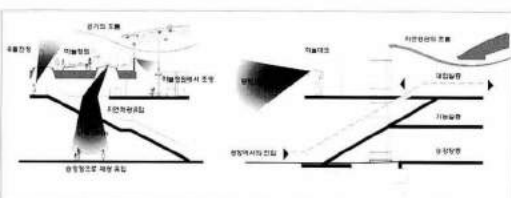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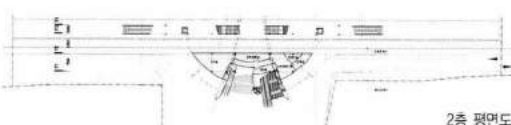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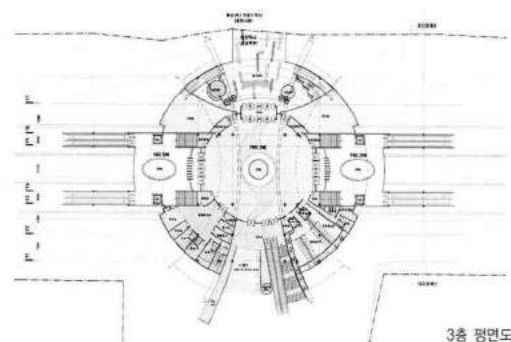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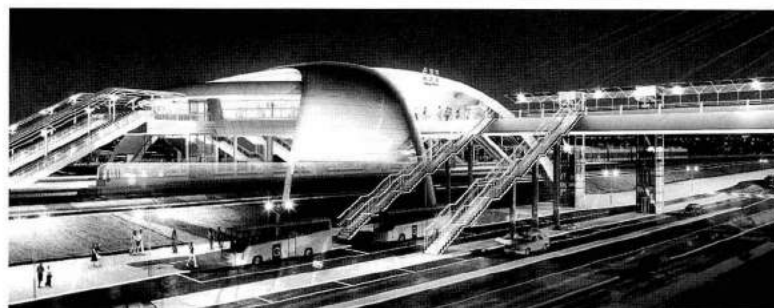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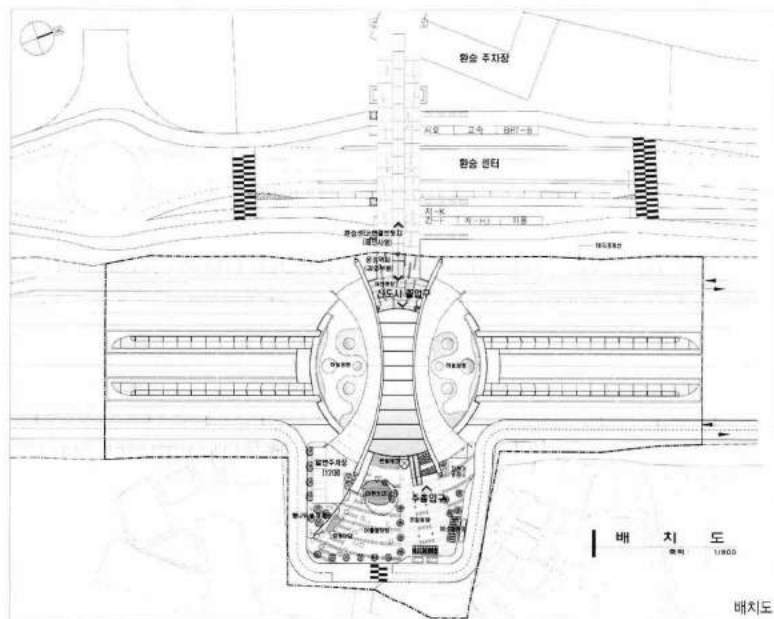


입면계획

- 중심성 : 원형 Mass로 다원적, 중심적 공간구성
- Sky line : 운정신도시와 구시가지의 도시 맥락에 순응하는 형태계획
- Land Mark : 유선형태의 역동적 Mass구성으로 철도의 속도감과 첨단이미지 강조
- 연속성 : 운정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시각적, 공간적 연계
- 금속 Mass와(Solid)와 유리Mass(Void)의 조화

단면계획

- 기능적 층별조닝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철도로 단절된 운정구도심과 운정신도시의 동선을 연계하고 통과 주동선상에 전면광장과 하늘 및 운정신도시로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우물천창을 통한 다양한 풍광을 체험하며, 빛을 내부 깊숙이 끌어들이 건물하부(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파주운정신도시 경의선 운정역사

Paju-Unjeong New Town Unjeong Station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정승덕) +
(주)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지(김기웅)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아당리 299-4,
284-6일원

대지면적 17,830m²

연 면 적 3,488.84m²

건축면적 3,214.53m²

용 도 철도역사

건 폐 율 19.57%

용 적 륜 18.03%

규 모 지상 3층

발 주 처 대한주택공사

설계담당 근정 : 김두진

삼정 : 김기연, 최웅, 최현웅, 김보라

계획의 목적

경의선 용산 ~ 문산간 복선 전철화 계획에 따라 운정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간창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의 개념

- 다리(Bridge) : 철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통로지만 철도 인근지역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절된 두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의 역사를 제안한다.
-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파주신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제안하고,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역사로서의 인지성을 나타내어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연출한다.
- 물을 담은 우물처럼 다양한 행위를 담는 운정 : 물을 담은 그릇 '우물'처럼 운정역은 다양한 행위를 담는 그릇이 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이기를 넘어서 다양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배치계획

- 자연과 인간, 도시의 만남
 - 진입광장 등 다양한 만남의 공간 제공
 - 철도축에 의해 단절된 동·서지역 상호 연결
- 인지성, 상징성(Land Mark) 확보
 - 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 자연축과 교차하는 시선축의 도입
- 효율적인 동선 계획
 - 주차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 보행동선의 단순 명료화를 통한 동선의 교차 방지
 -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최단거리 계획
 - 타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평면계획

- 역사의 기능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계획.
 - 설비시설 및 역무시설을 각각 증별배치하여 각 기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계획.
 -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다양한 경관을 제공.
 - 동선을 단순화 하여 명확한 방향성 및 짧은 동선 제공.



-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계획.
- 향을 고려한 실배치로 쾌적한 역무공간 계획.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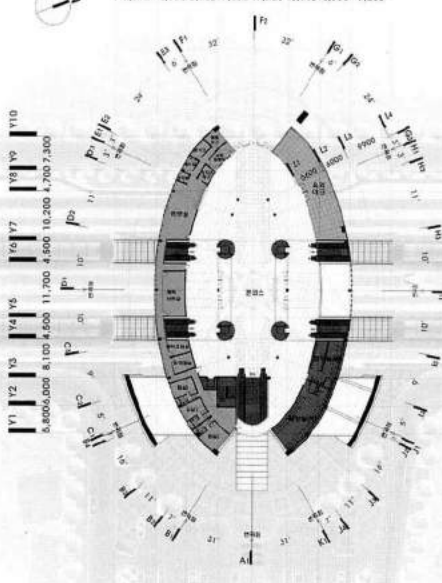
• 외부에서의 동선

- 진입광장 → 콘코스 →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ELEV.를 통해 콘코스로 진입.
- 연결통로 → 콘코스 → 승강장
연결통로를 통해 콘코스로 진입.

• 내부에서의 동선 : 콘코스를 중심으로 역시설들을 배치시켜 한눈에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후 출입구에서외부까지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여객동선 : 대기동선에 의하여 유동동선이 방해 받지 않도록 구분. 여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동선을 단순화하고 이동거리가 단축되도록 계획.
- 역무동선 : 여객동선과 분리. 설비부분은 별도의 출입구 설치등으로 업무 성격에 따른 역무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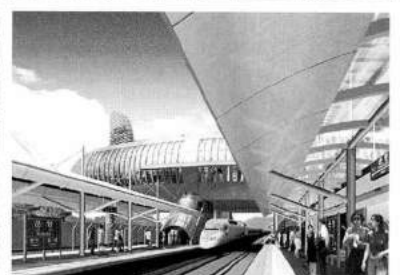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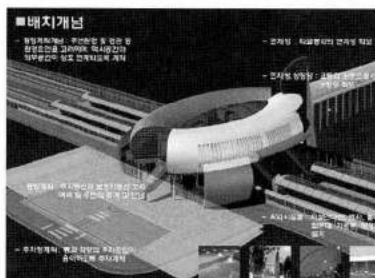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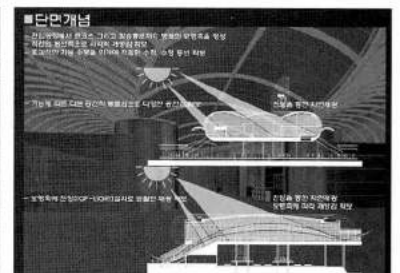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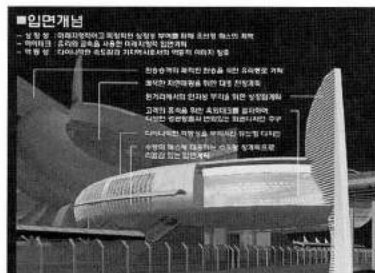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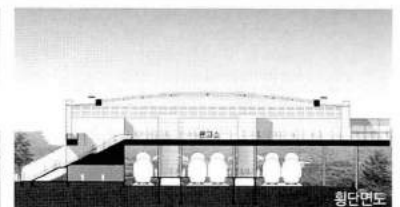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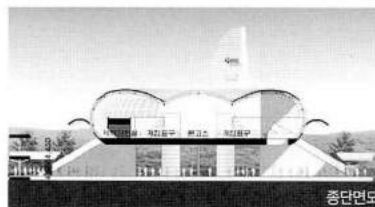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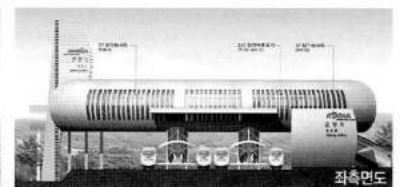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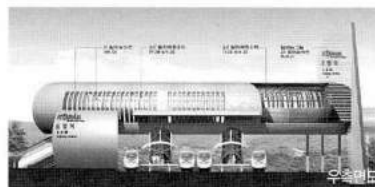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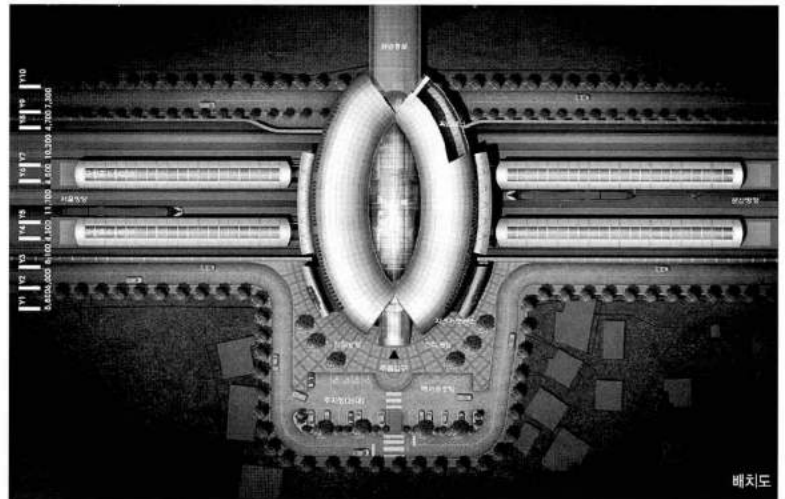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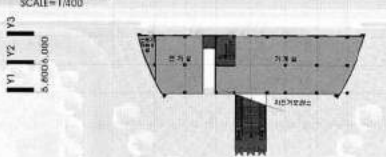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SCALE=1/400



2층 평면도
SCALE=1/400



1층 평면도
SCALE=1/400



설계경기 | Competition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io-Technology Center

당선작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한광호)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91-1
강원대학교 내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98,074.8㎡

건축면적 증축 4,482.04㎡

연면적 증축 12,980.77㎡

건폐율 11.65%

용적률 34.70%

용도 교육, 연구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11층

외부마감 컬러·볼투명복층유리, 강화유리,
우드패널, 점토벽돌

발주처 강원대학교

설계담당 심재균, 김유진, 홍석중, 오성진,
김중호, 조미화, 최정오(엠앤디)
+ 김남성, 전상호, 박경미(산)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는 강원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정면에 위치한다. 계획의 주안점은 자연의 흐름을 열어주는 녹지의 피와 연구와 휴식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마치 옛날 마을의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같은 역할을 한 정자나무처럼 강원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뿌리부터 튼튼한 나무를 형상화 하였다. 건물은 나무와 같이 자연의 성격을 지니고서 자라난 자연의 소산물로서 자연과 같이 호흡하고 순환하고 자란다. 튼튼한 뿌리 같은 저층부와 단단한 기둥같은 타워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의 희망인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함께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유실수의 열매와 같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캠퍼스는 BT Center를 중심으로 약학관, 동자대, 수의학관, 의학관 사이의 공

동연구 및 학문적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도서관, 종합강의동, 학생회관, 운동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교류를 유도하는 생활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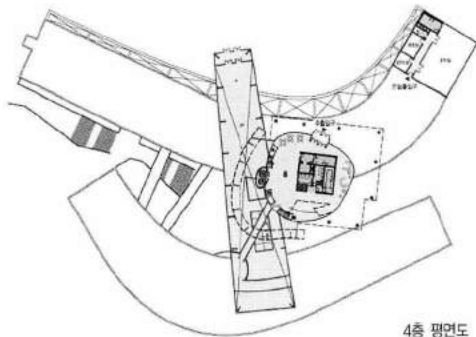
시아의 흐름은 캠퍼스 내에서는 열려있되 밖에서는 타워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층부의 컨셉은 eco-valley로써 지형을 따라 형성된 그린의 띠이고 타워부분의 컨셉은 eco-spine으로써 땅의 성격을 건물 속으로 끌어올린 수직으로 관통하는 그린의 기둥이다. 이 두 컨셉은 녹색의 흐름으로 인식되며 건물에 숨을 불어넣는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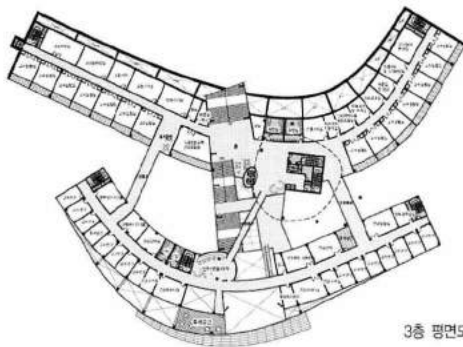
배치는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지형의 흐름을 따라 Green, Topological buiding, Green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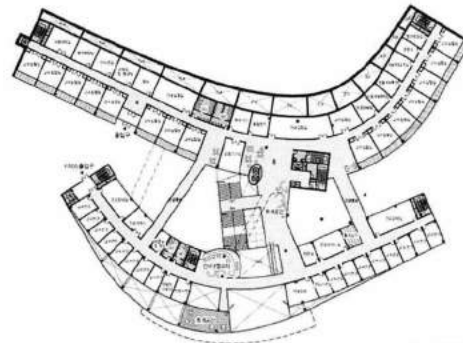
Building, Plaza 등 소통을 유도하는 커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형성된 커는 지형과 녹지를 확장시키며 Topological building, 생활 가로 공원을 형성할 수 있고 여러 겹의 커를 따라 형성되는 프로그램의 피를 이룬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엮어 기능을 위한 질서를 생성한다. 아트리움은 수평적으로 배치된 저층부의 중심에 수직적으로 얹혀져 단절된 대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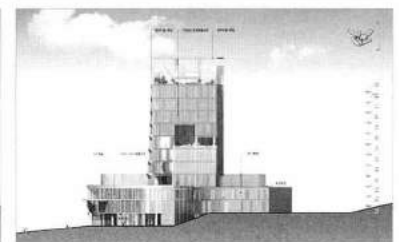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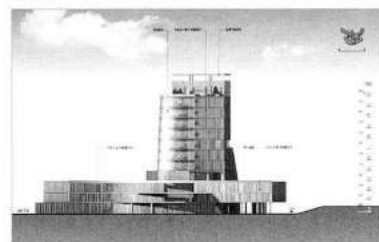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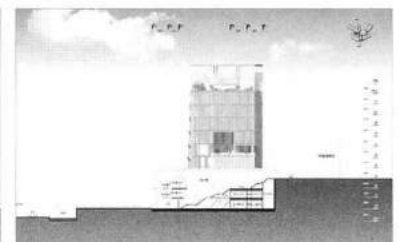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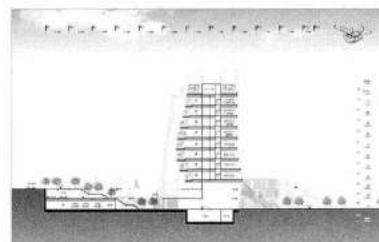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io-Technology Center

우수작 / 건축사무소 도담(조호성) +
(주)건축사무소 아취그룹(채두병)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91-1(강원대학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
대지면적 798,074.80㎡
건축면적 91,216.68㎡ (기존 88,500.18㎡)
연면적 298,512.48㎡ (기존 285,534.22㎡)
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건폐율 11.43%
용적률 34.67%
규모 지하 1층, 지상 12층
발주처 강원대학교
설계담당 이해갑, 배성탁, 김완중, 탁경미, 서재현,
유민상, 송태석, 천희성

형태발생(Morphogenesis)은 無에서 창조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의 싹들로 작용하는 이전의 조직 시스템들로부터 생성된다. 이들 싹들은 질량에 의해서 중력장이 관련 되고, 전기의 충전에 의해 전자기장이 작용하 듯이 형태는 발생의 장에 영향을 받는다. 발생의 장이 기억을 내재한다면 진화의 과정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선형적인 형태들의 구현이 아니라 생명체 자체에 내재되어있는 속성들을 자체적으로 형성해 나가게 되고 각각의 요소들은 장에서 공명함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대학의 Campus는 이러한 의미에서 장(Field)의 성격을 갖는다. 이 안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광장, 건물 등이 각자의 보이지 않는 힘들을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새로운 발생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은 장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센터’는 강원대학교가 BT산업에서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에 예정되어 있는 동문에서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위치에 있어 대학의 얼굴과 같은 성격도 갖게 된다.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은 대략 이렇다.

첫째, 경사면의 적극적인 이용
구릉지면에 site가 위치해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화로운 동선을 이끌어낸다.
둘째, 동적인 Mall과 정적인 Mall의 구분
철저한 대지분석을 통해 건물 전면부에 동적이고 관조적인 분위기의 Mall을 조성하여 동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건물의 후면부에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마당과 같은 분위기의 정적인 Mall에서는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의 독서공간이자 사색공간으로 마련된다.



셋째, Landmark 역할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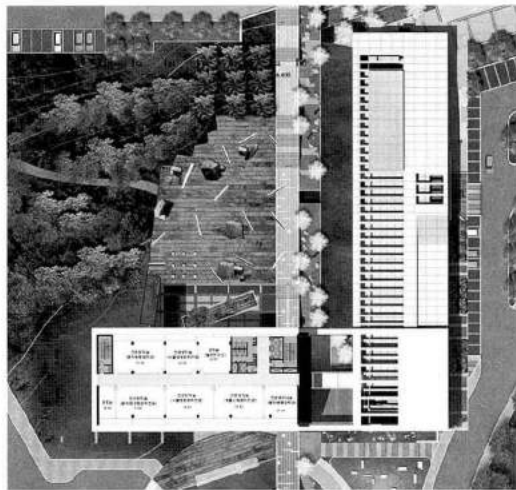
BT산업의 거점대학이라는 문구에 알맞은 이미지를 건물 전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센터의 기능성과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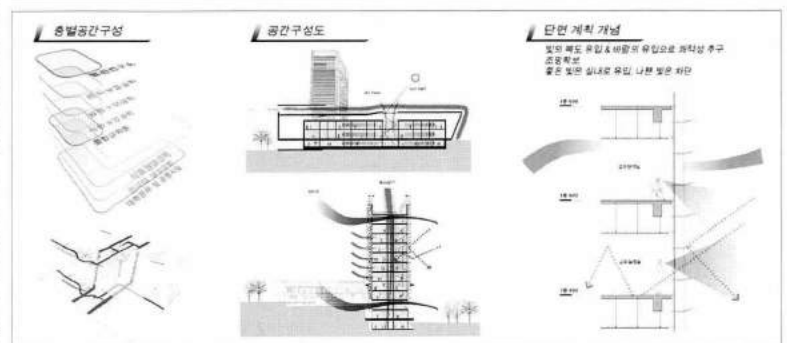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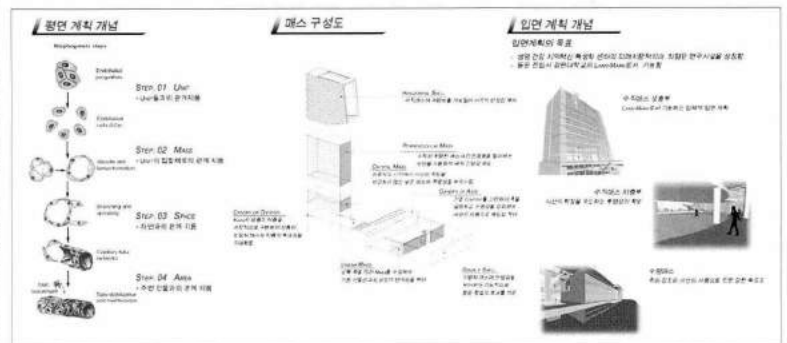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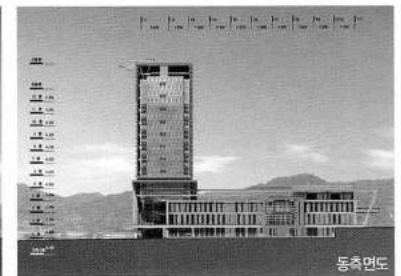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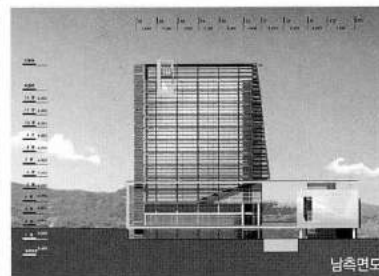
특성화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와 그러한 공간을 고려하여 매스 디자인을 Arc 가 아닌 Line 으로 출발하였고, 커튼월이나 더블스킨의 사용은 내부기능에 맞는 곳에만 한정사용 현상설계의 화려함을 넘어서는 실제적 유용성 고려한다.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지역혁신 특성화 센터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io-Technology Center

가작 / (주)지에이플랜 건축사사무소(김강수)
*前 그룹가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91-1 (강원대학교
구내)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98,074.80 m²
건축면적 1,809.36 m²
연면적 12,966.48 m²
용도 연구시설
건폐율 11.32%
용적률 34.77%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발주처 강원대학교
설계담당 박용우, 표시정, 김대성, 승민, 권봉찬

건축계획 개요

- 지역특성화 산업인 BT산업의 거점 대학으로서, 다양하게 주어진 요구의 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구성.
- BT특성화학부 및 혈관연구소의 인력양성과 연구 개발을 위한 최적의 공간창출.
- 각 실별 독립성 확보와 유기적 동선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적용.
- 에너지 절감 및 인간과 환경의 친화성을 적극 반영한 설계.

설계개념

- 본 특성화센터의 전체형상은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지형에 순응하는 축의 삼입으로 두 매스로 나뉘지고, 이 매스는 바이오산업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유전자구조의 형상을 평면형태에 반영하였다.
- 두 개의 매스는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연결되며, 이 중앙 아트리움은 내부공간에의 빛의 유입과 연구시설의 경직성을 보완하

는 완충역할을 하게 된다.

배치개념

- 기존 대학의 진입축과 동문예정지와의 원활한 흐름동선을 기준하여 인지성확보
- 주변 환경 및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평면 배치계획.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배치구성을 통해 공간의 위계형성, 다양한 외부공간 형성
- 남측 동문방향에서 자연스러운 차량의 유도 및 진입마당과 장애자램프의 조성으로 보행자의 출입을 위한 공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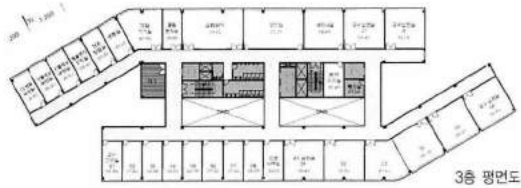
평면개념

- 교수와 학생의 연구실 구분과 공용 및 여유허간의 3가지 영역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유사기능은 연계시켜 업무효율을 증대시킨다.
- 주기능별 동선을 분리하여 단순화 명료화된 동선체계의 형성을 유도하였다.



입면/매스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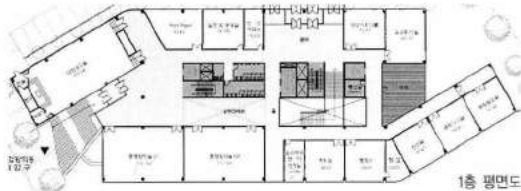
- 재료의 대비에 따른 인지성, 투명성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 연구시설로의 이미지부각
- 기능별로 분절된 매스의 구성으로 기능에 대한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전자 구조의 형상으로 연구시설의 성격을 상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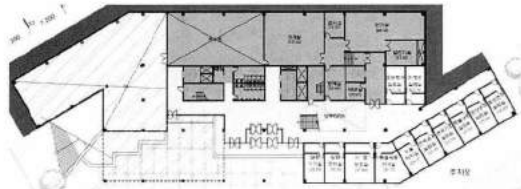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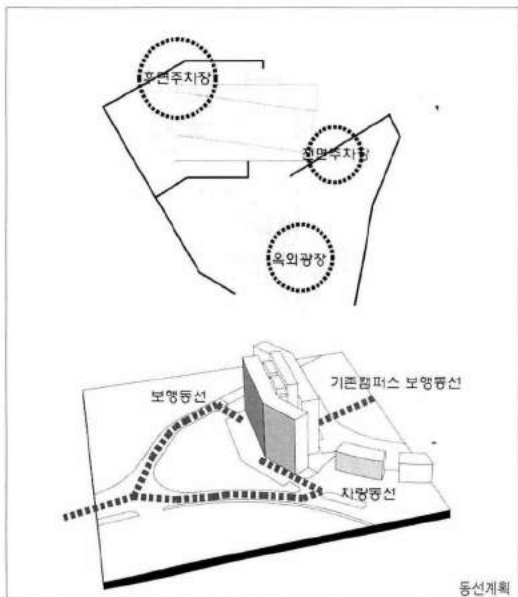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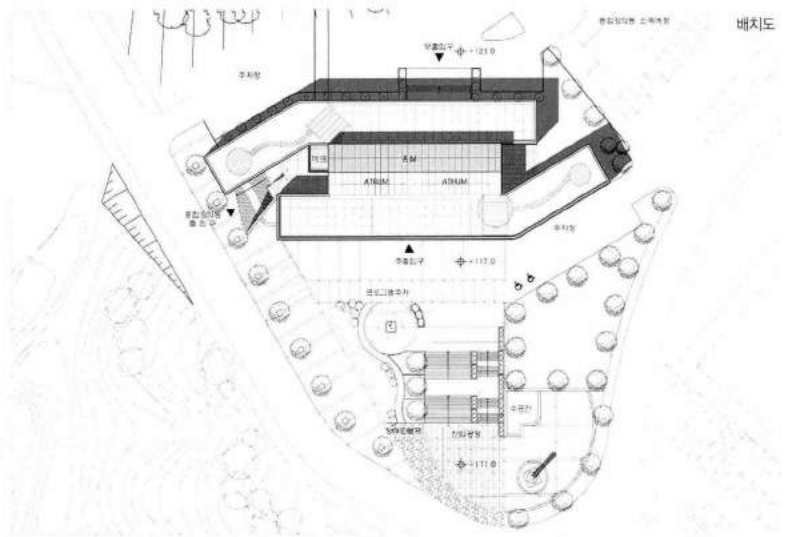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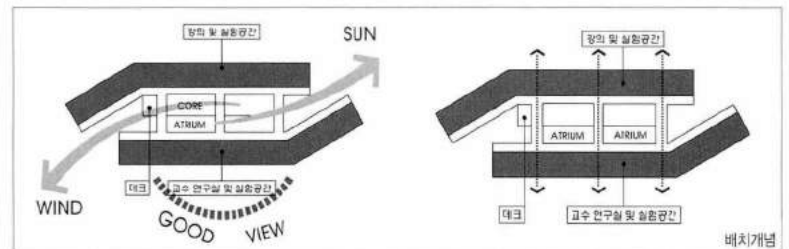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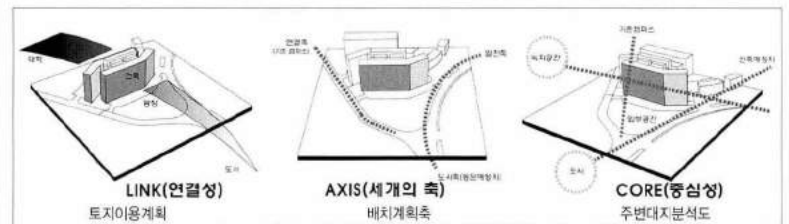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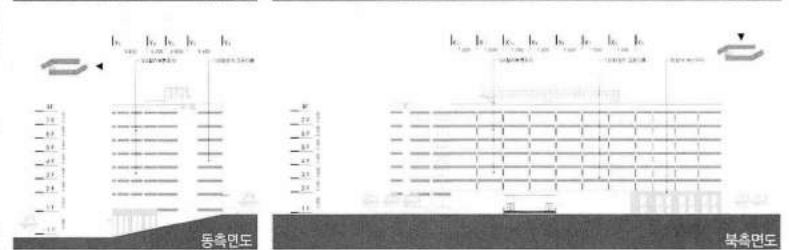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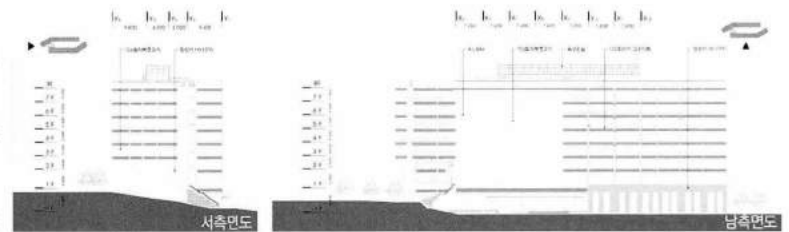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동선계획



배치도



배치개념

김 정 신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im Jung-shin

유럽 현대 교회건축 순례(上)

- 20세기 후반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Modern Church Architecture in Europe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신학적 해석의 변천과 건축술의 발달에 따라 실로 다양한 건축 양식을 창출해 내어왔다. 불과 210여년 밖에 안 된 한국교회도 한국 그리스도교 문화의 표상으로서 시대와 신앙을 반영하며, 나름대로의 건축양식을 변천·발전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천주교 200주년과 개신교 100주년을 전후로 하여 급격한 교세신장과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지어지고 있는 교회건축물들을 보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건축인으로서 반성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또한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하는 목소리는 높으나 그 실천적인 작업은 미미하기만 하다.

낡은 달동네 한가운데 국적 없는 조악한 고딕식 성당이나 하늘을 찌를 듯이 오만한 자세를 버티고 서 있는 교회를 보면,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민중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듯하여 송구스럽고 민망할 때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아파트 단지에 웅장한 모습으로 들어선 국적불명의 교회건축물은 이 땅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양의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르네상스 및 식민지 양식의 건물을 피상적으로 모방 절충한 교회건물이 우리나라 교회건축양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건축은 물질의 풍요 속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능면에 있어서나 교회건축의 상징성과 진정성에 있어 훌륭한 교회건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신학적 접근 없는 교회건축의 토착화는 복합주의와 절충주의로 혼란스럽기조차하다.

※ 소개하는 사진의 일부는 필자의 책 「유럽현대교회건축」(가톨릭출판사, 2004), Richard Meier Architect(Rizzoli, 2004), European Church Architecture(Prestel, 2002), New Spiritual Architecture (Abbeville Press, 2004) 및 현지의 안내책자에서 전재하였음.

역사는 교회건축이 항상 국제적이면서도 토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서양의 교회건축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크나큰 변화를 겪어왔다. 그것은 혁신적인 근대건축운동과 전례운동 및 에큐메니칼(ecumenical) 운동의 결과였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이 중심이었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켰고 인간의 자율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성장은 보다 나은 미래의 유일한 보장이라는 신념을 낳았고, 상대적으로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종교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리·규정·보증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으며, 명상, 신념, 비탄, 희열 등과 같은 종교심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종교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물질적 삶에 보족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구조적 체계를 갖춘 일종의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는 신과의 재연합(re-association with God)' 및 '사회와의 재연합(re-association with society)'으로 현대 사회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현대사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교회의 역할 변화는 교회건축의 사회화, 세속화(비성역화) 경향을 초래하였다.

교회건축의 위기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피해와 이념적인 건축 및 교회운동의 중심이었던 유럽의 교회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세계대전 후 교회의 재건과 함께 교회건축이 양적으로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에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의 복합기능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익명성과 세속화로 급속히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악한 건축주와 함께 성공의 절정을 구가하였던 건축사들이 질 대신에 '게으른 타협'의 건축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요소의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혼합의 결과로 교회건축은 '허세부리는' 유행 즉 새로운 절충주의로 타락하였다.

교회건축의 르네상스

그러나 그들은 탈이념과 다원주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건축개념

을 교회건축의 역사성과 정통성, 토착성의 바탕 위에 모색함으로써 밀레니움(새천년) 전환기에 새로운 교회건축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새로운 주거지역의 개발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일탈과 피난욕구이다. 교회와 성당은 조용함, 명상, 자유, 최소한 피난의, 오직 '다른' 장소이다.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에 대응하여 많은 건축사들은 인상적인 교회내부를 창조하였다. 다시 한 번 고상한 종교건축이 유럽의 다양한 지역문화의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결론은 명백하다. 교회건축문화는 질을 인식하는 건축주가 비인습적인 건축사들에게 설계를 의뢰할 용기를 가질 때 나타난다.

참다운 이 땅의 교회건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에서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본고는 진지한 실험과 신학적 접근을 통해 현대교회건축 운동의 리더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특히 20세기 후반의 주요 건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공회 코벤트리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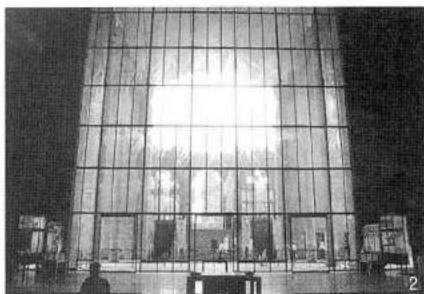
(Anglican Cathedral of Coventry, 1954~1962)

코벤트리 대성당은 2차 대전 중 독일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옛 폐허의 자리에 새로이 재건한 성당이다. 설계자 바실 스펜스(Basil Spence, 1907~1976)는 외벽체와 첨탑 일부만 남은 옛 성당의 폐허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통과해 새 성당으로 접근토록 배치함으로써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하고,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옛것으로부터 비롯된 새것을 원했고 이 둘 사이의 변화와 연결을 매우 재치 있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일종의 희생물인 옛것과 부활된 새것 사이에 시각적인, 정신적인 접촉이 유지되었다. 성당의 전면인 남쪽 벽은 유리로서 성인과 천사가 옛ching)되어 있다. 빛이 적절하면 성당에 접근할 때 이 얇은 막을 통해 멀리 있는 높은 제단을 볼 수 있으며, 성당을 나올 땐 환한 상태에서도 부서진 옛 성당의 잔존과 유리의 옛칭 그림이 뒤엉켜 독특한 장면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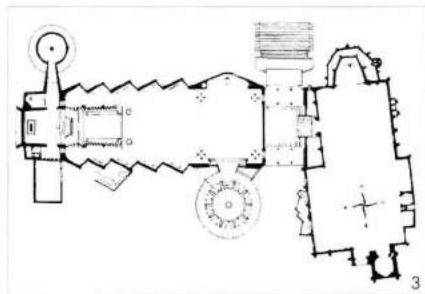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네이브(nave)의 넓은 공간, 우아한 천장 캐노피, 그리고 타피스트리로 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상이 멀리 보인다. 오브 아랍(Ove Arup)에 의해 디자인된 가느다란 십자형 단면의



1_ 코벤트리 대성당-전경



2_ 코벤트리 대성당(내부에서 압구전면창을 봄)



3_ 코벤트리 대성당-배치도

P.C 기둥과 방사 리브의 천장은 외벽과 아무런 구조적인 관계가 없는 오직 내부의 천장 캐노피만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높이 78피트, 폭 38피트의 제단 타피스트리는 벽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가득 채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제단과 어울리지 않고, 기하학적인 요소와 누에고치 같은 형상이 어색하고, 건축과 조화되지 못하는 감도 있다. 인상적이긴 하나 성가대석 위의 가시관과 주교좌 위의 가시관형 천개는 지나치게 선동적이며,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 역시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성당 끝 부분인 지성소에 실제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어 이런 장애물로 인해 높은 제단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이 성당의 가장 뛰어나 예술품은 입구로 들어서는 즉시 동쪽 우측에서 볼 수 있는 두터운 스테인드글라스 벽이다. 그것은 성령과 생의 선물로 훌륭한 착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벤트리의 일상적인 흐린날에도 감지할 수 있는 온기와 광택으로 가득차 있다. 세례당의 맞은편에 외부와 연결된 '일치를 위한 보편적 교회'의 채플이 있고, 제대 뒤편에는 성모채플, 성모채플 우측에 쾅세마네의 그리스도 채플과 밖으로 돌출된 원형 평면의 그리스도 봉사자 채플이 있다.

네이브의 좌우 측벽에 5개씩 길게(70 피트)내린 스테인드글라스의 창은 제대를 향해 비스듬히 배열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색채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소년의 녹색, 젊은이의 열정을 나타내는 적색, 중년의 짙은 청색, 노년의 자주색을 거쳐 마지막 황금색은 내세를 상징하고 있다.

이 건물이 종교와 예술 부흥의 상징으로서 대중적인 찬사와 함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실경의 건물 디자인과 존 파이프(John Piper)의 스테인드글라스이다. 파괴된 옛 성당의 잔존에 새 성당을 연결·병치함으로써 죽음과 부활, 신의 불멸을 상징한 것은 훌륭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건물의 형태 구조 등이 과거와의 단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것이다.

1990년 11월14일 통일 독일은 평화의 상징으로 코벤트리 대 성당에 종을 봉헌하였으며, B.B.C.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당

(Kaiser-Wilhelm Gedächtnis Kirche, Berlin, 1959~1963)

전후 베를린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적 건물은 아마도 서 베를린의 중심부에 위치한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당일 것이다. 독일의 합리주의 건축사 에곤 아이어만(Egon Eiermann, 1904~70)이 현상 경기를 통해 설계한 이 건물은 그간 많은 논쟁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아이어만은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과 함께 전후 독일에서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된 인물이다. 조각적 매스의 가능성을 추구한 샤로운과 대조적으로 그는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구조체의 표현과 정밀한 구조와 기능을 추구하였는데 이 베를린 기념 교회당에서도 그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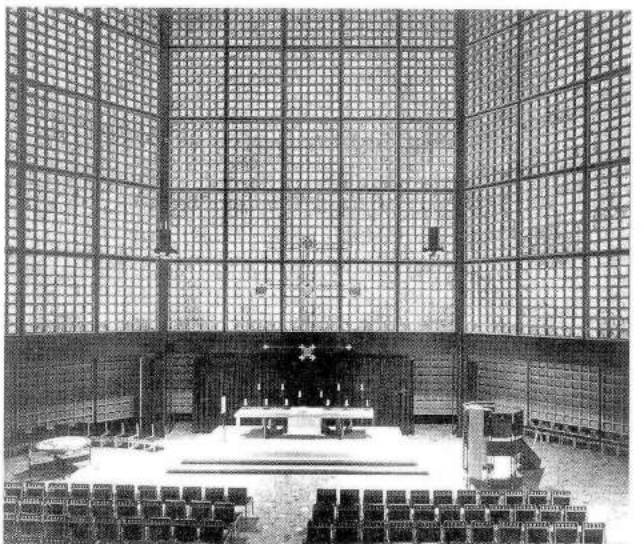
그는 폭탄에 의해 폐허가 된 프란츠 하인리히 쉬베흐텐(Franz

Heinrich Schwechten)이 설계한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의 옛 교회당의 부서진 첨탑(spire)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가운데 두고 8각형, 6각형, 장방형의 순수 기하학적인 오브제를 배열하였다. 5개의 조형적인 오브제가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세속적인 기능과 종교적인 기능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 중 순수하고 기계적인 8각 프리즘의 새 교회당은 옛 탑에 대한 대위법으로서 미적이고 심리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근사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베를린 한복판이 교란상태에 있을 때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퇴각한 옛 교회당에서의 용감했던 집회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구조적인 파란색과 2차적인 빨강·노랑색의 활기로 8면의 창은 이 본당 내부를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번잡한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취된 명상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베톤그라스(Beton-glass)의 세트로 된 2중벽 - 내·외부 유리벽 사이가 1.5m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 이기 때문에 내부공간이 평온하고 조용한 특징을 갖는다. 외부 소음지대(번잡한 상업가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로부터의 거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게 된다. 더욱이 이 벽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는 인공조명들은 외부조건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한다. 그 결과로 내부 효과는 회중들을 완전히 둘러싸는 색깔있는 막을 설치하기 좋을 뿐



빌헬름 황제 기념교회-전경



빌헬름 황제 기념교회-내부

만 아니라, 어두워진 후에도 바깥은 똑같이 풍요롭게 빛난다. 해질 무렵의 교회는 시끌벅적한 도시로부터 환영받는 피난처를 약속하듯 포근한 광경을 연출한다.

입구 맞은편에 단순한 제단이 위치하고 제단 상부에 황금빛 십자가가 걸려있으며, 왼쪽에 세례반, 오른쪽에 설교단이 자리잡고 있다. 제단 뒤쪽 커튼으로 드리워진 계단은 부속실과 성구 보존실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간다. 성가대와 거대한 오르간은 입구 위의 발코니에 있다.

외관은 철제 프레임과 와플(waffle) 패널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립된 검은색 철제 프레임이 벌집모양의 흰색 패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외벽 패널의 한 유닛은 5×5의 벌집같은 구멍이 뚫린 정사각형이며, 내벽의 패널은 더욱 친숙한 내부규모에 적합할 뿐 아니라 높이는 같지만 폭은 보다 좁아 -내외벽 평면상의 직경차가 3m이다- 가로 세로가 7:8이다.

마리아 레지나 순교기념 성당

(Maria Regina Martyrum, Berlin, 1960~1963)

베를린 시의 샤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에 위치한 마리아 레지나 순교기념 성당은 나찌 독일(1933~45)의 치하에서 희생된 순교자들의 고귀한 신앙과 양심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가톨릭 성당이다. 이곳에서 약 1.4km 떨어진 플롯S.세 소년원은 당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2,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피로써 증거했던 약명 높은 플롯S.세(Plotzensee) 감옥이 있었던 곳이다. 이 성당은 다른 2개의 인접한 개신교 교회(Sühne-Christi Kirche, Plotzensee Gemeinde Zentrum)와 함께 나찌 치하에서 순교한 모든 이들과 유대인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독일인의 참회와 의무의 표현으로 봉헌되었다. 따라서 이 성당은 교구본당의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순례성당의 기능을 갖고 있어 강한 상징체계가 주목을 끈다.

현상 경기를 통해 한스 쇠델(Hans Schädel)과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가 설계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장방형

뜰의 한쪽 성당은 들어 올려져 있다. 널찍하고 음침하게 현무암 자갈로 덮힌 이 뜰은 의식광장으로 8,000명의 야외 미사와 집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 광장의 주입구는 남동쪽 벽을 따라 청동으로 조각된 십자가의 길에 의해 강조되어 생동감을 지닌다. 이 십자가의 길의 각 처소는 매우 완만한 경사로서 성당 하부 필로티의 야외 제단까지 이르는데 순례는 뜰을 지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골고다로의 길을 재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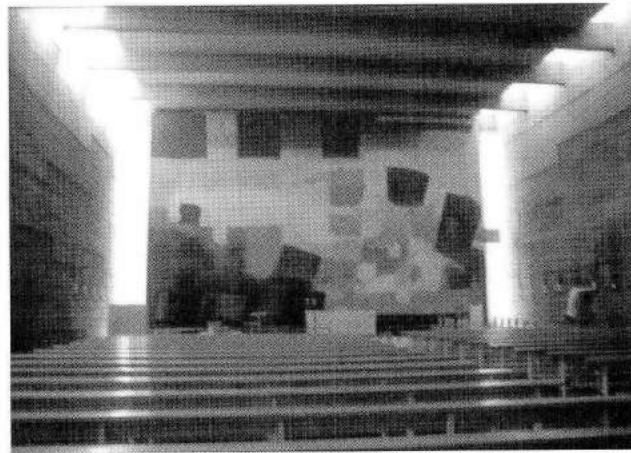
성당은 상자(box) 형태이지만 뜰을 약간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광과 상징'을 나타낸다. 성당의 입구 상부의 벽면에는 빛나는 금박의 브론즈 부조가 있는데, 반추상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요한 묵시록 12장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이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입구 유리문을 통해 들어서면 곧장 윗층(성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나게 되며, 계단 좌측에 서점, 계단 뒷 편에 60석의 어둡고 묵상적인 기도실과 감동적인 피에타(Pieta)상이 있다.

2층 성당은 거친 노출 콘크리트벽과 콘크리트 및 나무로 된 천장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장식을 억제한 엄격성은 천장과 끝 벽으로부터 옆벽을 구획하는 공간과 성단 벽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에 의해 다소 완화되어 있다. '가벼운 골조'는 내부의 어떠한 제한도 완화시켜 주며, 게다가 광원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자연광의 유입은 만족함을 더해 준다. 인공조명(형광등)은 천장의 홈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벽화 주변에 가벼운 눈부심의 빛이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벽화 자체가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벽화의 주제는 금박 부조와 마찬가지로 요한 묵시록(5장 6절)에서 따온 것이다. "나는 또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계단 상부의 갤러리에는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석이 위치하며, 계단 뒷 편에는 성찬 채플이 있다.



마리아 레지나 성당-전경



마리아 레지나 성당-내부

세례자 요한 성당

(San Giovanni Battista, Firenze, 1960~1963)

이태리 피렌체 북쪽 외곽에 위치한 기념비적인 세례자 요한 성당은 조각과 건축이 일체화된 작품으로 유명한 성당이다.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이 성당은 고속도로 건설 중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봉헌되었다.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조각물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중세의 성채를 연상하기도 한다. 강한 조형성을 보여주는 외관형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백색 대리석 계통의 잡석(San Giuliano석)으로 조적한 벽체와 푸른색 부식 동판을 씌운 지붕으로 양분된다.

주출입구는 고속도로 반대편 동쪽에 나 있는데 문 앞에는 마치 성곽의 반달문처럼 돌담이 둘러쳐 전정(atrium)을 만들어준다. 정문은 청동부조가 된 거대한 미닫이문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게 열리며, 평상시에는 측면에 나있는 안내실 연결 쪽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정문은 두 쪽으로 페리클레 핫찌니(Pericle Fazzini)의 '모세의 기적'과 '아기 예수의 탄생'이 고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이는 신이 정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정을 깨닫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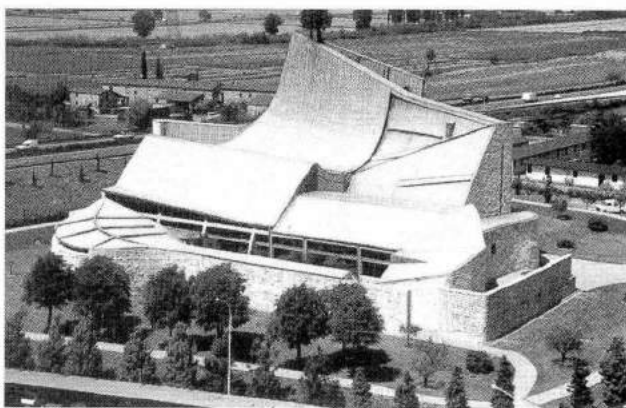
정문을 들어서면 배랑(narthex) 역할을 하는 긴 회랑이 나오는데 회랑 좌측에는 콘크리트 칸막이벽으로 구획된 개방된 공간이 줄지어 있는데 각 공간에는 칸막이벽 위에 10대 도시의 주보성인을 주제로 한 10점의 청동 고부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동쪽면은 에밀리오 그레코(Emilio Greco)가 서쪽 면은 벤난찌오 크로철티(Venanzio Crocetti)가 조각하였다. 작품 크기도 크기지만 부조 작품에서의 여백을 없애고 인체와 구조물, 풍경만을 표현하여 동주물이 주는 무거운 느낌과 답답함을 제거하였다. 이 공간은 실내이면서도 중정에 면한 한쪽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광이 충만하여 반외부 공간의 성격이 짙으며 마치 조각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회랑 끝을 돌아 왼쪽으로는 세례당, 오른쪽으로는 성당으로 연결되는데 성당으로 들어가면 예기치 못했던 세계가 전개된다.

나뭇가지처럼 뻗은 노출콘크리트의 기둥들, 완만한 구배로 걸쳐진 불룩한 노출콘크리트의 천장(마치 천막 같다), 천장 사이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빛, 제단 후면의 스테인드글라스 창 등이 신비의 장소를 만들어준다. 제단과 입구의 종축이 짧은 대신 횡축은 거의 2배가 넘게 길며 그 양끝에 부 제단이 놓이고 주 제단 뒤편에 제의실이, 주 제단 맞은편에 2층 성가대석이 배열된다. 제의실 곁에 부출입구가 있어 오른편 회중석 공간의 주변으로 배열된 측랑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성당과 배랑 사이에는 좁고 긴 중정(cloister)이 있어 각 공간에 적절한 빛을 유입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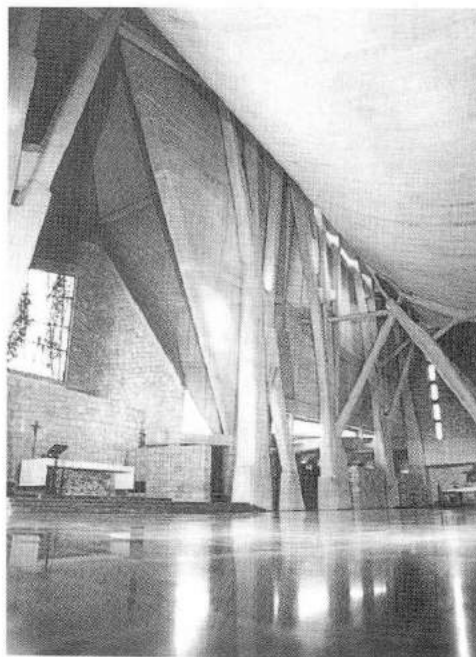
이 성당은 마치 순례성당처럼 긴 회랑과 복도를 구성하여 입구에서 제단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당대의 유명 조각가의 감동적인 조각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장인기질이 충만한 조형물들이 산재하는데 촛대, 문고리, 문짝 등 모든 것을 건축사 스스로가 디자인하였다. 조각과 건축이 일체화된 성당이다.

설계자 미켈루치(G. Michelucci)는 그의 책 『건축 디자인의 변명(Just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떠한 미학이나 기술적인 관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이론과 평면, 기술적인 문제와 미학적인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사람들의 반향과 동의에 주목하였다.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웅변을 전달하는 방법과 형태를 추구하는 중에 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미켈루치의 의미 참조는 ‘텐트’이다.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나가는 도정(道程)의 크리스찬을 위한 임시로 머무는 통로를 상징하는 ‘텐트’이다. ‘텐트’의 의미는 그가 강조하듯이 그의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아니었다. 내부 구조를 발전시킨 결과 텐트의 형상이 분명해진 것이다. 미켈루치는 이태리 기능주의의 리더이다. 그가 설계한 플로렌스의 철도역(1936)은 당시 가장 기능적인 건물의 하나이다. 이 성당은 합리주의를 줄곧 추구하여왔던 한 건축사의 후기 창작품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건물을 디자인 한 것이다.



세례자 요한 성당-원경



세례자 요한 성당-내부

메겐 비오 성당

(Pius-Kirche, Meggen, 1964~1966)

스위스 메겐의 비오성당은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인데 진취적인 성직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결과 2/3의 지지로 승인한 시민들에 의사에 의해 지어졌다. 이 건물은 위르겐 외디커(Jürgen Joedicke)가 "미스 반 데 로에 건축의 잠재력에 대한 순수한 표명이다"라고 표현하듯이 단순성과 투명성으로 뛰어났다.

당시 기본적으로 미스 반 데 로에 건축을 지향했던 솔로손(Solothurn)파에 속했던 건축사 프란츠 퓨에그(Franz Füg)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의 집도 아니고, 교구 홀도 아니었다. 공동체가 교회 집회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한정하는 단지 덮개일 뿐이었다. 그 덮개는 보이긴 하나 거의 비물질화된 철구조체이다. 1.68m 간격의 직립재 사이의 벽은 28mm 두께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것과 같은 펜텔리콘(pentelicon) 대리석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리석은 반투명이며 성당 내부를 지배하는 요소가 되는데 황갈색에서부터 회청색의 색조를 띤다. 영묘한 벽에 사용된 고상한 재료 때문에 그 인상은 매력적인 공장과 같은 것이 된다. 이 성당을 속세로부터 격리한 것은 바로 이 재료이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배열된 구조와 추상과 비례가 지배하는 공간은 신비의 성찬에 요구되는 평화와 명상을 창조한다.

성당은 종탑, 사제관, 교회회관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루체른 호수를 둘러싼 산을 바라보는 성 고타르트(St. Gotthard) 도로 위로 오르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테라스와 광장으로 성스러운 영역을 그 주변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다. 입구는 부활축제에 사용되는 광장에 위치하고, 성당 뒤편 경사를 이용해 평일미사를 위한 소성당이 배치함으로써 도로에 면한 전정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성당은 이태리 만자롯티(A. Mangiarotti)가 설계한 밀라노의 성자 예수 성당(Chiesa di Mater Misericordiae, 1957)과 개념, 형

태, 구조에 있어 유사하나(내부에 4개의 구조기둥이 PC 콘크리트 슬라브의 지붕을 지지하고, 벽체는 이중 유리 사이에 반투명 단열박판-폴리에스테르지-를 끼운 것이 다르다.) 보다 더 단순하고 투명하다.

무띠에의 '우리 마을의 성모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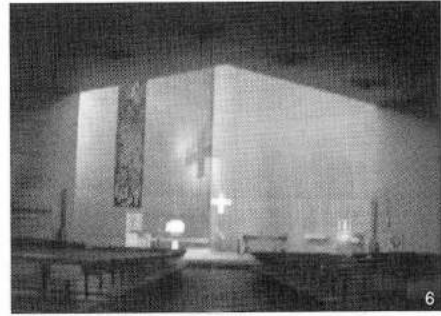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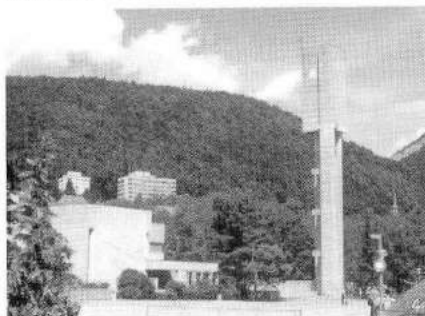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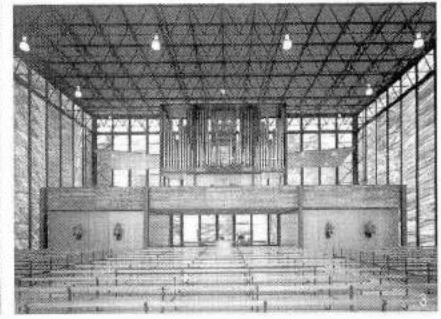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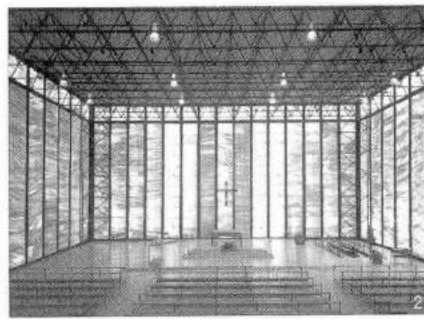
(Notre-Dame de la Prévôte, Moutier, 1963~1967)

스위스 주라(Jura) 산악 기슭에 자리한 무띠에의 성모성당은 성미술운동과 전례운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15년(1947~1962)이라는 오랜 준비 끝에 한창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사각형 입방체의 조합으로서 사제와 더불어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고무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징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형 평면구조의 대각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쪽 끝 입구에 세례당을, 다른 한쪽 끝에 제단영역을 배열하고 평일 소미사를 위한 측설경당(side chapel)과 기도실(상부는 성가대석)은 사각형 주공간의 양 귀통이에 부가되어 있으며, 한 측면에는 제의실이 제단 한 귀통이에서부터 부속 경당에 이르기까지 길게 배열되어 있다.

종탑은 입부러 본당 건물과 떨어져 대각선 주축의 연장선상에 독립하여 바깥세상을 향해 세운 하나의 표시로 서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체와 종탑 사이의 뜰은 의미 있는 내외부 공간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다. 두 개의 측면 입구가 세례당으로 유도하는데 이는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신자가 거쳐가야 하는 필요하고도 뜻깊은 정화와 회심과 갱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부공간의 천장 높이는 제단을 향해 점차 높아지며 바닥은 오히려 점차 내려져서 제단을 향한 시정각적인 구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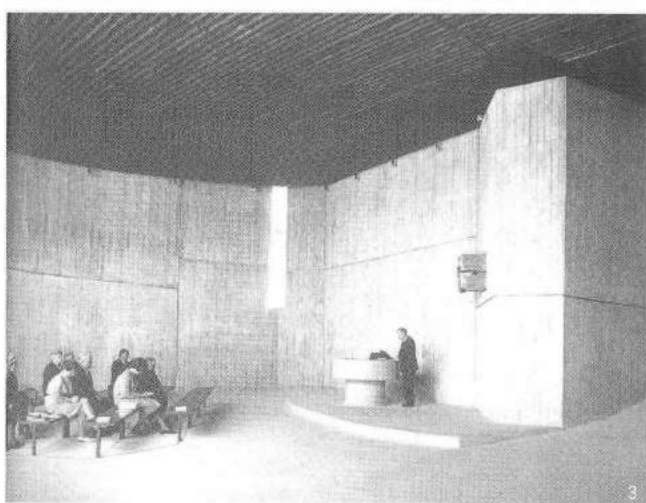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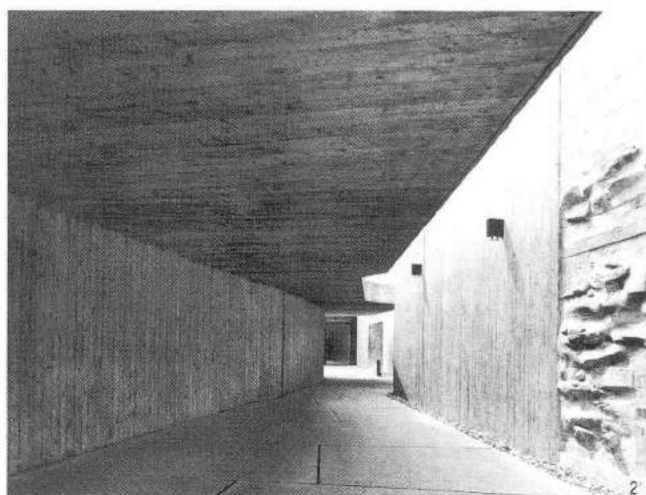
설계는 바젤의 건축사 헤르만 바우어(Hermann Bauer)이며 주



1. 메겐 비오 성당-전경 2. 메겐 비오 성당-내부 3. 메겐 비오 성당-내부(입구쪽) 4. 무띠에 성당-외관 5. 무띠에 성당-배치도 6. 무띠에 성당-내부



1. 다카우 화해 교회-입구 전경 2. 다카우 화해 교회-입구통로 3. 다카우 화해 교회-내부



건축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목재 및 유리이다. 프랑스의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가 스테인드글라스와 부활 십자가를, 조르즈 앙리 아담스(Georges Henri Adams)가 제대와 제단 타피스 트리틀, 그리고 피에리노 셀모니(Pierino Selmoni)가 성모상을 조각하였는데 모두가 비구상적이면서도 주변 자연과 건축(특히 노출 콘크리트 벽면)과 은은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뎌에 성당은 조형물 하나하나가 뛰어난 예술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체로서 드러나기 보다는 전체로서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었다. 이것은 “전례거행 자체가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공감에서 출발한 공동체와 사제, 건축사, 예술가 사이의 긴밀한 협동의 결과이다.

화해 교회당

(Church of Reconciliation, Dachau, 1966~1967)

뮌헨 근교 다카우는 1933년 3월 나치의 첫 수용소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주로 성직자를 포함한 정치범과 유태인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1965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추모기념의 장소가 되었으며 가톨릭 성당, 교회당, 시나고그 등 종교시설이 세워졌다. 이 교회당의 건립은 이곳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자들의 봉헌으로 추진되었다.

국가가 저지른 테러와 개인이 당한 고통을 상기시키고 화해에 봉헌하기 위한 교회당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 설계경기의 당선자 헬무트 스트라이플러(Helmut Striffler, 1927~)는 수용소의 사각형 형태에 대응하는 3차원의 장소를 디자인하였다. 지하로 들어간 건물은 바닥, 벽, 천장 모두 콘크리트구조가 그대로 노출·가감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직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바닥도 천장도 경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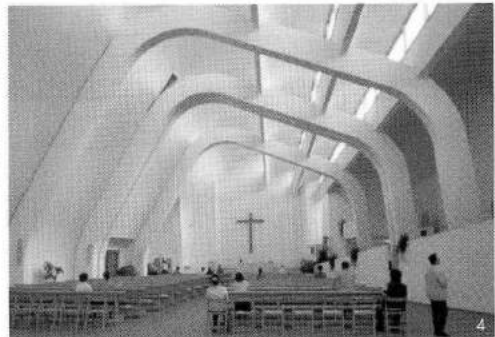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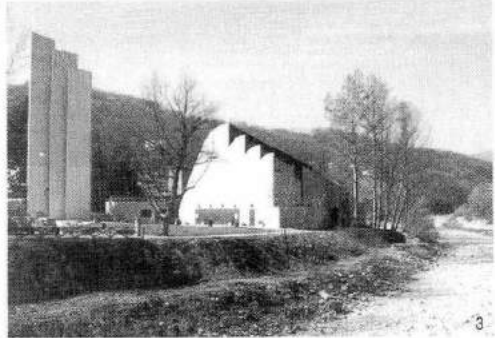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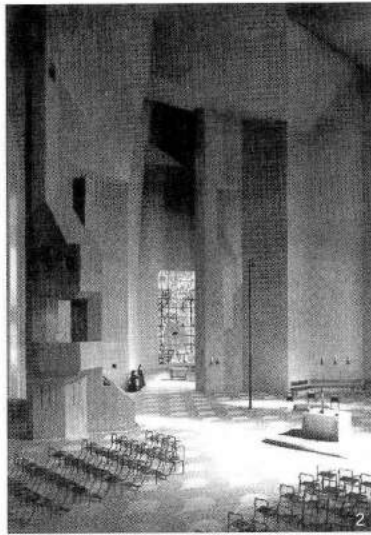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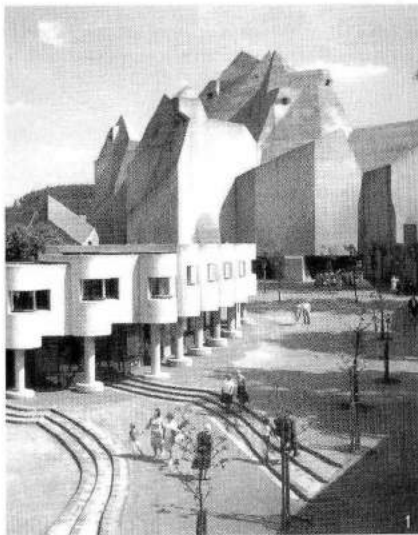
땅 속으로 가라앉은 화해의 교회는 수용소를 걸어서 통과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감지할 수 있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거친 상황에 대

응하는 피난의 고통, 살아있는 흔적이다. 건물에의 진입은 단이 진 완만한 경사로를 내려가면 어두운 통로를 거치게 되고 그 끝에 친밀한 내정을 만나게 된다. 지붕이 없는 내정을 가운데 두고 작은 도서관과 예배당이 서로 마주하여 유리벽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바닥이 거의 평평한 예배당은 목재 루버천장에 의해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도를 위한 친밀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갈밭으로 나가는 출구로 연결된 경사로이다. 입구 통로의 벽에는 죄수의 고통을 표현한 콘크리트 부조가 노출 콘크리트벽에 통합되어 있고, 도서관 입구에는 구원의 믿음을 상징하는 청동상(불가마의 유대인 세 청년, 다니엘 3장)이 놓여있다. 중정으로 열리는 철제 회전문에는 4개 국어로 다음과 같은 성서구절이 새겨져 있다. “피난처는 주님 날개 밑에 있다.”

마리아 평화의 모후 순례 성당

(Wallfahrtskirche Maria, Königin des Friedens, Velbert-Neviges, 1962~1968)

17세기에 기적의 성상·동판으로 조각된 기품있는 무염시대(無染始胎)성모상-이 네비게스에 옴으로써 이곳이 순례성지가 되었다.



1. 마리아 평화의 모후 순례성당-외관 2. 마리아 평화의 모후 순례 성당-내부 3.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외경
4.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내부

1960년에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후기 바로크 양식의 순례성당 위에 새로운 성당을 건축하기로 하여 두차례의 지명 현상을 통해 프링스(Frings) 추기경의 후원을 받았던 고틀리트 뵘(Gottfried Bhm, 1920~)의 안이 채택되었다. 약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쾰른교구에서는 쾰른 대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이다. (50×37m H:34m)

‘살아있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의 표현’인 순례의 경험은 미사뿐만 아니라 공동기도, 노래, 댄스, 연극, 영화, 페스티벌에 의해서도 고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례교회의 예배행위는 일반 교구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뵘은 성당으로 인도하는 단이진 일련의 피아자(piazza)를 계획하였다. 성당도 덮개를 씌운 하나의 피아자였는데 가로등 형식의 조명과 바닥의 포장도 똑같이 연속된다. 논리적으로 길의 끝은 제단이다. 여기서 그는 루돌프 슈바르츠가 품었던 옛 아이디어를 소생시킨 것이다.

이 덮개를 씌운 피아자(성당)는 대성당의 기묘한 변형인 동시에 거대한 조각적인 기념비가 되었다. 주공간과 주위의 채플들 그리고 2층 갤러리들을 비대칭의 불규칙한 지붕들이 덮고 있다. 이 잡색의 다양한 형태의 내부는 순례 축복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명계획과 방의 크기는 건축사 자신이 디자인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에 의해 강조된 전례 공간의 신비스러운 이해의 결과이다.

갤러리들은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갖는다. 서쪽의 길로부터 출입구는 첫 갤러리로 인도한다. 두 번째 갤러리는 계획된 종탑과 브릿지에 의해 연결되며, 병원 주변영역과의 연결을 제공할 것이다. 이 그룹핑에서 내부와 외부의 확실한 조화가 존재하며, 큰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불규칙한 지붕은 주변의 전통적인 지붕들과 우연히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친 방식으로도 설득력 있는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

(Chiesa di S. Maria Assunta, Riola, 1966~1978)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다. 리올라(Riola)는 이탈리아 중부도시 볼로냐(Bologna)의 남서쪽 20km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 약 3,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이탈리아 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아펜니노 산맥의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이다. 성당 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으로 철길이 나 있다.

1966년에 계획하여 1977년에 준공되었으나, 종탑은 14년 후인 1993년에 설치되었다. 종탑을 제외하면 외관은 어디에도 교회라는 이미지가 없다. (광장 입구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을 표시하는 대리석 표식을 제외하면) 오히려 단순한 공장이나 창고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곳은 하나의 종교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성당 앞 광장과 함께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이기도 하고 유아원이기도 하며 양로원이기도 하다. 때로는 콘서트홀도 된다.

성당의 평면은 장방형을 변형한 사다리꼴이나 좌우 대칭이 아니며, 제단 쪽을 향하여 투시도 기법으로 내부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제단 우측에 몇 단 낮은 세례당과 성가대석 갤러리가 부가되어 있고 성당 좌측에 사제관과 회합실 등이 별도로 연결되어 있다. 일체의 장식 없이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벽에서부터 기둥, 천장이 흰색 단일톤으로 되어 있다. 공장 채광창 같은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고 부드러운 빛에 의해 내부공간은 빛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준다. 제단을 향해 조금씩 수축되는 6개의 PC 콘크리트 기둥아치 보가 주 구조체인데 50톤의 무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고 심지어 심포니의 리듬을 전해주기도 한다.

단일톤의 순수한 유기적인 형태는 모더니즘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주변자연과 사회와 공명하고 있다. ■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1회 이사회

2007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본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관한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회관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승인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실무위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 준회원 가입비 결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건,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등록에 관한 건, 건축사 교육실시에 관한 건, 회관지분 관련 서울건축사회 공증 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관한 건
 - 차입금액 및 재원 등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협회중장기 재정자립 및 상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따른 세무 운영방안과 협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세무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건축사등록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 등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동 사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건축문화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서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문안은 담당임원 4인이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함.
- 제2호의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회관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한국건축산업대전 실무위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실무위원 활동비를 2006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함.
- 제6호의안: 준회원 가입비 결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연회비: 60,000원/년
 - ▷가입비: 500,000원(신설)

▲협의사항

- 제1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정관 개정(안)중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7조(회원) 제2항 제2호
 - 명예회원: 저명한 건축사 → 국내외 저명한 건축사
 - ▷부칙 제4조(건축사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 필요한 경우 초회에 한하여 → 필요한 경우
- 제2호: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등록에 관한 건
 -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의 개편에 대비하여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등록·관리하기로 함.
 - ▷등록기간: 2007. 3. 1 ~ 4. 30(2개월)
 - ▷등록대상: 전국 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 제3호: 건축사 교육실시에 관한 건
 - 건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일정과 예산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의결하기로 함.
 - ▷일시: 2007년 2월 초순경
 - ▷장소: 본협회 대강당
 - ▷교육과목
 - 친환경건축물 성능평가와 설계기술
 - 초고층건축물 디자인과 설계기술
- 제4호: 회관지분 관련 서울건축사회 공증 요청에 관한 건
 - 공증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약정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1회 임시이사회

2007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 본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예산 일시차입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예산 일시차입 사용 승인의 건
 - 전국건축사 총 결기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아래와 같이 일시 차입하여 집행하기로 의결함.
 -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5억원중 3억원을 차입하여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잔여 2억원은 제41회 정기총회 승인 후 집행
 - ▷ 예산조치 : 임대보증금 수입에서 일시차입 후 제41회 정기총회 승인 후 상환
 - ▷ 집행방법, 시위 등과 신문광고 시기, 문안 등 집회와 실행계획 전반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

■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건축사 등록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전국건축사 총 결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안에 관한 건
 -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차기 이사회(2/6)에서 심의·확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 오늘 논의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

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등록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건축사 등록원」설립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하고, 동 사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설립 추진위원회는 차기 집행부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하기로 함.
- 제4호 : 「전국건축사 총 결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 총 결기대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동 행사에서 필요한 예산 5억원을 기금적립금에 집행하는 데에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모두가 공동책임을 질 것을 서약함.

위원회 회의

■ 제1회 회관건립위원회

제1회 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감리자가 제출한 회관공사 정산내역 검토보고서에 대해 김영수 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다음 위원회 보고 후 시공자와 세부 협의를 진행기로 협의함.
- 회관 건설백서 발간을 위해 신축회관 건설지 초안 검토와 건설백서의 목차 구성 및 목록별 검토위원의 선임 업무를 이규홍 위원에게 위임기로 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회관 추가공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별도공사를 진행기로 협의함.
 - 추가공사 항목

▷ 지하4, 5층 복도내 창고용 칸막이 및 에어컨 신설

▷ 지하3층 창고내 사무실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창호 및 에어컨 신설

▷ 지하2층 MDF실내 신부대기실로의 활용을 위한 칸막이 및 에어컨 신설

▷ 지상1층 국제회의실 진입복도내 출입문 신설

▷ 회관 전면 C.I용 외부조명기구 신설

- 외부진입마당 테셀조경 및 남측전면창호 안전난간 보완공사는 공사예산확보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검토기로 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와 세부 협의를 진행기로 협의함.
- 지상1층 국제회의실 북측 외부 조경공간에 대한 장마철 우수처리에 대비하여 설계자에게 세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추가공사에 반영기로 협의함.
- 지하층 공용부에 신설 예정인 사용실은 회관 임차인들과의 임대계약 등을 고려하여 창고 및 기사대기실 등 공용용도로만 사용기로 협의함.
- 회관 정산내역 및 건축백서 검토위원회 별도 검토비용을 지급기로 협의함.

■ 제2회 회관건립위원회

제2회 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회관공사 정산내역에 대해 김영수 위원의 검토내역금액 [157,216천원(부가세포함)삭감]으로 시공자에게 통지기로 협의함.
 - 계약금액(2차변경) : 10,336,700천원(부가세포함)
 - ▷ 시공자 제시액 : 10,482,700천원(계약금액 대비 146,000천원 증액)
 - ▷ 본협회 검토액 : 10,325,483천원(계약금액 대비 11,217천원 감액)
- 회관 건축백서 발간을 위해 이규홍 위원이 구성한 목차별 업무역할에 따라

분야별 해당 위원이 원고 초안을 분담·작성키로 하고, 이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키로 협의함.

- 시공자와의 정산내역 확정 및 준공검사를 끝으로 회관건립위원회의 업무를 종료하고, 이후 위원회에서는 회관 건축백서 발간업무를 진행키로 협의함.
- 현재 신축회관내 설치된 조경식재가 법적 조경수량만으로 설계·시공되어 있어 건축사회관에 걸맞는 등급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파고라 등)의 확보를 위해 '07. 3월경 조경보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30,000천원에서 60,000천원으로 증액키로 협의함.
- 회관 국제회의실 용도에 걸맞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용 데이터보드 시스템을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키로 협의함.
- 외부진입마당 레벨조정 및 우측 전면창 호면 안전난간 설치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회관공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협의를 진행키로 함.

■ 제3회 회관건립위원회

제3회 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건설지 검토에 관한 건, 회관 건축백서 발간에 관한 건, 회관신축공사 정산에 관한 건, 회관 준공식(머릿돌) 설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회관 건설지 검토에 관한 건
 - 설계자로부터 제출된 회관 건설지 초안에 대해 김순명 위원장과 이규홍 위원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 승인후 유진건축에 통보키로 협의함.
- 제2호 : 회관 건축백서 발간에 관한 건
 - 건축백서 목차구성(안)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편집업무를 진행키로 협의함.
 - 건축백서 발간일정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이사회 승인후 진행키로 협의함.

▷발간 일정 : '07. 2. 9 ~ 6. 30
(약 5개월) 이내

▷발간 부수 : 100 ~ 150부
(약 1,000페이지)

▷발간 예산 : 약 4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제3호 : 회관신축공사 정산에 관한 건
 - 회관신축공사 정산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내 용	금액
①편집 및 인쇄비	150부(1,000P) 기준	30,000,000
②항공사진 촬영비	모형촬영기 사용(4~5컷)	1,500,000
③원고료	A4용지(원고지8매) 500P 기준 (원고지 1매기준:2,500원)	10,000,000
④편집 회의비	편집위원 회의참석비 (주1회 × 5개월= 약 20회)	3,500,000
계		45,000,000

이 검토·확정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토록 집행부에 건의키로 협의함.

▷검토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①계약내용			②시공자 정산청구액	③위원회 검토액	증 감	
	계약액	기성지급	잔액			①대비②	②대비③
1차	10,336,700	8,974,300	1,362,400	1,508,400	1,351,183	+146,000	-157,217
2차				1,386,614	1,369,220	+24,214	-17,394

※ 1차 위원회 검토액 : 계약금액 대비 11,217천원 감액
 ⇒ 시공자 1차 정산청구액 대비 157,217천원 감액
 ※ 2차 위원회 검토액 : 계약금액 대비 6,820천원 증액
 ⇒ 시공자 2차 정산청구액 대비 17,394천원 감액
 ※ 1차 위원회 검토액 대비 시공자 2차 정산청구액 : 35,431천원 증액

▷세부내용

(단위: 원)

시공자 증액요청			위원회 검토	
구분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금속공사	복측계단 AL라파이프 재료비	5,200,000	기발주사항으로 고철비(약 200,000원) 공제후 인정	5,000,000
도장공사	주계단실내 무늬코트 도장	9,476,000	시공자가 무상 시공키로 위원회와 사전협의 항목	전액삭감
설비공사	지하층 컴팩트탱크탱크 단가조정	3,100,000	위원회, 감리자 검토	전액삭감
전기공사	전등 수량 조정	1,586,000	위원회, 감리자 검토	전액삭감
기타공사	공공하수관개량공사비 50%	10,000,000	사전 요청항목으로 인정	10,000,000
계	(제세비/부가세 포함)	35,431,000	(제세비/부가세 포함)	17,394,000

- 회관 준공검사는 '06. 12.28일 시행된 사전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의 검수를 끝으로 종결키로 협의함.

- 제 4 호 : 회관 준공식(머릿돌) 설치에 관한 건

- 신축회관 머릿돌 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디자인 및 설치위치의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협의함.

▷머릿돌 시안

머릿돌	
• 사업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신축 • 사업규모 : 지하5층, 지상7층 (연면적 11,574.32㎡) • 건축허가일 : 2003년 3월 31일 • 사용승인일 : 2006년 12월 8일 • 사업주체 : 대한건축사협회 • 설계자 : (주)유진인테리어날 종합건축사사무소 • 감리자 : (주)유진인테리어날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남흥건설(주) • 인테리어 : (주)우솔제디자인 • 협찬업체 : 삼성전자(주) : (주)LG화학 : 우성세라믹스공업(주) : (주)중앙후로아케미칼 : (주)코리아파킹시스템 • 회관건립위원회 : ▶1기 (2003.7 - 2004.7) : 위 원 장 : 이세훈 : 부위원장 : 김영덕, 송수규	회장 이철호 대표 오근석· 문호 대표 오근석 대표 박명우 대표 박찬우 대표 윤종용 대표 김반석 대표 이응원 표한원석 대표 임봉철

· 위 원 : 강신량, 강성익, 권오웅, 김규성, 박영순, 방인대, 신건영, 이규홍, 이길용, 이상림, 이재립, 이종정, 이창율, 정명욱, 조현균

▶ 2기 (2004.7 - 2005.3)

· 위 원 장 : 신문섭

· 위 원 : 김성탁, 김인하, 문숙경, 박찬원, 박희중, 이규홍, 이종정, 이찬영, 최선규

▶ 3기 (2005.3 - 2006.3)

· 담당이사 : 이영순, 최영집

· 위 원 장 : 정정지

· 위 원 : 김순명, 김영수, 이규홍, 이무열, 최선규, 홍문유

▶ 4기 (2006.3 - 2007.3)

· 담당이사 : 박무길

· 위 원 장 : 김순명

· 위 원 : 김영수, 이규홍, 이무열, 최선규

▲ 기타사항

· 지상1층 야외마당내 우수관 설치의 건

- 회관 지상1층 야외마당내 설치된 우수관(각 1개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추가 우수관을 설치키로 하고 설계자에게 소요내역을 제출토록 협의함.

· 회관 추가예산 건의의 건

- 추후 신축회관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사용을 위해 추가공사 항목 및 예산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이사회 승인후 집행기로 협의함.

▷ 추가 예산항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추가 항목	예산
① 회관 식재추가 및 조정시설 보완	60,000,000
② 국제회의실 교육용 데이터보드 설치	25,000,000
③ 국제회의실 좌우측 야외마당내 우수관 추가	4,500,000
④ 주출입 진입마당 레벨보완 조정	10,000,000
⑤ 전면 창호내 안전난간 추가	10,000,000
⑥ 냉난방기 관리시스템 설치	3,500,000
⑦ 준공석(머릿돌) 설치	5,000,000
계	118,000,000

· 회관 설계비 및 감리비 정산의 건

- 설계 및 감리비 정산에 대해 설계비 잔액은 전액 지급키로 하고, 회관 공기연장에 따른 유진건축의 추가감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회관 지표면조정

▷ 검토내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계약금액	잔 금	유진건축정산청구액	위원회 검토액	비 고
	설계용역비	310,2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지표면조정설계비	55,000,000	0	0	0	
감리용역비	209,000,000	26,246,000	26,246,000	26,246,000	
추가감리비 (공기연장)			42,251,000 (약 3개월연장)	11,000,000 (약 1개월연장)	2개월삭감
계			107,597,000	76,346,000	-31,251,000
* 감리용역 계약기간 : '05. 2.16일부터 '06. 8.15일까지(18개월) * 감리용역 종료기간 : '06.11.20일(약 3개월 연장) * 추가감리비 지급검토액 : 약 11,000,000원 ※ 월 감리비 지출액(토목감리 제외) : 11,764,500원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책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토록 집행부에 건의키로 협의함.

· 회관 공사관련 유공자 포상 건의의 건

- 회관공사 관련 유공자에 대해 포상토록 집행부에 건의키로 협의함.

▷ 포상 대상자

· 남흥건설 현장대리인(황정신)
· 본 협회 회관 담당직원

■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사무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선거 사무추진에 관한 건

- 임원 선거사무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 후보자 피선거권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해당 시 · 도 건축사회의 문서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에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함.

▷ 후보자 등록서류 검수에 관한 사항

·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만, 선거공보인쇄물 원고를 수정 · 보완토록 하여 2007. 2. 5일 14시까지 인쇄물 500매를 제출받는 것으로 후보자간담회시 해당사항을 전달하기로 함.

▷ 후보자 기호추첨에 관한 사항

· 후보자 기호는 먼저 기호추첨순서를 정하기 위한 제비뽑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순번에 따라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기호를 결정하기로 함.

※ 후보자 추첨결과

- 회장후보 : 기호1번 최영집, 기호2번 한명수
- 감사후보 : 기호1번 이영호, 기호2번 이종정, 기호3번 송명문

▷ 투표용지 제작에 관한 사항

· 원안과 같이 제작토록 함.

▷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원안과 같이 2007. 2. 1 본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키로 함.

▷ 후보자 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선거 및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서약서를 징구받기로 함.

▲ 기타사항

· 제2회('07. 1.23) 회의에서 대의원에게 발송키로 한 제26대 회장선거이후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의 개정대비표는 후보자별 선거공보인쇄물과 함께 발송키로 함.

■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심사에 관한 건,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 방

법 및 관리, APEC 등록건축사 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심사에 관한 건

- 심사방법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자

- 건축사 자격, 학력(학사 학위),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이력은 증빙서류의 첨부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 참여 프로젝트의 경우 별지3호 서식인 참여프로젝트 개요의 첨부유무확인시 전경사진, 배치도, 평면도 중 하나만을 첨부하였을 경우도 참여프로젝트 개요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APEC 등록건축사 등록기준 예비심사조서를 가지고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로 함.
- ☞ 참여프로젝트에 대한 인정·불인정 판단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록신청자

-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록신청자에게 1회에 한하여 보완요구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자의 처리방안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함.
-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이력이 7년 미만인 등록신청자
- 참여 프로젝트 참여기간 합이 7년 미만인 등록신청자
- 적절한 복잡성을 수반한 참여 프로젝트 참여기간 합이 3년 미만인 등록신청자.

▷등록신청서 입력처리 불가 건

- 영문등록신청서, 증빙서류 미제출건과 등록신청서 작성미비 건은 등록신청자에게 1회에 한하

여 보완요구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자의 처리방안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함.

※ 김지덕 부위원장, 신춘규 간사, 이필훈 위원이 위와같이 협의된 사항으로 1차 전산입력이 완료된 서류를 재검토하여 보완요구가 필요한 서류는 2월중 해당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기로 함.

- 심사일정 변경

▷정밀한 심사와 등록신청자에게 1회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전산처리 및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된 심사일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APEC 등록건축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산입력기간	1.15 ~ 1.31	2007.2.1 ~ 2.28	보완요구기간 2주
심사일정	2007.1.2 ~ 2.28	2007.1.2 ~ 3.31	1개월 연장
등록예정자 발표	2007.3.2	2007. 4월 예정	

- 결정사항

▷등록신청자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직전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일 경우 혹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산정된 ①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이력 ② 참여 프로젝트 참여기간의 합 ③ 적절한 복잡성을 수반한 참여 프로젝트 참여기간의 합에서 각각 전문대학 졸업인 경우 2년,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4년을 제외하기로 함.

▷건축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등록신청자는 면접을 통하여 등록가능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제2호 :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 방법 및 관리

- 오늘 논의된 계속교육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에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APEC 등록건축사 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2007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APEC 등록건축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상반기 세미나는 APEC 등록증 및 ID카드수여식과 병행하기로 함.

- 등록증에 씰(SEAL)을 넣기로 하고, 종류 및 제작비용을 사무처에서 조사하여 신춘규 간사와 협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위원들 각자가 사업예산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사무처에 전달하기로 함.

- 앞으로 신청인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2009년도까지의 사업예산을 작성하기로 하고 해당 예산은 신춘규 간사가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ID 카드 및 등록증의 디자인은 호주가 제안한 (안)으로 변경하기로 함.

- 차기회의는 '07년 2월 26일 07:30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

■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본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기금운영 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기금운영 등에 관한 건
- 「(가칭) 법제도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전용 사용의 건

▷법제도개선사업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회관 임대사업수입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하기로 함.

- 「대형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특혜저지 전국건축사 결기대회 사업비」 및 「등록원 설립자금 출자금」의 기금 사용의 건

▷협회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2007년 1월 12일 발표됨에 따라 일주일 뒤인 19일 14시부터 16시까지 약 2시간동안 서초1동에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 교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총 292명의 각 지역 합격자를 대표해 안종식(서울), 이철식(부산), 김지은(대구), 정용범(인천), 박상군(광주), 송치환(대전), 강명수(울산), 곽종구(경기), 박재호(강원), 박상천(충북), 김한아(충남), 이상구(전북), 정현구(전남), 허영재(경북), 권성민(경남), 김창성(제주) 합격자가 이철호 회장으로 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수여받았으며, 합격자들은 이철호 회장의 축사에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를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07 홈텍스에 우리협회 홍보전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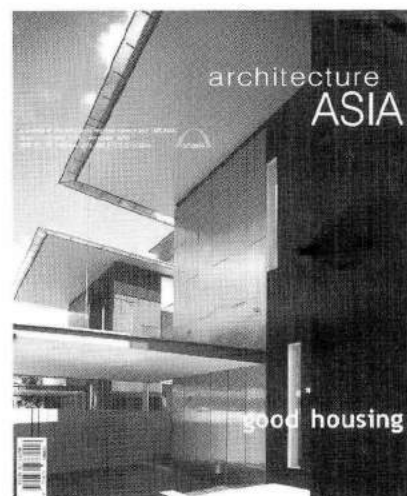
우리협회 후원 하에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홈텍스 2007에 건축사협회 홍보전시관을 열어 참가업체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협회와 건축사를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는 대국민 무료건축상담과 홍보동영상 상영, 각종 홍보인쇄물(건축문화신문, '건축사' 지) 전시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 전시회 참가업체들에게 건축사, 건축사 협회를 널리 홍보했다. 특히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전문산업전시회인 한국건축산업대전(10월 2일~7일)을 홍보 CF와 브로셔를 상영·배부하며 건축자재 및 관련업체에 널리 홍보했다.



2007년도 『Architecture Asia』작품 제출 안내



우리 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서는

『Architecture Asia』라는 건축전문잡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건축관련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주제별로 게재하여 아시아 건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발간되는 이 책자에 작품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주제와 작품 제출요강 등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분기별 주제 및 작품 제출기한

구 분	주 제	제출마감
제1호 (2007년 3월호)	Resorts & Leisure Facilities (위락시설)	'07. 1. 28
제2호 (2007년 6월호)	Hotel and Restaurants (호텔과 음식점)	'07. 4. 15
제3호 (2007년 9월호)	Residential Building (주거빌딩)	'07. 6. 15
제4호 (2007년 12월호)	Showrooms, Boutiques, Retail Outlets (전시실, 부띠끄, 소매점)	'07. 9. 15

• 작품 제출요강

- Text

- ① 작품에 대한 설명은 분석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 ② 텍스트는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더 좋음.
- ③ 텍스트는 철자, 문법, 내용 등 필히 교정해서 제출바람.
- ④ 텍스트는 영문으로 작성.
- ⑤ 단어수 1,000 내지 2,000자로 작성.
- ⑥ 텍스트는 Microsoft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작품 정보 : 작품 정보는 아래의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① 작품 위치(주소 포함)
- ② 작품 부지(면적 표시-미터법, 평방미터 또는 헥타르)
- ③ 건축주
- ④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명칭 표기)
- ⑤ 프로젝트 팀(건축사사무소 표기, 각 부문별로 참여 건축사 포함)
- ⑥ 구조 기술자
(Structural Engineer)
- ⑦ 기계 설비 기술자(Mechanical & Electrical Engineer)

- ⑧ 견적사(Quantity Surveyor)
- ⑨ 조경사(Landscape Architect)
- ⑩ 조명 기술자(Light Designer)
- ⑪ 그외 컨설턴트
- ⑫ 사진 촬영자(모든 이미지에 표기)
- ⑬ 텍스트 작성자 이름
(작성/검토/평문)

- 도면

- ① 모든 도면은 흑백의 선으로 표기
- ② 건축설계도면은 출판이 가능하도록 준비
- ③ 도면에는 오직 선과 숫자로만 표기
- ④ 도면은 지정된 것 외에 표시 불가
- ⑤ 각 도면은 아라비아 숫자(1, 2, 3 ...)로 표기
- ⑥ 각 도면은 반드시 축척과 방향을 표기
- ⑦ 각 도면은 각각 A4용지에 작성
(hard copy 및 스캔)
- ⑧ 스캔 도면은 해상도 300dpi이상, 흑백, JPG 파일, A4사이즈로 작성
- ⑨ 도면은 반드시 Site Plan 및 Location Plan을 포함(Scale 제외)

- 이미지 (사진 등)

- ① 사진은 간략한 설명(무엇이고, 어떤 광경인지)을 첨부하여 제출.
- ② 이미지는 제대로 된 색상과 질, 그리고 인화가 가능하여야 함.
- ③ 해상도 300 dpi 이상, 칼라, JPG 파일, A4사이즈로 제출.
- ④ 프로젝트 이미지는 20매 이내로 제출(곧바로 인화가 가능하도록)
- ⑤ 이미지에는 사진 촬영자의 성명을 표기

- 제출형식

- ① 자료는 CD에 저장하여 제출(DVD 또는 3+ 디스켓은 안됨)
- ② CD와 함께 텍스트 및 도면, 사진은 A4사이즈로 제출(A3는 안됨)
- ③ 텍스트는 적절하게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
-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제출 요망

• 참고사항

- 주관사의 편집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출의사를 사전에 통보 요망

- 발송기간을 감안하여 마감 10일전까지는 본협회에 자료송부 요망

• 연락처 및 보낼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 한건축사협회 9층 기획팀
(우편번호 137-877)

- 국제위원회 최재희 위원
(전화: 766~7779, 3675~1777)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팀 이준석
(전화: 581~5711-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8-6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2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6-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6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3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8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광덕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8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53-663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동강릉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673-018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8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영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6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5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886-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신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6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9-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8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8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83-1010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4차) 공모

현재 정부에서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업경쟁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총 51개(세부과제 1,473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개혁과제의 추가적인 발굴 보안을 통하여 상과가 확산되도록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2007년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한다.

- 공모기간 : 2007. 1. 16(화)~2. 28(수)
- 응모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 접수방법 : ① 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③ 방문접수 및 ④ 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제안양식 :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
- 발표 : 2007년 4월(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및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 우수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려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문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02-2100-8756, www.rtrf.go.kr

제3회 정림학생건축상 공모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과 정림문화재단에서는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하여(Globalizing Tradition of Korean

Architecture)' 라는 주제로 '제3회 정림학생건축상'을 개최한다.

한국성이란 불변의 성질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탐색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지금 건축에서,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영역에서 한국성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이번 3회 정림학생건축상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현존하는 도시의 한 부분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성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주문하고자 한다.

- 제3회 주제 : 도시의 일상성
 - 대상지역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영역
 - 심사위원 : 정기용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생 (건축이외의 그 어떤 분야 사람과도 협업·협동가능)
 - 참가접수 : 2007년 6월 25 ~ 7월 6일
 - 참가 접수비 : 4만원
 - 1차 작품제출 : 2007년 7월 24일까지
 - 2차공개심사 : 2007년 8월 20, 21일
- 문의 : 정림문화재단사무국
02-708-8860~1,
www.junglimfoundation.org

2007 하늘바람땅에너지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가운데 유일하게 2007년 산업자원부 정책전시회로 선정된 「2007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 Solar City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는 4월 19일(목)부터 4월 21일(토)까지 3일간 개최된다. 특히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한층 내실 있는 전시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시면적 : 6,048㎡
- 전시규모 : 총 100개사 200부스
- 전시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

소·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해양, 가스화복합기술, 폐기물, 친환경 및 자원재활용, 고효율 및 에너지절약

- 부대행사
 - 태양광사업단 워크숍
 -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워크숍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대한전기학회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 16개 지자체 기후변화협약관련 세미나
 -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설명회
 -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현장투어
 - 참가업체 신제품·신기술 세미나
 - 국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경진대회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승 이벤트
- 문의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팀
062-611-2212, www.sweet.or.kr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축

미국 AIA 주택 디자인 트렌드 조사

미국 AIA는 최근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단지계획에서 교통과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중시되고 있다. 공공 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자전거로나 보행로와 같은 대안적 교통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름 값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상업시설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 케어 및 편의점 등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통합적 시설의 사용, 거주 밀도의 증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이외의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계획에서 고밀도를 통한 다양한 활동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오픈 스페이스가 강조되고 있다. 내부 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밀도가 증가에 대응하여 보행 산책로, 운동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파이버 시멘트, 돌, 타일 등 내구성이 강하고 좋은 외장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외부 조명, 창문의 수와 크기, 전면과 측면 포치, 큰 출입구 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에 면한 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리와 소통을 위한 전통적 방식이라 할 수 있는 포치 등을 이용한 지역사회와 주택 설계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AIA의 주택 디자인 경향 조사는 밝히고 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건축사들은 점진적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거 디자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문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규 저가형 주택 시장이 조금 확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주택 건설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주택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부업과 욕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추가 및 개보수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UIA, 러시아 건축사들의 세인트 피터즈버그 가스프롬 도시 타워 건설 반대 지지

1703년 세인트 피터즈버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이 도시는 건축적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에 지나친 개발이 문제시 되고 있다. OAO 가스프롬 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회사로, 이 도시에 가장 호화로운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 고층 건물은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의 2.5배인 396m 규모 파배기 형상을 한 유리 건물로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망치고 있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 도시는 비교적 저층의 주거와 상업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몇몇 교회와 기념 탐만이 일정한 높이의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솟아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2006년 11월 27일 유리 제도프스키 러시아 건축 유니온(UAR, Union of Architects of Russia)은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역사지구에서 고층의 대규모 행정 및 비즈니스 건물 시공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UIA가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러시아의 건축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러시아의 가스프롬 시티 사는 이 복합 건물의 국제 설계 공모를 시작하였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도시에서는 48m가 넘는 건물의 건설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진행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UIA 회의에서 채택된 두 개의 문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 전문가로서의 국제 표준에 관한 UIA의 권고 기준

-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국제 윤리 규정

UIA 의장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푸틴에게 서한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UIA는 현재 가스프롬의 공모전 주최 기관이 UIA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현재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러시아 건축사 유니온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UIA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UIA는 유네스코 국제 문화유

산 센터의 소장 프란시스토 반다린과 접촉을 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만남은 2007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같은 기간 중에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역사적 도시 경관에 대한 지역 세미나가 국제 문화유산 센터에 의하여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경 뮤지엄 개관



새로 지어진 동경 뮤지엄 외관

약 \$3억의 예산과 30년간의 공사를 통하여 일본의 새로운 예술 뮤지엄이 동경에 개관하였다. 이 국립예술센터는 1970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도심 지역에 예술 뮤지엄과 갤러리의 역할로 지어졌다. 현재 방문객이 많은 모리 예술 박물관과 3월 말 개관 예정인 산트리 예술 뮤지엄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 건물은 키쇼 구로가와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큰 곡선의 물결 문양을 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길 건너편 아오야마 공원의 숲을 반영하고 있다. 우주 비행선의 다리와 같이 2개의 원뿔 모양의 구조물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영구 소장품이 없다. 이는 최근의 천문학적 예술품의 가치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전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12개의 전시 공간 중에서 2개만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른 공간들은 회원들의 작업을 위한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예술협회 회원을 위하여 임대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 지넷 카운티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문화유산센터 건립



새로 완공된 지넷 카운티의 환경문화유산센터

미국 조지아주의 지넷 카운티는 최근 환경 문화유산 센터(GEHC: Gwinnett Environmental & Heritage Center)를 완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센터를 설계할 건축사사무소를 전국적으로 물색하였다. 결과적으로 40마일 떨어진 애틀랜타 소재 로드, 에에크, 그리고 사젠티 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넷 카운티와 공공 교육 시스템, 그리고 조지아 대학, 그리고 지넷 환경문화센터 재단의 협력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를 한다. 고등학생들과 어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와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을 탐구한다. 또한 미래에 닥칠 수자원 관리의 문제를 알리고자 하고 있다.

이 건물은 \$1,600만의 예산으로 지어졌으며, 특별 목적세에 의하여 모금되었다. 이 센터를 위하여 비영리 재단인 지넷 환경 및 문화유산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교육과 전시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59,000 ft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역 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졌다. 이 건물은 물과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같은 크기의 건물에 비하여 75%의 물을 절약하고 35%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녹색건물 연합의 LEED 골드 인증을 목표로 세워졌다.

건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건물은 협곡 위에 지어졌으며,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 면적 40,000ft²의 건물 지붕 위에 조경이 되어 있다.
- 동서로 연결된 일련의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다.

- 노출 형식의 파인 트러스로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 8 피트 깊이의 외부 차양으로 태양 광선을 막아준다.
- 높은 위치의 창을 이용한 자연채광을 사용한다.
- 외부 온도가 적정할 경우 루버를 통한 신선한 공기의 유입 기능이 있다.
- 인근 지역의 화강암을 이용한 외부 벽면의 장식을 하고 있다.

수자원을 이용한 작은 폭포와 함께, 건물은 녹색 지붕을 설치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녹색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녹색 지붕은 일반 지붕보다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수에 대한 지붕에서의 낙수를 줄여주며, 정화된 물을 흘려보낸다. 열섬 효과를 막아주며, 곤충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가뭄에 저항이 강한 식물을 심은 결과 일단 안착이 된 후 관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건물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 학습 공간이 있으며, 외부 조경과 전시 공간, 뮤지엄과 같은 영구적 전시물과 임시 전시물이 있다. 관람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는 반 시클과 로리리가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설계를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학문 지식과 능력 커리큘럼의 요건에 맞도록 하였다. 주 층은 블루 플래닛이라고 불리는 오리엔테이션 센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방문객은 물의 형성과 순환 그리고 이 자원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H2O의 발견'이라는 방은 과학 전시를 한다. 학교의 현장 방문을 위한 실험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이며 순환 전시를 위한 공간, 도서관, 강의동, 멀티미디어 회의실, 연구 시설, 식당, 부엌, 행정 사무공간, 그리고 기프트숍이 있다.

아래층에는 3개의 교실이 있으며, 추가적 사무실, 창고와 기계실, 그리고 확장을 대비한 공간 등이 있다. 건물의 외부는 지역 조경의 특성을 살린 보도와 주차 공간이 있으며, 빗물이 흐르지 않고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경우를 대비하여 작은 습지를 만들어 지표면에서의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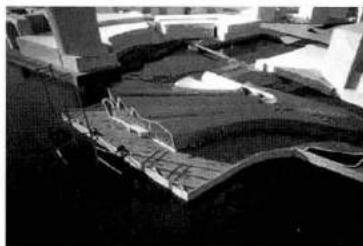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척추파열 협회 가족지원 센터 건물 개관



새로 개관한 스코틀랜드 척추파열 협회 가족지원 센터

최근 스코틀랜드 척추파열 협회의 새로운 가족지원센터 건물인 단 영 건물의 개관하였다. 새로운 센터의 설계자인 쿠퍼 크로머씨 또한 개관 행사의 참석에 초청 되었다. 이 새로운 건물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1세기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요구에 맞추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훈련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격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장비는 영국 전역의 전문가로부터 비디오 화상 장비를 통하여 의학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운송박물관 계획



계획된 스코틀랜드 운송 박물관

영국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강변에 €6천만 예산으로 현재 해변 뮤지엄 부지에 글래스고 운송 박물관으로 새로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건물의 이미지는 스코틀랜드에서 지어진 가장 상징적 이미지로 계획되었다. 혁신적인 단 스패의 디자인으로 자하 하디드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건축가, 디자이너, 주요 시공사가 뮤지엄의 계획을 검토할 것이며, 2009년 글래스고 항구에 개관될 예정이다. 계획에 대한 허가는 올 봄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의 운송 박물관은 약 1,300개의 전시회가 열리며, 새로운 뮤지엄이 들어설 경우 2배의 전시가 개최되도록 할 예정이다. 커다란 전시물로 100톤이 넘는 기관차로 남아프리카로부터 구입 예정이며, 작은 전시물로 버스표도 전시될 것이다.

프랭크 게리의 뉴 월드 심포지엄 설계

프랭크 게리의 새로운 세계 심포니 건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안은 '뮤직 박스'라고 불리고 있다. 어린이들의 뮤직 박스의 형태로 미술과 같이 건물이 열릴 수 있으며, 조각적이며, 큐비스트 영향에 의한 형태를 하고 있다. 건물의 외부는 매우 단순하며, 커다란 유리나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는 복잡하며, 약간 환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이 확장 계획은 새로운 지휘자 마이클 틸슨의 꿈이기도 하며, 이 건물에서 새로운 관객과 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오케스트라의 음악가인 87명의 아카데미 동료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설계의 핵심은 21세기에 걸맞는 오케스트라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실험적 음악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외부의 설계로부터 내부를 설계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뮤직 박스와 같이 이 건물은 내부 설계 후 외부를 설계하였다. 틸슨은 다양한 음악의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는 건물을 원하였으며, 음악과 건축 그리고 예술을 연결시키기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게리의 전형적인 작품과는 달리 이 건물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은 티타늄이나 다른 반짝이는 마감재가 아닌, 부드럽고 부식성이 강한 염분이 많은 대기와 급작스러운 돌풍이 있는 마에이 해변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위치에 걸맞게 유리나 흰색 회반죽 계획되었다. 107,000ft²의 규모와 \$1.5억의 예산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건물은 콘서트홀이 들어설 것이며,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거나 챔버 음악 그리고 작은 규모의 연주도 가능하게 계획되었다. 홀의 형태는 공간 내부를 움직여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음향가 야수히사 토요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연적 음향을 만들고자 하였다. 최대 700석 규모로 필요에 따라 공연 공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연 공간이 댄스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많은 벽들을 의도적으로 장식하지 않아 비디오 프로젝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CABE 2007년 상 시상

영국의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좋은 설계에 의한 건물과 공간에 대한 시상상을 통하여 2007년 설계의 표준을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CABE는 미래 지향적 생각과 시도가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미친 5인의 개인과 5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5개의 사기업에 시상상을 하였다. 올해의 상은 학교 디자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효율적 가르침과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즐기며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한 개인과 기관에 돌아갔다.

도시 디자인 상

건축사이자 도시계획가인 피터 캐소롭이 2006년 도시개발의 선구자를 위한 니콜스 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캔사스시의 개발업자 니콜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그는 1900년대 초반 영향력이 있는 기업가였다. 이번 수상은 캐소롭의 30년간에 걸친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건기 좋으며, 다양성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캐소롭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대지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의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역사회 계획을 수행하여 왔다. 그의 프로젝트로 시카고의 공공주택인 튜니스 해변

의 도심 개발, 이전 덴버 스타플레톤 공항을 혼합사용 커뮤니티로의 변환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1983년 그의 회사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세웠으며, 그 후 존 프레그노스와 같이 포틀랜드 오리건에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는 커뮤니티 기반 도시 디자인의 선구적 역할을 하여 왔다. 1993년에 새로운 어바니즘을 위한 의회(Congress for New Urbanism(CNU))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는 공공 정책과 개발에 있어 보다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단체이다. 이 조직은 지역, 도시, 그리고 블록 등 모든 레벨에서의 디자인과 개발에 적용하면 일련의 원칙들을 설정하였다. 그는 새로운 어바니즘의 조건으로 다양성과 통합성을 추구하여 왔다. 모든 인종과 배경, 수입, 나이, 가족 등 다양한 사람을 수용하고 통합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상점, 학교, 주택, 공원, 상가 등 모든 사용에 관하여 서로 섞이며, 걸을 수 있는 도시에서의 다양성과 보행성을 추구하였다.

캐스롭은 수세대 동안 지속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다양성, 인간적 스케일, 건물에 대한 복원과 보존, 그리고 지역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로텍 국제학교 ASID 학생 분과의 온라인 교육 심포지엄 개최

ASID(American Society of Interior Design) 로텍 학생 분과는 2007 온라인 교육 심포지엄을 주관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이메일과 채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 심포지엄은 2005년 4월 세계 디자인의 날에 맞추어 개최되었다.

그 당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7년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개최에 대한 기록이 충실히 남아 있어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올해 심포지엄 준비 팀들은 3개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팀으로 작업 하는 법을 배워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한 능력 중 하나이다.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으므로 24시간 내내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2007년 4월 27일에 개최될 것이며, 이 이벤트의 성공을 위하여 28일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할 것이며, 이 주제에 등록한 학생들과 토론을 벌일 것이다. 이 이벤트는 전 지구적 이벤트로 어떠한 대학의 실내 디자인 학생에게 열려 있다. 토론의 주제는 환경, 주거 및 상업 디자인과 관련한 것이다.

미국 MAK Center 23명 예술가 거주 창작 프로그램 초청

예술 및 건축을 위한 MAK 센터는 6개월 간 거주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로스앤젤레스로 국제적 예술가와 건축사를 초청하였다. 선들러가 설계한 매키 아파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맥 센터로부터 초청받은 예술가들은 로스앤젤레스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 프로젝트 전시회는 선들러 하우스에서 3월 9~11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술가 나인 버드, 건축가 알렉산더 도워스와 안케 프리먼드, 예술가 줄리언 딘, 그리고 건축사 마티아스 텔 캄포와 산드라 매닝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선들러(1887~1953)는 비엔나에서 탄생하였으며, 건축사 오토 바그너와 아돌프 루즈 밑에서 수학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1922년에 독립을 하였다. 그는 킹 로드 하우스를 설계하였다.

선들러의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에 대한 탐구는, 베를린 기반 예술가 나인 버드가 매키 아파트에 대한 진흥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그녀 작업에 대한 지속적 주제로, 파괴와 이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버드는 특수 효과 스튜디오와 협력을 하여 강한 지진의 힘에 대응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파괴된 구조물은 대규모 사진의 첫 주제가 될 것이며, 씨앗들을 위한 자양분 흙이 될 것이다. 이는 선들러가 내부와 외부의 의미를 추구하고 확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 의하여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케 프리먼드와 알렉스 도와샤크 프로젝트는 '차 없는 로스앤젤레스'로 정하였다. 그들은 톰 앤더슨의 다큐멘터리 "Los Angeles Plays Itself"(2003)에 영감을 얻었다. 이들 건축사는 도시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도시의 신화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의 실험은 도심을 걸어 다니는 데 익숙한 비엔나로부터의 두 명의 거주자를 이식시켜, 개인적 교통수단이 없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교통과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통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비엔나의 건축사 마티스 텔 캄포와 산드라 매닝거의 스파 그룹은 디지털 생산을 통한 공간적 기술적 형태적 혁신을 탐구하고자 하고 있다. 항공 및 자동차 개발의 비옥한 지역이자 영화산업의 근거지의 이점을 살리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의학분야-생물학적 과정을 디지털로 변환하는-를 건축적으로 응용할 예정이다. 그들은 이 선들러 하우스에서 건축 구성적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변화, 앓고 기대는 것, 그리고 개구부 등에 관한 디자인 이슈를 다루고자 하고 있다.

'New, Old, Green' 전시회

핀란드 건축 뮤지엄(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WWW.MFA.FI)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New, Old, Green'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건축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루고 있다. 문장, 사진, 공간과 구조의 형식으로 정보와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생각이 전문가의 관점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전시물과 조경과 지역사회, 개별 건물, 인테리어, 그리고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시를 하였다. 3차원의 전시물 안에 들어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다양하고 다른 관점과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한 주장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짧은 설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

신의 견해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전시회와 더불어 워크숍 열렸으며, 웹사이트와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준비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고등학생 수준의 자신의 방 꾸미기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경험과 함께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방을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독일 쾰른의 건축 코드 행사

독일 쾰른의 건축 코드 행사가 1월 16일에 서부터 18일 사이에 열렸다. 이 행사는 건축과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시너지를 얻기 위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건축과 문화가 두 개의 중요한 핵심적 주제이다. 유명 건축사와 예술과 문화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쾰른의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극, 음악 그리고 다제간의 접근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창의성의 가능성을 논의 하게 된다. 건축 저널지의 저널리스트 덕 메이호퍼가 이들의 대화를 이끌었다.

건축 다이제스트 홈 디자인 쇼 2007

제 6회 건축 다이제스트 홈 디자인 쇼가 2007년 3월 8~11일 사이에 계획되었다. 이 쇼는 뉴욕타임즈와 머천다이즈 마트 부동산사가 협찬하였으며, 4일간의 일정으로 300여개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설계자들이 관련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최신 주택 장식, 액세서리, 부엌가구, 욕실제품, 고가구, 바닥재, 가전제품, 조명기구 등을 볼 수 있다. 올해의 쇼에는 일대일 디자이너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또한 디자인 전시, 부엌 전시, 도서 사인회, 특별 디자인 이벤트, 세미나 등이 실내 디자인과 최신 경향에 관하여 있을 예정이다.

전원생활을 위한 주문주택 전시

현대 주거 커뮤니티에서 주거에 대한 비전인 '미국의 꿈'에 관한 '스카이라인 모던'

전시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다. 건축사무소회사 마물 라지너사와 부동산 개발자 데이비드 디슨에 의하여 도시 외곽 전원지역에 한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이다. 마물 라지너사의 프리페브 주택에 의한 이 프로젝트는 수상을 받은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요수하 트리 지역에 지속가능한 현대 주택 커뮤니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을 추구하며, 외부공간을 즐기는 생활방식과 현대 건축을 선호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턴키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프리페브 전원주택에 관한 '스카이라인 모던' 전시

지속가능한 스틸 하우스 국제 공모전

리빙 스틸은 주거 분야에서 강재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로, 작년에 이어 올해 제 2회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주택에 관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혁신적이며 또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철을 사용한 혁신적 건축사를 선정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상금이 €30만이 넘으며,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이다. 선정된 디자인은 브라질과 중국, 그리고 영국에 세워질 예정이다. 참가를 위해서는 1월 12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이트에 6개 이하의 참가자들이 선정될 것이며, 보다 상세한 공모전 내용은 2월 14일까지 공시될 것이다. 공모전의 제출인은 5월 14일이다.



지난해의 지속가능한 스틸하우스 공모전 당선작

디지털

디지털 기술과 건축 외형의 변화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건축적 형태를 만들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사이언스 픽션에서 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타 트랙의 환상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혹은 선구자적 노력으로 현재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용적 실무자들에 의하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건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건축사, 과학자, 그리고 교육가들이 온타리오 캠프리지의 워터루 대학에 2006년 11월에 모였다. 'Fabrication, 제작, 제조, 조립'이라는 주제로 ACADIA(Association for Computer-Aided Design in Architecture)와 미국 AIA 실무 그룹인 AIA TAP(Technology in Architectural Practice)의 합동 컨퍼런스가 열렸다.

ACADIA는 건축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한 학구적 접근을 연구와 3D 모델링과 함께 학생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AIA TAP은 디지털 도구 사용의 실용적 접근을 하였으며, 건물의 설계 시공의 생애주기 기간에서의 지원과 협업에 의한 생산성 증진의 노력을 하였다. 이 모임에서, 학계와 실무자는 디지털 디자인과 합성 조함이 근본적으로 건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ACADIA 의장인 볼스테이트 재학의 캐빈 클링거 교수는 건축은 이제 도구와 기술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와 실무에 관한 다양한 발표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배웠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컨퍼런스 워크숍에서는 이들 새로운 도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러한 도구의 변화가 건축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맞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mart Geometry' 워크숍에서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며, 이를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장비를 이용한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개설되었다. 참가자

들은 건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하학적 탐구 작업에 적당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토의하였다.

버클리 대학의 리사 이와모토 교수는 그녀의 학생들과 개발한 인간 육체와 건축과의 관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 것을 발표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형태 디자인, 인간의 몸에 맞도록 설계된 디자인

그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공간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들은 인간 신체와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형태를 탐구함으로써 공간과 거주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CADIA와 AIA TAP의 과거 컨퍼런스 와 비교하여, 복잡한 건축적 형태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일었다. 참가자들은 부분적으로 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마틴 벡홀드는 모델링 도구가 점점 사용이 쉬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과거보다 복잡한 형태를 탐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은 복잡성은 비록 그 공간이 자극적이나 꼭 실용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복잡한 형태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기술적 도구들은 새로운 디자인 방법의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반면, 실무자들은 실제 건축 프로젝트에서의 새로운 도구의 사용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RMIT 대학의 마크 버리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있는 미완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장미창의 생성을 위한 자동화된 디자인 적용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주었다.

도요하시 기술대학의 시로 마수시마는 게리 파트너가 어떻게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이 개념설계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며,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형태 개발 등의 창의적 능력의 발휘를 통한 건축적 한계에 대한 도전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케드리드 홈스 LLC사의 조지 페드리드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캐서린 시모넬 루크는 나무와 같은 재료의 사용에 자동화된 영향을 고려하도록 건축사에게 권하고 있다. 그들은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건축사가 공장 기반 생산 체제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생산된 주택의 합리적 커스터마이징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키렌 팀버레이크사의 제임스 팀버레이크는 새로운 재료와 디지털 디자인의 결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들어지는 건축적 형태의 예

컨퍼런스에서의 적용 예의 발표는 새로운 건축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으며, 형태 생성의 새로운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다.

네메체카 그래픽소프트 인수

ArchiCAD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그래픽소프트사는 독일 AEC CAD사인 네메체카사의 2단계 합병을 수용하였다. 현재 네메체카사는 그래픽소프트사의 주식의 54.3%를 인수하였다. 주당 가격은 €9이다. 회사의 인수는 그래픽소프트사 주주들의 콜 옵션 행사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메체카사는 유럽의 AEC 시장에서 선도적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픽소프트사는 1982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 제품으로 ArchiCAD로 계획과 설계분야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2,200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네메체카사는 독일 회사로 설계, 건물의 시공 및 관리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142개국의 17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9,900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오 같은 움직임은 유럽의 가장 커다란 CAD 분야의 회사이며 3D 모델링 분야에서 두 선두 회사의 합병을 의미한다. 즉, 그래픽소프트사의 ArchiCAD와 네메체카사의 VectorWorks는 모두 건축 회사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며,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매킨토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소프트사의 Virtual Construction 분야의 제품들은 미국에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 네메체카사의 ALLPLAN은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북미 시장에서는 그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네메체카사는 그래픽소프트사를 별도의 부서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점진적으로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는 오토데스크사의 Revit이 BIM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rchiCAD와 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네메체카사는 그래픽소프트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현재의 강점인 기업문화와 유통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19호, 07.1.3. 공포)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 나.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추가함(안 제8조제6항 제15호 내지 제17

호 신설).

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개정).

마.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개정)

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의2제6항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관보 제16419호, 2007.1.11)

분양가 원가상승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체의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의 요건을 강화하며, 분양계약을 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가.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 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금지(법 제16조제5항)
- 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 라.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 마.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의 부담(법 제23조제4항)

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제출의무
등(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벌칙(법 제38
조의3 및 제97조제9호의2 신설)
아.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102조)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관보 제16422호 2007.1.16)

○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
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
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기 위하여 불입과 같이 전면 개정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
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
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
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의 효
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명
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 (2) “생성”, “말소”, “폐쇄” 등 주요 용어
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나.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기재(안 제8조)

- (1) 『건축법』 제69조제4항은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
반사항 기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아니함.

-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건축
물 표시, 위반내용 등 건축물대장 기
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의 발급규정
을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 (1)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
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2) 평면도의 발급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나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거나
그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

라. 건축물관리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
(안 제12조 내지 제26조)

- (1) 일선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
하여 건축물대장의 생성·변경·전
환·합병 등의 절차를 알기 쉽게 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건축물대장의 생성 등의 절차를 세
분화하여 규정함.

마.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안 제28조
내지 제33조)

-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
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
조기억장치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전
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
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 (2)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 종전의 건
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부터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건
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 (3)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
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
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
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대장의 보존기간 연장(안 제10
조)

현재 말소되어 폐쇄된 건축물대장의 경
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말소 또는 폐쇄된 건축물대장도 영
구 보존하도록 함.

사. 통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관
리부의 생성(안 제27조)

적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
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에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
부를 생성할 수 있게 함.

2006년 건축허가 현황(12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6,399	18,659	13.8%	134,649	188,283	39.8%
	연면적	16,687,571	15,305,378	-8.3%	111,505,726	133,270,569	19.5%
주거용	동 수	4,589	5,045	9.9%	37,799	53,225	40.8%
	연면적	9,212,339	7,297,171	-20.8%	50,280,827	53,860,783	7.1%
상업용	동 수	4,967	5,854	17.9%	40,546	57,796	42.5%
	연면적	2,654,735	2,900,393	9.3%	23,368,499	32,569,818	39.4%
공업용	동 수	2,205	2,316	5.0%	20,788	26,450	27.2%
	연면적	1,260,190	1,799,007	42.8%	13,575,956	16,812,963	23.8%
문교및 사회용	동 수	1,018	1,200	17.9%	9,991	12,380	23.9%
	연면적	1,023,810	1,032,954	0.9%	9,861,867	11,339,579	15.0%
기 타	동 수	3,620	4,244	17.2%	25,525	38,432	50.6%
	연면적	2,536,497	2,275,853	-10.3%	14,418,577	18,687,426	29.6%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6,399	18,659	13.8%	134,649	188,283	39.8%
	연면적	16,687,571	15,305,378	-8.3%	111,505,726	133,270,569	19.5%
철근 철골조	동 수	14,998	15,557	3.7%	118,688	161,149	35.8%
	연면적	16,594,816	15,082,991	-9.1%	110,203,621	131,063,498	18.9%
조적조	동 수	1,176	2,174	84.9%	13,628	20,926	53.6%
	연면적	72,670	150,575	107.2%	1,072,791	1,626,200	51.6%
목조	동 수	225	796	253.8%	2,326	5,654	143.1%
	연면적	20,085	63,474	216.0%	228,626	474,209	107.4%
기 타	동 수	0	132	0.0%	7	554	0.0%
	연면적	0	8,338	0.0%	687	106,662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6,399	18,659	13.8%	134,649	188,283	39.8%
	연면적	16,687,571	15,305,378	-8.3%	111,505,726	133,270,569	19.5%
수도권	동 수	6,641	6,663	0.3%	43,188	61,565	42.6%
	연면적	7,090,003	7,459,486	5.2%	46,656,485	55,563,640	19.1%
서울	동 수	937	1,155	23.3%	7,678	10,595	38.0%
	연면적	1,101,578	1,183,977	7.5%	10,561,318	13,831,906	31.0%
인천	동 수	464	606	30.6%	3,848	4,937	28.3%
	연면적	585,326	878,538	50.1%	4,558,193	5,081,006	11.5%
경기	동 수	5,240	4,902	-6.5%	31,662	46,033	45.4%
	연면적	5,403,099	5,396,971	-0.1%	31,536,974	36,650,728	16.2%
지방	동 수	9,758	11,996	22.9%	91,461	126,718	38.5%
	연면적	9,597,568	7,845,892	-18.3%	64,849,241	77,706,929	19.8%
부산	동 수	591	529	-10.5%	5,166	6,103	18.1%
	연면적	1,095,646	318,392	-70.9%	5,946,299	9,849,839	65.6%
대구	동 수	744	629	-15.5%	5,220	6,276	20.2%
	연면적	1,389,375	674,111	-51.5%	9,226,745	7,619,792	-17.4%
광주	동 수	570	401	-29.6%	3,856	4,600	19.3%
	연면적	433,294	377,850	-12.8%	3,062,807	4,375,739	42.9%
대전	동 수	392	291	-25.8%	3,022	3,843	27.2%
	연면적	772,652	183,260	-76.3%	2,947,746	3,342,192	13.4%
울산	동 수	323	571	76.8%	3,397	4,973	46.4%
	연면적	106,530	663,431	522.8%	1,778,069	2,955,795	66.2%
강원	동 수	602	911	51.3%	7,112	10,517	47.9%
	연면적	477,778	811,124	69.8%	4,878,606	5,270,153	8.0%
충북	동 수	918	1,011	10.1%	7,802	11,066	41.8%
	연면적	698,982	640,213	-8.4%	5,566,194	5,535,839	-0.5%
충남	동 수	894	1,291	44.4%	9,253	13,441	45.3%
	연면적	841,345	956,333	13.7%	7,303,932	8,646,626	18.4%
전북	동 수	659	884	34.1%	6,946	11,385	63.9%
	연면적	534,052	314,655	-41.1%	3,711,329	4,204,843	13.3%
전남	동 수	722	1,512	109.4%	7,935	13,181	66.1%
	연면적	417,816	585,936	40.2%	2,741,707	4,767,424	73.9%
경북	동 수	1,495	1,697	13.5%	14,527	19,592	34.9%
	연면적	863,227	919,272	6.5%	6,874,833	8,438,246	22.7%
경남	동 수	1,542	1,927	25.0%	14,086	18,062	28.2%
	연면적	1,854,853	1,188,313	-35.9%	9,781,751	11,498,510	17.6%
제주	동 수	306	342	11.8%	3,139	3,679	17.2%
	연면적	112,018	213,002	90.1%	1,029,223	1,201,931	16.8%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12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건 축 사 회																																	
합계	5,088	5,088	148	296	21	66			5,257	5,450	1,501	1,501	267	534	68	204	37	148	30	205						1,903	2,592	7	7	7,167	8,049	100.0%	100.0%
서울	1,112	1,112	39	78	9	28			1,160	1,216	849	849	173	346	41	123	21	84	17	122						1,101	1,524	6	6	2,267	2,748	33.2%	35.4%
부산	483	483	19	38	4	13			506	534	84	84	15	30	5	15	4	16	4	22						112	167			618	701	8.9%	9.1%
대구	417	417	24	48	6	19			447	484	56	56	21	42	6	18	1	4	2	10						86	130			533	614	7.3%	7.5%
인천	238	238	1	2	0	0			239	240	49	49	6	12	0	0	0	0	0	0						55	61			294	301	3.9%	3.9%
광주	211	211	2	4	0	0			213	215	33	33	7	14	1	3	2	8	3	17						46	75			259	290	3.5%	3.8%
대전	199	199	16	32	0	0			215	231	29	29	9	18	2	6	1	4	1	15						42	72			257	303	3.6%	3.7%
울산	165	165	6	12	1	3			172	180	14	14	4	8	1	3	0	0	0	0						19	25			191	205	2.6%	2.9%
경기	683	683	7	14	0	0			690	697	214	214	17	34	4	12	1	4	1	5						237	269			927	966	12.7%	12.1%
강원	160	160	3	6	0	0			162	165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88	198	2.5%	2.4%
충북	176	176	8	16	0	0			184	192	26	26	2	4	1	3	2	8	1	9						32	50			216	242	2.9%	2.8%
충남	161	161	4	8	0	0			165	169	36	36	1	2	1	3	4	16	0	0						42	57			207	226	2.7%	2.8%
전북	191	191	3	6	0	0			194	197	22	22	2	4	2	6	1	4	0	0						27	36			221	233	2.8%	2.8%
전남	136	136	0	0	0	0			136	136	9	9	0	0	1	3	0	0	0	0						10	12			146	148	1.9%	1.7%
경북	308	308	7	14	1	3			316	325	28	28	3	6	1	3	0	0	0	0						32	37	1	1	349	363	4.8%	4.2%
경남	349	349	9	18	0	0			358	367	23	23	4	8	2	6	0	0	0	0						29	37			387	404	5.2%	4.9%
제주	99	99	0	0	0	0			99	99	8	8	0	0	0	0	0	0	0	0						8	8			107	107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49	10	8,059	100.0%	23
서울	2,748	3	2,751	35.4%	10
부산	701	1	702	9.1%	9
대구	614	0	614	7.5%	0
인천	301	0	301	3.5%	0
광주	290	0	290	3.6%	0
대전	303	1	304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66	2	968	12.1%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42	0	242	2.9%	0
충남	226	3	229	2.6%	0
전북	233	0	233	2.6%	0
전남	148	0	148	1.7%	0
경북	363	0	363	4.2%	1
경남	404	0	404	4.9%	1
제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40	2,602	79	8,121	
비 율	66.99%	32.04%	0.97%	100.0%	
사무소수	5,247	1,911	-	7,158	
비 율	73.3%	26.7%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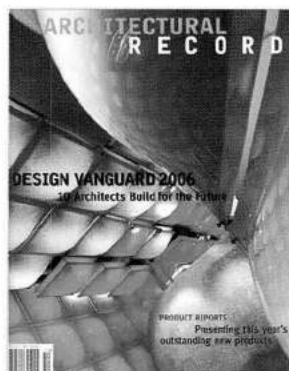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12월호



Architectural Record 12월호는 젊거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훌륭한 완속도로 새로운 건축을 모색하고 있는 10명의 건축사(혹은 집단)를 선정하여 Design Vanguard 2006에서 소개하고 있다. 단신이나 뉴스 정도에서 보이던 생소한 회사들 가운데, 국내 건축사무소인 운생동의 발견은 애국심 운운하지 않더라도 반갑다. 빌딩 유형 연구에서는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비롯한 최근의 숙박 시설에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건축 기술 관련 특집 기사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디자인 차원에서 고려한 작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눈길을 끈다.

■ Design Vanguard 2006

2006년 Design Vanguard에 선정된 10개의 건축사무소의 작품들은 이전 세대들이 유혹적인 컴퓨터 작업에 몰려 수많은 카페인과 불면의 밤을 통해 만들어낸 '과도하게' 역동적인 곡면이나 표현주의적 경향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우아한 비례감, 격조있는 디테일, 독창적인 재료의 사용을 통해, 미스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표피와 도료가 아닌 전기에 의한 색채의 사용을 통해, 실재감과 존재 의미의 새로운 차원에 도전하는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아직 많은 작품이 실제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충분히 성숙한 접근을 보여준다.

규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Design Vanguard들은 재료의 본성에 대한 유쾌한 탐험을 진행 중이다. 이들 작품에서 표피는 중요한 관심사지만 그들 작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표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의미의 공간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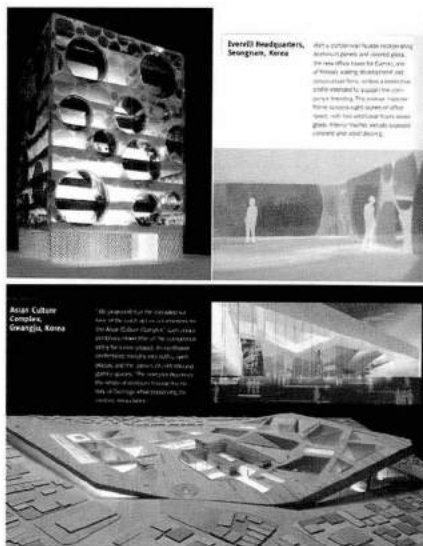
경험과 행위, 그 고양된 층위이다. 선정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운생동 건축사무소, Studio Luz, BAR, Studio SUMO, Kumiko Inui, Bercy Chen Studio, BmasC Architects, Assadi + Pu

• 운생동 건축사무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흥미롭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드리우고 있는 전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운생동 건축사무소는 경력이 국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을 시도하고, 실제로 지어지는 것은 국내 작품 위주라는 것을 '제한적 상황'으로 파악하는 외부의 시선을, "한국의 상황이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제안'이며 특히 도시적 상황에 그들의 작품이 근거함"을 제시하여 동시대성을 확보함으로써 거두어들이고 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Record 지는 예 갤러리와 아시아 문화전당의 건축적 성취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건축이 실현되면서 현실적 조건에 의해 원안의 성격이 희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품에서의 컨셉의 힘에 대한 신뢰감을 확인하고 있다.



Unsangdong - Everhill+ACC

• Kumiko Inui

Kumiko Inui는 아오키 준 휘하에 있었던 4년동안(아오키 준은 4년이상 같은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선을 끄는 몇몇 작품들에 참여한 후 2000년 독립하였다.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이 그러하듯 Kumiko

Inui 또한 파사드 디자인에서 대단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그녀가 온전히 디자인한 첫 작품인 구마모토 현의 신 아츠시로 역사 광장의 파블리온은 여행자들을 위한 대기실이다. 집이라는 것에 대한 원초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박공지붕 주택형태의 외관과 유리 강화 콘크리트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화된 재료의 사용, 그리고 벽이자 동시에 지붕에 있는 프랙탈적인 개구부들의 향연은 비록 “비가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녀의 건축의 근본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새롭게 제시하는 비전의 교묘한 결합은 각종 명품 부티크의 설계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타이페이의 루이뷔통 매장과 긴자의 디오르 매장이 소개되고 있다. 타이페이에서는 석회암 위에 크기가 다른 10만개의 수지로 된 원형의 점을 새겨 넣어 외관에 루이뷔통 특유의 Damier패턴을 표현하고 있다. 밤에 되면 이 점들은 빛을 내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실루엣과 결합되어 비물질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긴자의 매장에서 디오르의 유명한 canage패턴은 더블 스킨의 알루미늄 망 패널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표피의 작업이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그녀의 건축이 표피에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표출하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SeARCH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SeARCH는 3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짧은 역사에 비해 제법 큰 규모의 사무실이다. Bjarne Masterbroek를 수장으로 하는 이 사무소의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것의 일신 내지는 리모델링이라 칭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가 귀한 네덜란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Masterbroek는 도시의 유지와 보호에 열정을 가지고, 그 주변과 도시 변경의 조직에서의 건축과 공지에 관심을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시에게 있어서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건축주에 대한 설득에 진을 빼고, 그 결과 1930년 스타일의 빌라가 양산되는 네덜란드의 주택시장에서 SeARCH의 주거 프로젝트에 대한 연이은 시도는 그들이 여전히 건축의 진정성을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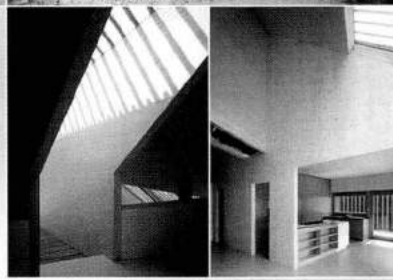


01



**Wolzak House,
Zutphen, the
Netherlands**

A farmyard with various outbuildings was adapted and expanded as a single-family house. The livestock barn that formed the stem of a traditional T-shaped farmhouse was replaced by a new, skewed volume with a distorted “pulled and dragged perspective,” says principal Bjarne Masterbroek. The new extension abuts the opening left by the removal of the original barn, visually retaining the T shape. The load-bearing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consists of prefabricated wood plates.



02

01_Kumiko Inui- Louis Vuitton in Taipei + Shin Yatsushiro Monumnet(right upper)
02_SeARCH-Wolzak House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Zutphen의 Wolzak House는 농장의 별채를 단독주택으로 확장한 사례이다. 여기서 SeARCH는 오래된 건물에서 남겨야 할

것에 대한 명민한 감각을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주택의 지붕과 이영을 그대로 남기고 외양간으로 확장하여 각이진 목재로 주택의 벽과 천정을 일체화 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과

외양간 사이는 기존의 휘어진 목재를 사용하여 오두막을 연상시키는 친근한 형태의 아르 리움을 연출하는데, 목재의 다양한 느낌을 쉬우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Rheden의 Posbank 파빌리온은 목재와 강재, 석재의 복합적인 사용을 통해 구조와 공간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빙하기 때 형성된 언덕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Ilido, Work Architecture co., SeARCH

■ 빌딩 유형 연구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현대 건축이 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선언적인 사례였다. Architectural Record 2006년 12월호의 빌딩 타입은 이런 경향을 따라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새로운 경향의 호텔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게리의 Marqu   De Riscal Hotel은 명백하게 와인 여행객들과 68마일 남짓 떨어진 빌바오에서의 여행을 조금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건축 기행객들을 겨냥하고 있다. 와인을 연상시키는 보랏빛과 빌바오에서 사용했던 은빛 티타늄의 물결 속에서 이 건축물은 와인 농장을 밀어낸 자리 위에서 매혹적인, 하지만 이제는 조금 식상할만하기도 한



Frank Gehry-Marques de Riscal Hotel



Enrico Dalfonchio-The Outpost

외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코너를 통해 일전에 소개되었던 칠레 파타고니아의 Hotel Remota는 건축사 German del Sol의 대지와 스펙터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구현된 작품이다. 남아프리카의 Kruger 국립공원 내에 자리잡은 The Outpost는 말 그대로 자연속에 던져진 오두막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야생의 삶과 합일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녹여내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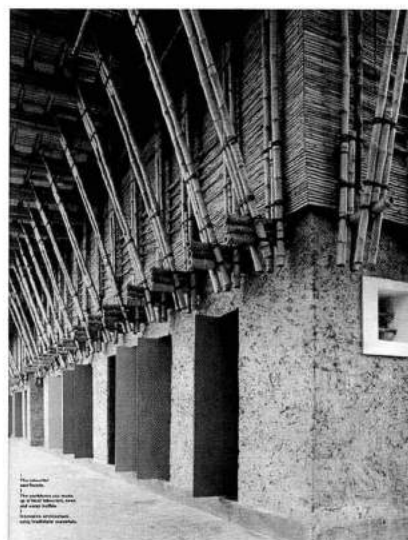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2006년 12월호는 최근 건축환경의 다양성과 변화를 잘 반영하는 건축에 대해 Review지가 시상하는 'emerging architecture award' 수상작 특집으로 한권이 채워졌다. 전세계 53개국 462개의 완공된 작품들로 구성된 출품작에서 1등 3작품, 우수상 7작품, 입선 16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많은 작품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등작과 다른 작품들간의 질적 격차가 아닌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조건들을 이해하고 개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건축사들의 의지와 명민한 감각, 낙관적 시각이었다. 크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건축 영역의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주도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review지가 이 행사를 통해 증거하려는 것이 전세계적 차원의 건축사와 그들의 꿈이 가지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Emerging Architecture Award 2006

• HandMade School (Rudrapur, 방글라데시)

건축사 Anna Heringer, Eike Roswag

저개발국가에서 모더니즘 건축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명백하게 재앙에 가깝다. 전통적 재료와 기법은 돈이 많이들고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떨어지는 재료와 절차들로 대체되고, 선진국에 새로운 이윤을 제시하는 만만한 시장을 제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오래가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상태의 건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Anna Heringer와 Eike Roswag가 방글라데시에서 시도한 교육시설 Handmade School은 고매한 건축적 이상이 아닌 열악한 건축적 조건(최고 수준의 인구밀도와 최저수준의 국민소득)에 대한 인간미 넘치는 제안이다. 이 건축은 벽돌과 진흙, 갈대와 대나무, 노끈과 같은 즉각적으로 구할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벽돌조의 기본 구조에 진흙과 갈대를 섞어 벽에 보강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진흙과 갈대로 벽을 만드는 기법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재료와 축조 방식은 대나무로 짜여진 2층 바닥을 만들 때도 도입되었다. 이 작품은 건축의 디자인과 실제 삶의 질의 고양이 거의 같은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와 그 이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건축에 대한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na Heringer Eike Roswag-Handmade School



01_ Sou Fujimoto-Children's treatment center 02_ Xavier Font-Bridge Restoration 03_ White Architektør-Sea Bath 04_ Fujiki Studio + KOU::ARC-aqua Scape

• 아동 치료 센터(홋카이도, 일본)

건축사 Sou Fujimoto Architects

Sou Fujimoto의 아동치료 센터는 정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건축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다. 이 작품에서 건축사는 무계획적으로 흩뿌려진듯 하지만 실제로는 섬세하게 계획되고 배치된 일련의 개별 건물군에서 다원화된 중심들과 외부와의 관계들을 창조하고 있다. 건물과 공간의 위계가 없는 대신 다수의 우묵한 장소(alcove)와 반사적인(semi-private) 장소들을 둥글로써 환자가 자신만의 공간을 인식하고 공용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서장애 아동의 두 가지 경향, 즉 무기력증이나 편집증 증세를 보이다가도 가끔씩 그들의 개성에 대한 강한 표출 욕구에 대한 건축사의 배려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공간, 즉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거리를 둔” 공간은 정서불안 환자의 필요에 대한 건축사의 강력한 직관적 대응이다.

• 교각 복원(바르셀로나, 스페인)

건축사 Xavier Font

1811년 2월 23일 나폴레옹의 진군을 막기위한 절망적인 시도로 조셉 오비소포 장군은 Pont Trecat 다리의 파괴를 명한다.

(Pont Trecat이라는 명칭 자체가 무너진 다리라는 뜻이다.) 근처에 새로운 다리가 1860년대 개통되자 무너진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1990년 중반 지역 주민들이 다리 복원에 대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10년 뒤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바르셀로나 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사 Xavier Font는 여기에서 교각 유실 부분을 기존의 석조대신에 코르텐 강으로 된 아치교로 하는 대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아치가 상판의 박스 거더(24m 스패)를 지지하는 구조는 이전 것과 새로운 부분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한편 다리의 연속성을 위해 박스 거더의 상부가 난간역할을 하여 기존 석조 구조 상부로 보이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프로젝트 자체의 대범함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 Sea Bath(Kastrup, 덴마크)

건축사 White Architektør

덴마크의 기후는 지중해와 같이 온난한 날이 많지 않다. 일단 날씨가 좋으면 야외 스포츠에 대한 열망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높은 것이다. White Architektør의 ‘부두가 딸린 야외 수영장’은 이런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도이다. 기존의 해변에서 100m 돌출된 부두에 원형의 울짱과 유사한 구조물이 결합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형의 울타리는 부식에 강한 목재를 둘러쳐

바람과 오후의 강한 햇살을 막고 동시에 내부의 잔잔한 수면상태를 가능하게 한다. 원형의 구조물은 1/4정도가 개방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며, 조수 간만에 따른 수면 높이의 변화에 따라 다이빙과 일광욕, 휴식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작품은 공공의 영역을 만들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진지한 실천으로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 Aqua-Scape(도카마치, 일본)

건축사 Fujiki Studio, KOU::ARC

종이접기와 해파리 같은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 눈에 확 띄는 물에 뜨는 구조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일종의 도시의 폴리 혹은 누에고치와도 같은 이 구조체는 동시에 밤이면 푸르스름하게 빛을 내서 거대한 해파리를 연상하게 한다. 구조 방식은 종이 접기 방식을 응용하여 종이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벽은 폴리에틸렌 조직을 엮어서 구성되어 있고, 내벽은 폴리카보네이트 판재가 외력으로부터 형태를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내부는 부드럽고 폭신하여 어른과 아이가 그 속에서 즐기고 조용히 격렬한 외부세계로부터 잠시 피난하고 싶은 장소로 침잠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인천 전문대 출강) ㉠